“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1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1일(음력 11월 13일) 목요일 / 불기 2570년



다시, 정법의 첫걸음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안고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 해도 불교의 지혜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쉼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글=여수령 기자 · 그림=박혜원 작가

불교도 사회도 ‘선거의 해’

조계종, ‘최고 신성’ 종정 추대
본사 주지·종회의원 선거 예정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 ‘관심↑’
불자 정치인 ‘지선’ 출마 잇달아
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도전
주호영 의원, 대구시장 출마 계획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올해 불교계와 한국사회는 각종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조계종은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추대를 비롯해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치른다. 사회적으로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려 불자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올해 조계종 선거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선거로 시작된다. 현 주지 덕조 스님의 임기가 2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새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월 16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열린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월 4~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 소임을 맡고 있을 경우 1월 3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교계 안팎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전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9월 예정된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7일 만료로, 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인 9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총무원장 후보는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3년 이상 역임 중 하나라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참여한다. 선출된 총무원장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도 새 얼굴을 뽑는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11월 8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만료일 30일 전 돌아오는 첫 번째 목요일에 선거가 시행된다.

직선직 의원 51명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되며,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대표 의원 10명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승려로, 임기는 4년이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는 전국비구니회가 교육·수행, 포교, 복지, 행정, 사회·문화분야로 나눠 선출한다. 분야별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2인 이상이 입후보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12월 경에는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조계종 종정 스님을 추대한다.

〈A2면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7
기후 스님(시드니 정법사 회주)



B is Hip
B1 · 3 · 4 · 5 · 8 · 9 · 12 · 13



현대불교·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C1 · 2 · 3 · 6 · 7 · 10 · 11



신년법어·신년사
A13 · 14 · 16 · 17 · 18 · 19
신년수상 무비 스님 A30
화엄만다라 B23
보명 스님(경주 보광사 주지)

신년 인사말

“AI시대 선도”

단 하루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곧 희망이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걸어 온 지난 30년 세월 속에서 현대불교신문은 멈추지 않고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오래도록 기억될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한국불교기자상 대상과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언론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불교계 최초로 상담봇(해심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뉴미디어 이슈를 선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AI 시대에 발맞춘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스타그램과 뉴스클리핑 등 온라인 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불교계 대표 디지털 미디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교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2025년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불교계 언론으로는 가장 먼저 피해복구기금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동으로 6월 캄보디아 시엠립을 찾아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부처님 자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꿈꾸는 세상은 염화미소(拈華微笑)로 가득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서로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2026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AI의 대전환 시대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대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Digital First’ 경영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종이신문은 ‘프리미엄 정보지’로 발전시키고, 인터넷·유튜브·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해 뉴스 접근성을 확장함으로써 종합 미디어 채널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해는 또 현대불교 후원회(현불회)를 공식 발족해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불교와 불자들의 의제를 만들어 내는 ‘불교 공동체’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최고의 언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은(佛恩)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며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수행과 신행, 그리고 삶 속에서 현대불교신문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태고종, ‘영산문화축제’ 연다

제155회 태고종 중앙종회 정기회
2026년도 종단 사업계획 승인해
58억 원 규모 종단 예산 결의도
16대 후반기 종회의장 법륜 스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2월 23일 태고종 중앙종회 제155회 정기회에서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법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올해 광화문 광장에서 1만여 종도가 보여준 환희를 내년에는 ‘영산문화축제’로 이어간다.

태고종은 1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원 대회의실에서 제155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비롯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종단 예산 인준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총무원은 202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태고종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한 영산재와 국제수계법회가 많은 종도들과 국민들의 호응 속에 회향한 만큼, 내년에도 열기를 이어 갈 수 있는 ‘영산문화축제’를 봉행한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이며 태고종 대표 무형유산인 영산재를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종단 내부 시스템의 보완·구축도 진행된다. ‘승려 의무금 자동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승려 의무금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가 어려운 종도들에게는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단 민원 결재시스템 전산화 작업’은 민원 서류 등의 지방교구 발급 종류를 늘리고 결재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도 논의 끝에 원안대로 승인됐다. 총무원 예산은 48억 7000여 만원, 한국불교신문사 예산은 2억 8000여 만원, 월간불교사는 2억 2000여 만원 등 총 58억 7000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앞서 태고종 중앙종회는 후반기 중앙종회의장과 수석·차석부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을 구성했다.

16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선거에는 법륜 스님과 원명 스님이 입후보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륜 스님이 32표로 당선됐다. 당선 직후 법륜 스님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중앙종회 운영이 원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스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다. 의원 스님들과 함께 가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수석·차석부의장에는 원일 스님과 혜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후반기 중앙종회는 종단의 미래를 향한 더욱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중앙종회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종단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종단 운영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대 맞는 재가자 포살’…조계종 종책 공모 시상

12월 24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실현 가능 · 실제 효과 종책 위주
한국불교 브랜드화 종책도 다수
사회·재정 등 4개 분야 55건 접수



조계종 종책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조계종연구소가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봉녕사 향림 스님이 제안한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열린 ‘종책제안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향림 스님을 비롯한 우수장·장려상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사진〉 최우수상에게는 5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상금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의견을 듣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제언들이 나와 뿌듯하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주경 스님도 “이번 공모전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종단 종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제안들이 실제 종단 종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단과 해당 부서는 수상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협력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향림 스님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은 포살을 통한 지계 중심의 신행 회복을 위한 것이다. 매월 1회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맞춰 계율을 독송하고 명상과 경전 독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담고 있다. 이는 명상과 체험 등 실천 중심의 신행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한 제안으로 평가됐다.

향림 스님은 “승가에서는 정기적인 포살이 이뤄지는데 재가자들 대상의 포살은 정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보니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를 통해 청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 재가자들에 맞춘 현대적 포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은 ‘K-Seon 글로벌 사업단 설립(안주영)’과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이승훈)’ ‘박물관에서 만난 부처님(이재호)’ ‘불교문화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통한 현대적 포교 전략(수월 스님)’ ‘불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재정통합체계 구축 방안(이미라)’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AI시대 신행의 변화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할 모색(박훈)’ 등 10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김내영 기자

A1면에서 이어짐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승납 45년, 연령 70세 이상, 대종사 법계를 갖춰야 한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종정은 임기 만료 3개월 전 또는 유고 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종정추대회의에서 추대된다.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호계원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현 종정 스님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

관음종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임기가 7월 중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의 선임이 이뤄진다. 관음종은 종헌종법 상 종정이 총무원장을 지명 및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그런 만큼 불자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불자 정치인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각회 회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김영배 의원은 출사표를 던진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10분 역세권 도시’ 등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로 불자 정치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은 2025년 12월 8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출마를 준비했다”며 “가급적 빠르게 신년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명상의날 한국위 출범 "마음 평안 기여"

12월 21일 서울 봉은사서 출범
UN세계 명상의 날 1주년 기념
진우 스님 "명상으로 마음 치유"
어린이 · 청소년 '미래세대 제안'
'세계 명상 흐름과 과제' 컨퍼런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2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출범식에서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명의 공동위원장이 '마음 평안 명상'을 낭독하며 명상 실참을 이끌고 있다.

유엔(UN)이 제정한 '세계 명상의 날(12월 21일)' 1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명상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상임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21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기념 행사와 한국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위원회는 이날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을 만장일치 가결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이경열 원불교 교무,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조승래 국회의원(국회마음챙김포럼 대표), 이강욱 대한명상의학회장, 육영숙 한국명상학회장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진우 스님은 'UN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유엔이 세계 명상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인류의 정신적 평화를 위한 분명한 선언"이라며 "한국위원회는 다양한 명상의 지혜를 현대 사회의 언어로 풀어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실천과 연대를 이끌어 대한민국이 정신문화 선진국으로 국제 사회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겠다"며 "우리가 함께 밝힌 이 마음의 등불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신건강 정책 수립과 추진을 약속했다. 세계적 명상 지도자인 존 카밧진 박사와 차드 멍 탄, 로시 조안 할리팩스도 영상 메시지로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마음 평안을 위한 미래세대 제안'을 발표했다. 은석초와 동대부중, 광동고 등 불교 종립학교 학생 6명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란 생각에 '명상'을 선택했다"며 가정과 사회에 △학교에서 명상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공간 마련 △마음과 관계를 배우는 수업 신설 △가족 명상 시간 마련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명의 공동위원장들이 낭독한 '마음 평안 명상' 안내 문구에 따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2부 컨퍼런스는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강욱 대한명상의학회장이 '명상의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 혜주 스님(동국대 아동청소년교육과 교수)이 '세계 명상 교육의 흐름과 한국의 과제',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세계 명상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로 열렸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은 12월 20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2025 문화 선명상 프로그램 '겨울에 – 이 뭣고'를 개최했다. 정토회는 12월 21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명상 법회를 열고,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지도로 전 세계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15분 명상'을 진행했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태국 난민 구호

1월 31일까지 2차 캠페인 진행
해피빈 모금함 · 계좌이체 가능


캄보디아 · 태국 국경 분쟁으로 시엠립 지역 쁘라삿 꼭쩍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피난민의 모습.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최근 재격화된 국경 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유입된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31일까지 후원금 모금 중심의 긴급구호 캠페인 '생필품 하나가 절실한 전쟁 속 피난민들'을 진행한다. 후원금으로 쌀과 생수, 라면 등 기본 식료품과 세면도구·수건 등 생필품을 마련해 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 태국 국경 분쟁은 지난 7월 24일 양국 군대가 국경 지역에서 군사 충돌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이로인해 오다르메안체이주와 프레아비헤아르주 등 국경 인접 지역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로터스월드 지부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으로 이동했다.

갑작스러운 난민 증가로 사찰들은 심각한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다. 시엠립 지역 쁘라삿 꼭쩍 사찰에는 현재 211가구 670여 명의 피난민이 머물고 있다. 사찰 관계자는 "마땅한 대피시설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피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사찰뿐"이라며 "하루 평균 400kg 이상의 쌀이 사용될 정도로 식량과 식수, 의복, 위생용품 등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삐담 사찰에도 252가구 약 810여 명의 난민이 생활 중이다. 이곳 관계자는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지만 식량과 생필품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부처님의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생필품 하나가 절실한 전쟁 속 피난민들'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계좌(기업은행 024-071023-01-031, 예금주: 로터스월드) 직접 후원도 가능하다. 02-725-4277 임은호 기자

27년 5개월 "나무아미타불" 염불…원만성취로 회향

동산반야회 · 불교대학, 12월 21일
1만일 회향법회…300 행자 자축


12월 21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0000일 정진 회향법회'에서 법주 법산 스님이 행자들에게 '나무아미타불 낙자'를 수여하며 오랜 정진을 격려하고 있다.

27년 5개월 15일, 1만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염불수행의 만일 원만회향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동사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사장 정은용)은 12월 21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0000일 정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27년 5개월 전 만일 수행 첫발을 함께 내디뎠던 300여 염불행자들과 동산반야회 회원들이 모여 긴 세월의 염불수행이 맺은 결실을 축하하고 그 공덕을 함께 나누며 자축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를 구호로 1998년 8월 5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염불 기도정진을 입재했다. 염불행자들은 매일 1만송 이상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매년 여름 전국 고찰에서 공동 정진을 이어왔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인사말에서 "염불 만일 회향은 기적"이라고 감격을 전하며 "염불정신 공덕은 자신에게 미침과 동시에 뭇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동안 염불정진을 회향했다고 염불정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만일 염불은 평생 염불이며 극락에 가서도 염불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염불만일회 법주 법산 스님은 '여불정진의 공덕'을 주제로 회향법문하고 정진을 이뤄낸 염불행자들을 치하했다.

법산 스님과 보광 스님, 안동일 회장은 염불행자 한 명 한명에게 '나무아미타불 낙자'를 수여하며 오랜 정진을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염불만일회 입재에서 회향까지 육바라밀을 실천해 불자로서 염불정토를 이루기 위해 법회를 장엄한 이들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염불행자들은 회향 발원문에서 "염불정진 공덕으로 이번 생을 마치는 임종 시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 세지 양대 보살과 극락세계 성중들의 마중받고 삼계윤회 벗어나 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해지도록 굽어살펴 달라"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삼학설행사 '날란다 코스' 학년말 시험

4년제 수행자 양성 과정
70명 응시…보살계 수계식



서울 티베트불교 사찰인 '삼학설행사(랍숨섀둡링)'(주지 텐진남카 스님)에서 진행하는 4년제 불교 수행자 양성 과정인 '날란다 코스'의 학년말 시험 및 보살계 수계식이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사진〉 12월 20일 진행된 시험에는 불교철학과 〈보리도차제〉를 공부한 사부대중 70명이 응시했다.

날란다 코스는 총 4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학과 수행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이다. 주지 텐진남카 스님은 이 과정의 목표에 대해 "불자로서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법을 혼자서도 바르게 정진할 수 있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여러 사찰에서 불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날란다 코스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 영상과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수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학년말 시험과 출석률에 따라 진급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간적 제약이 없는 덕에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코스에 등록했으며 해외거주 불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시험 후 봉행된 보살계 수계식에서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조계종 교육아사리회 회장 금강 스님은 "시험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한 해 동안 공부한 것에서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30돌 국제포교사회, 숙원 '불교대학' 설립

12월 20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국제포교불교대학' 계획 발표
1년 2학기 운영…외국어 등 교육
온 · 오프 포괄 '브렌디드 러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동수 국제포교사회 교육부장이 새로 설립되는 '국제포교불교대학'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가 숙원이던 '국제포교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12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역대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설립 인가를 받은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운영 계획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포교를 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초대 학장은 덕림 스님(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장)이, 운영위원장은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맡는다. 운영위원으로는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과 조진화·오성환·김연금·김동수 국제포교사가 참여한다.

교과 과정은 예비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한 품수과정과 불교 초심자를 위한 기본과정, 국제포교사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국제포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기본과정에 기초 불교 영어·일어·중국어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며 불교 개설·부처님 생애의 과목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김동수 국제포교사회 교육부장은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브렌디드 러닝' 교육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온라인은 종단 직영 디지털불교대학과 협업해 운영되며 오프라인은 조계사 지하 1층 선우당을 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온라인 강의의 70%이상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며 줌(Zoom)의 번역기능 및 AI음성 번역 기능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총 32주 이상의 교육 과정과 봉사 및 템플스테이 16시간, 학장 덕림 스님 연수 및 법문 4시간으로 구성된다. 수료를 위해서는 80%이상의 출석률과 평가시험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조규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숙원이었던 국제포교불교대학 설립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됐다"면서 "이는 일반 사찰불교대학이 아니라 외국어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우수한 국제포교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문 불교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이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국제포교불교대학 설립으로 우리의 원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대 학장인 덕림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설립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과 같은 중요한 불사"라며 "우리가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대들보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제포교와 교육에 임하도록 하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서른 살은 입지(立志) 또는 이립(而立)이라 해서 뜻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라며 "국제포교사회도 3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단 위기 나란다 축제, 원력으로 우뚝

12월 21~22일 동국대서 제17회
남산 걸으며 인도순례 되새겨


'제17회 나란다 축제'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명상체험 모습.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던 불교계 최대 청소년 신행문화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부처님 법 전합시다'의 원력으로 다시 섰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는 12월 21~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제17회 나란다 축제'를 개최했다.

나란다축제는 2009년 전국 규모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로 출발해, 2012년부터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신행축제로 확대·개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공모전 형태로 전환해 꾸준히 이어졌으며,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주최단체였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축제 취소를 공지했다.

그간 함께 대회를 기획·진행했던 동국대를 비롯해 상월결사, 동련, 파라미타, 교법사단, 불교음악원, 대불련, 좋은벗 등의 단체들은 대회 재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계사 주지이자 상월결사 이사인 담화 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들어갔고, '나란다 축제'라는 청소년 전법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다.

12월 22일 진행된 나란다 축제에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전법 원력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동대부중, 동대부고, 영석고 학생 180여 명은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순례체험을 통해 남산 일원을 걸으며 지난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상월선원 명상체험이 진행됐다. '상월결사 108원력문'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전법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해봉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12월 21일에는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중고등부 '불교교리경시대회'(일부는 22일 진행)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봉은사 시왕전 준공…"흩어진 시왕도, 환지본처 발원"

12월 20일, 점안·준공식 봉행
5만기 규모 위패 봉안단도 설치


주지 원명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진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가 흩어졌던 시왕도 4점의 환지본처를 발원하며 추진해 온 시왕전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됐다. 시왕전은 삶을 성찰하는 수행 도량이자 24시간 염불이 이어지는 기도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2월 20일 경내 시왕전에서 '삼존불 점안의식 및 준공식'을 거행했다.

시왕전 건립불사는 원명 스님의 '시왕도 환지본처' 발원에서 비롯됐다. 봉은사 시왕도는 과거 지장전에 봉안돼 있었으나, 1939년 화재로 판전을 제외한 전각이 소실되면서 각지로 옮겨지게 됐다. 이후 봉은사는 복원과 중창을 추진하는 한편 시왕도 소재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시왕도 4점 가운데 1점(1·3대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5·7·9대왕, 6·8·10대왕)은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또 다른 1점(2·4대왕)은 2018년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봉은사로 환수됐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왕전에 봉안될 예정이다. 나머지 3점 역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왕도는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서울시 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시왕전 건립불사가 본격화됐다. 불사 시작을 대중에 알린 뒤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2023년부터는 모연을 통해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았다. 올해 12월까지 이어진 모연에는 474세대, 500여 명이 동참했다.

시왕전은 봉은사 지장전 후면에 세워졌다. 콘크리트 구조와 한식 목구조를 결합한 전각으로, 내부에는 목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을 봉안했다. 5만기 규모의 위패 봉안단도 마련해 상시 예경과 기도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12월 18일에는 시왕도 4점의 영인본과 후불탱화를 봉안하고, 19일에는 삼존불 복장의식이 진행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시왕전을 "24시간 염불이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봉은사 노전국 소속 환몽 스님이 독경한 〈천수경〉과 〈금강경〉, 〈아미타경〉, 영가 축원 등을 녹음해 상시로 틀어 둘 예정"이라며 "누구나 와서 마음을 놓고 예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2026년에도 전법 포교 매진하겠습니다"


'2025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 송년회'에 참석한 30여 단체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 송년회'
최우수종무상 중앙신도회 수상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12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2025 조계종 포교·신도단체 송년회'를 개최했다.

단체 30여 곳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포교전법 활동을 펼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최우수종무상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수상했다.

또 교법사단과 장애인전법단, 교정교화전법단이 우수종무상을 수상했다. 한창희 포교사단 사무과장, 김정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 정지수 체육인전법단 사무과장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가피로 지킨 도량, 원력으로 다시 세운다

경북 산불 9개월, 현장을 가다

화재로 만세루 등 전소된 보광사
기적처럼 화마 피한 보물 극락전
무구 스님 "무심으로 복원 불사"

청송 · 글=여수령 기자, 사진=정현선 작가



청송 보광사는 지난해 3월 산불로 만세루 등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보물 극락전을 의지처 삼아 올해 복원 불사를 시작한다. 극락전 기단에 불길로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다.

그날 아침, 사찰 마당으로 날아 온 불탄 나무껍질이 전조였을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에 귀 기울이긴 했지만, 먼 곳의 일이라 여겼다. 청송 보광사 주지 무구 스님이 예정됐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동으로 번진 산불은 10km를 날아 40분 만에 청송 지역을 덮쳤다. 이미 청송의 소방차들은 의성으로 달려간 뒤. 부랴부랴 극락전(보물)에 모셔진 부처님과 탱화를 이운했다.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불사 회향을 앞둔 3월 26일이다.

"보광사가 전부 다 불탔다"는 전언에 부랴부랴 사찰로 돌아와 처음 마주한 건 전소돼 무너진 만세루(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와 요사채인 보본당. 그런데, 기적적으로 극락전이 연기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극락전에서 불과 세 걸음 떨어진 만세루가 전소되면서 불티가 법당 안쪽까지 날았는데도 무사했으니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잔불이 살아나지 않을까 걱정돼 밤새 사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음날 새벽엔 신도들 집을 찾았다. 집과 사과 저장 창고가 불타 임시 거처로 옮긴 신도들에게 사찰 김치와 쌀, 반찬을 나눴다. 밥차를 운영하는 다나 대표 탄경 스님과 지역 무료 급식 봉사에 나섰고, 청송군에 피해 주민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보광사의 자랑이던 울창한 소나무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밑동이 불에 탄 소나무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사찰 경내로 쓰러졌다. 결국 몇 그루만 남기고 모두 베어냈다. 화재 발생 9개월이 지난 12월 중순까지도 청송에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송 보광사 주지 무구 스님.

"소나무를 지키려 간벌도 하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베어내려 했던 활엽수들이 산을 지켜준 것을 보니, 무엇이든 집착 없이 대하고 무심(無心)으로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역 이웃들의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구 스님은 사찰 재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구본사나 전통사찰이 아니라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는 조금 비켜 있었지만, 그간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유나선원 등에서 복구 기금을 비롯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내준 덕분이다. 보본당은 올해 초 착공 예정이고 만세루는 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선 세종의 명으로 지어진 만세루는 건축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구 스님은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준비 중이었다.

"전각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만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어릴 때 소풍을 왔고, 날씨 좋을 때면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던 곳인데 추억의 장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예기치 못한 큰 재해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온 스님이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만세루가 불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무구 스님.

그럼에도 스님은 희망을 말한다. 잿더미 속에서도 도량을 묵묵히 지킨 극락전을 의지처 삼아, 재건 불사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어도 희망만큼은 끝내 타지 않을 것이므로.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 "지도자 양성 필요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서
청사 복구기금 1000만원 전달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명장 스님들은 사찰음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도자 양성과 선명상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된 선재 스님, 계호 스님, 적문 스님, 대안 스님, 정관 스님, 우관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기금 전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사를 잘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이 결성한 '사찰음식모임'의 회장을 맡은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세계화를 이끌어 갈 후학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 2010년 뉴욕에서 알리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후배 스님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의 방식이나 조리 테크닉 등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명장 모임을 중심으로 문하생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상도 제안했다. 정관 스님은 "조계종에서 제시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에 다양한 음식 명상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며 "선명상을 접목한 음식 명상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차원의 사찰음식 명상 시스템을 구축해 후배 스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이 만들어진다면 사찰음식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정인 수습기자



주요 종단, 동지 맞아 팥죽으로 '자비나눔'

조계종, 종로경찰서 팥죽 전달
관음종, 전국 각지서 나눔행사
태고종, 시민에 가두 팥죽 나눔

불교 주요종단들이 동지를 맞아 팥죽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 4층 중회의실에서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에게 700인분의 팥죽과 동치미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전달된 팥죽은 이른 아침부터 조계사 사부대중이 직접 끓인 것으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포장 작업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팥죽은 종로경찰서 본서와 관내 지구대, 파출소에 고루 분배됐다.

진우 스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종단적으로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특히 종단 청사 화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종로경찰서가 중심이 돼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2일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에게 700인분의 팥죽과 동치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종로구청에도 팥죽과 동치미 420인분을 전달했다. 팥죽은 종로구청 직원은 물론 구청 복지국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지원됐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서울 종로 및 강원도 정선, 경남 마산, 진주 등 전국에서 동지 나눔 팥죽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세시풍속에 담긴 정(情)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신유산이다. 시민들도 팥죽으로 액운을 떨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21일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앞에서 진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재경부장 효능 스님, 사회부장 법연 스님, 사서실장 도휘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스님들은 친환경 그릇에 팥죽을 담아 오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눴다. 상진 스님은 "묵은 해의 좋지 않았던 일과 감정 등은 모두 다 털어버리고 행복과 희망의 새해를 맞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대학생 불자에 장학금 전달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담소서
대학생 불자 24명에 46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 해 동안 청년·대학생 포교에 진력해 온 대학생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2025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25명의 대학생 불자에게 총 장학금 46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과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중앙회장 등 대학생 불자 2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대불련 회원과 전국 사찰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대불련 회장에게는 특별장학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진우 스님은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불교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라며 "여러분이 친구와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유 회장은 "1년간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불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며 "불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전법 활동에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정인 수습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지 **성 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麻谷寺

주지 **취성 원경**

사회복지법인 마곡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공주시 시니어클럽
공립 사곡어린이집
어울림
영은원

사부대중 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전화 (041)841-6221 팩스 (041)841-6227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직지사문장	**황산 혜창**
직지사회주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회장	**웅산 법등**
직지사승가운영위원장	**종화 도진**
직지사천불선원장	**의성**
직지사천불선원장	**장명**

사부대중 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8174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주 지 **선 광**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팔공산 銀海寺 은해사

조 실 **중화 법타 대종사**
회 주 **송천 돈명 대종사**
관 장 **운곡 돈관 동국대학교 이사장**

주지 덕조 외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로300(치일리 479) ☎ (054)335-3318~9
Fax (054)335-0293 www.eunhae-sa.or

“마음 바로 선 그 순간이 새해”

데스크 초대석

호주 시드니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부처님 제자라면 새해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바로 서는 그 순간이 곧 새해지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만난 기후 스님의 첫마디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반세기가 넘는 수행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가 60년, 묵언 정진 6년, 호주 포교 30년. 평생 수행의 한길을 걸어온 스님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짧은 여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후 스님을 출국 이틀 전인 12월 17일 경기도 안양에서 만났다.



기후(基厚) 스님은…1943년 안동에서 태어나 65년 범어사로 입산, 69년 통도사에서 성공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1971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와 해인사에서 강사를 지냈다. 인천 용화사,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 정진하고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의 묵언 정진을 마쳤다. 1991년부터 호주에서 포교를 시작해 1993년 시드니 정법사를 창건했다. 2006년 위암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봉화 축서사 북암에서 정진했다. 2012년 다시 호주로 돌아가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꿈속의 인연들〉, 〈시드니의 도반들〉이 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서 시작된 출가

사춘기 소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살 때 앓은 천연두가 남긴 얼굴 흉터로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상처는 깊었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묻고 또 물었다. 질문은 삶의 의미로 옮아갔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부산 범어사 금강암으로 갔다. 그곳에서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치열하게 나 자신과 마주할 줄 알았던 암자에서의 생활은 그러나 속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길을 나서 통도사로 향했다. 보광전에서 다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생활은 고됐지만 선지식 경봉 스님을 친견하고 월하 스님(조계종 제9대 종정)에게 가르침을 받는 순간순간이 환희로웠다.

2년이 지나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는 마음에 광목 두루마기를 다려 입고 별당에 들어갔다. 마음을 다해 삼배를 올린 후 상좌로 받아주시길 청했다. “근래엔 상좌를 안 뒀는데.” 그 한 말씀에 1년을 꼬박 기다렸지만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다. 기후 스님은 “그때는 제 분수를 모르고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고 싶다고 했다”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수행자의 근기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교리로 풀리지 않던 의문, 참선으로

1969년 성공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후에도 갈증은 계속됐다. 경전에 답이 있을까 하고 홍법 스님에게 〈초심〉부터 〈서장〉, 〈절요〉, 〈화엄경〉까지 배웠다. 통도사와 해인사에서 중강을 맡아 교리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땐 공부가 부실했던 탓인지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전환점은 참선이었다. 홍법 스님에게 “경전에서 막히는 대목은 참선을 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스님은 새벽녘 절을 나서 전강 스님이 주석하던 인천 용화사로 향했다.

“선방은 내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마음만 챙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길이구나.”

봉암사와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에 들었다. 하지만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생활은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했다. 결국 1984년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묵언 정진을 시작했다. 말하지 않고, 절을 나서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에 몰두했다.

초반 몇 해 동안은 답답함과 회의가 끊임없이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이 ‘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다. 외모와 체력, 존재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자 망상도 자연스레 가라앉았다. 6년간의 묵언 정진으로 자신과 삶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는 원력이 생겼다. 이 경험은 이후 해외 포교의 밑거름이 된다.

시드니에 심은 포교의 씨앗

호주행은 계획이 아니라 인연이었다. 1991년, 기후 스님은 처음 호주 땅을 밟았다. 도반의 권유로 떠난 여정이었는데, 돌아오려는 스님을 붙잡은 것은 교민 불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였다.



올해로 창건 33주년을 맞은 호주 시드니 정법사.
사진 제공=맑은소리 맑은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질문이 이끈 출가

교리 공부로 풀리지 않던 의문, 참선으로

6년 묵언수행…괴로움은 ‘나’라는 인식서

교민 불자 호소로 호주에 포교 씨앗 뿌려

원력으로 일군 정법사 창건 30주년 맞아

한국불교·문화 알리는 민간 외교관 자임

암이 가르쳐 준 ‘삶의 균형’…고통도 도반

“수행자는 시대 거슬러 방향 제시해야”

하루 30분 ‘마음 어디로 향하나’ 살펴야

“스님까지 떠나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그 한 마디가 발원이 됐다. 1993년 비자를 받아 다시 호주로 건너간 스님은 달마사와 홍법사를 통합해 ‘정법사’라 이름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담았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주거지역이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지 못해 촛불만 켜도, 목탁만 쳐도 민원이 제기됐다. 세 번이나 쫓겨나길 거듭한 끝에 건물을 마련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태백산 토굴을 정리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정우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성화 스님(구미 남화사 주지)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정법사를 마련한 후 8년 만에 종교활동 허가를 받았다. 그날 처음으로 대종을 울릴 수 있었다.

지난 2023년 창건 30주년을 맞은 정법사는 현재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 교민을 위한 문화원 등을 갖춘 여법한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자임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위문 공연을 세 차례 개최했다.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던 순간, 참전용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스님은 그날을 “법문보다 더 깊은 설법이 있던 자리”로 기억한다.

지난해에는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열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직접 김치를 담그고 이웃과 나누는 ‘K-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한 스님의 경험도 녹아 있다.

암이라는 도반, 그리고 다시 길 위로

2006년 위암 진단은 스님의 삶을 뒤흔들었다. 한국에 돌아와 수술한 후 항암치료 대신 자연치유를 택했다.

“병은 부조화에서 옵니다. 조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북 봉화 토굴에서의 긴 시간은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병은 스님에게 고통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묻는 계기였다. 사람과 자연, 병과 고통까지도 도반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이후 저술과 법문으로 이어졌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은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낍니다. 이주 초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었던 어르신들은 더 힘들었겠지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에 매주 경전을 함께 읽고 법회도 열었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을 주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 거스르는 용기

기후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향해서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물질과 속도의 시대 속에서 불교마저 흐름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수행과 교화의 본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행자만큼은 시대를 거스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역할은 시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니까요. 부처님이야말로 시대의 혁명가 아닙니까.”

다시 호주로 향하는 스님에게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물었다.

“분별의 의식[識]을 지혜[智]로 전환하는 전식위지(轉識爲智)의 실천, 그것이 수행입니다. 하루 30분 만이라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참선이든 염불이든 좋습니다. 진심과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새해는 시작됩니다.”

기후 스님의 가르침처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한 해는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기후 스님은 “하루 30분 만이라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방 장 여산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정오
신도회장 도림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표전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조 실 삼이 우경
회 주 탄해 혜민
주 지 무소 허운

교구·본사 신도회 김문자 회장 외 회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 (064)724-6830 Fax(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2026 새 필진들

현대불교신문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새로운 필진과 연재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본지는 올 한 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새 필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논설위원


덕안 스님


준한 스님


성제 정사


효록 스님

설해 스님

금해 스님

박병기

방영준


이미령


이명호


이화행


최원형

연재필진


혜룡 스님


법인 스님


보일 스님


법장 스님


금강 스님


혜호 스님

김용덕

김지오

노재학

손영자

오시환

이일야


이현아


임종섭


최원섭


함상원





본지 논설위원인 덕안 스님(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과 준한 스님(서울 홍대선원 주지), 성제 정사(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효록 스님(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설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금해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은 간판 칼럼인 '현불논단'을 통해 폭넓은 관점과 깊이 있는 사유로 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언합니다.

'세간과 출세간'에서는 방영준 전 성신여대 교수와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미령 칼럼니스트,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 연구소장,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전합니다.

수행·계율

혜룡 스님(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은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을 통해 체계적·실천적·현대적 수행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괴로움과 감정 문제, 습관적 번뇌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혜룡 스님은 해인사 지족암으로 출가해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종교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쌍계사·화엄사·범어사 승가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과 금강 스님(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 직무대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율은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 봅니다. 법장 스님은 우리 사회 현안을 계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금강 스님은 계율을 현대적 언어로 쉽게 풀어 전합니다. 두 스님의 글을 통해 계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지하며,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매 순간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교·신행

포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스님들은 '캠퍼스 전법 인기'에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를 맡아 캠퍼스 전법을 하며 겪은 성공 사례와 각종 에피소드 등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학 전법의 모범사례로 전합니다.

혜호 스님(서울 불광산사 주지)은 세계를 무대로 전법 포교를 펼치며 체득한 수행자의 사유와 대만불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을 독자들과 나눕니다. 혜호 스님의 현장감 있는 통찰과 수행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시야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의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는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선명상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현아 소장은 가야금 연주자로,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에서 강의하며 자작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상담

불교 복지 현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 복지사들은 '지금 우리 복지관은'에서 자신들이 만든 '톡톡 튀는' 프로그램을 솔직하고 유쾌한 언어로 소개합니다. 기획 과정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예상치 못한 웃음과 감동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기록할 예정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는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를 띄웁니다. 수레꾼이 2008년부터 뽀디봉 마을에서 펼친 교육시설 설립 및 재난 봉사 등과 최근 국내 분쟁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들려줍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은 어르신 내담자와의 상담 내용과 개입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풀어 냅니다. 내담자들의 고민과 이들의 진정한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가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

손영자 사진작가는 매주 사찰 꽃문 사진과 글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손 작가는 "사찰 꽃문 사진을 찍는 일은 영혼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도 그리기"라고 말합니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상명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여러 대학에 출강했습니다.

노재학 사진작가는 '사찰 명작순례'를 떠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보살의 세계를 담고 있는 사찰 벽화는 조형 언어로 펼친 또 하나의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 산사의 대표적인 벽화 명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용덕 작가는 사찰 곳곳에 숨어 있는 색다른 존재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찰 속 숨은 친구 찾기'를 통해 불교미술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용덕 작가는 울산대곡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연구원, 통도사·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으로 일했고 현재 청강문화산업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학·대중문화

2025년 '시, 불교를 만나다'를 연재한 이일야 전북불교대학장은 3월부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동화'라는 새 연재를 선보입니다. 〈자타카〉 등에 수록된 우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문학적 가치를 철학자의 눈으로 풀어 낼 예정입니다.

드라마를 불교라는 프리즘으로 읽어내는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올해도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연재를 이어갑니다. '불교적 미디어 비평'으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는 3월부터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을 통해 우리말에 축적된 불교의 이미지와 편견, 그리고 그 언어가 만들어 온 인식의 구조를 추적합니다. 속담·사전·대중문화·미디어에 남은 말들을 통해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말해왔고 그 말이 불교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AI·사회

AI는 현대사회의 '생필품'이 됐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불안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불교 AI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은 '붓다, AI 윤리를 답하다'에서 불교의 눈으로 꼭 짚어야 할 AI 윤리를 모색합니다.

신중일 현대불교 기자는 '성보유랑(聖寶流浪)'에서 국내·외를 떠돌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을 조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됐거나 식민문화정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성보들입니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성보를 기록합니다.

2025년 큰 사랑을 받았던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와 임종섭 약사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도 계속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 도영 | 기 획 응묵 | 총 무 원묵
회 주 취산 도법 | 교 무 제환 | 포 교 효진
주 지 지문 화평 | 사 회 도헌 | 호 법 우림
부주지 덕림 | 재 무 여찬 | 문 화 법자

17교구 **신도회장 한광수** 외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 장 편양 현묵
주 지 무지 무자

총림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100
www.songgwangsa.org 전화061)755-0107 Fax 061)755-0408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The Overseas Special Headquarter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세계는 한 꽃송이!
병오년! 세계평화와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발원합니다

미동부지회, 미중서부지회, 유럽연락사무소, 해외 한국사찰 외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T:02-739-6855 F:02-739-6856 E:kwansem@wehago.com
M:010-4400-6855 카카오톡 ID:overseas739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호국불교총본산 국방부 원광사

예비 군승 요원 모집 안내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 포교에 진력할 예비 군승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조계종 승적을 소지한 스님 (예비 승적 포함)
–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 당해 연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역량을 갖춘 군승 요원을 국방부에 파송하기 위해 예비 군승 요원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특별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특별교구 교육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02-797-7266 (군종특별교구 종무실/교육팀장)**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 산**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謹賀新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처럼 힘차게 정진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일동**

창간 66주년 66
2026년에도 불교신문과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

상 임 고 문	김동건
고 문	김의정 김희옥 이인정 이윤희 이태영
상임지도위원	김진태
지 도 위 원	고유환 김기유 김춘순 박영기 부석종 양희구 윤현우 윤성이 이광재 장인화 전충렬 정병국 조용철 조현재 최 윤 최현국
상 임 대 표	이기흥 제40,41대 대한체육회장, 전IOC위원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대통령실불자회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대통령실 불자회장
법 조 대 표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
경제2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 공 대 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
언 론 대 표	이용식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보건의료 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체 육 대 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남 북 대 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교 육 대 표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직능단체 대표	이연화 (주)천마관광 대표
총 재 특 보	신상국 (주)아가방컴퍼니 부회장
감 사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
국회정각회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정각회장
경제1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경제3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
사회안전안권 대표	김창룡 주 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문화예술 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금 융 대 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군 대 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환 경 대 표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
대외협력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총 재 특 보	윤재연 블루원 대표
총 재 특 보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사
감 사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겠습니다

고 문	김성림 성낙윤 왕선자 이경자 이연수 임완숙
지 도 위 원	박남수 석진숙 이간난 함정은
회 장	김의정
수석부회장	이연화
부 회 장	강선자 고은숙 김규리 김문자 김영복 김영옥 김지윤 박숙자 박효신 백영선 유경숙 윤현순 이금석 이영미 이영숙 이옥분 이은임 이화성 임소영 조성애 조수자 최선리
감 사	연경희 유은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 | 전화 02)723-3330
팩스 0505)300-7277 | www.womanbuddhist.com

2026 병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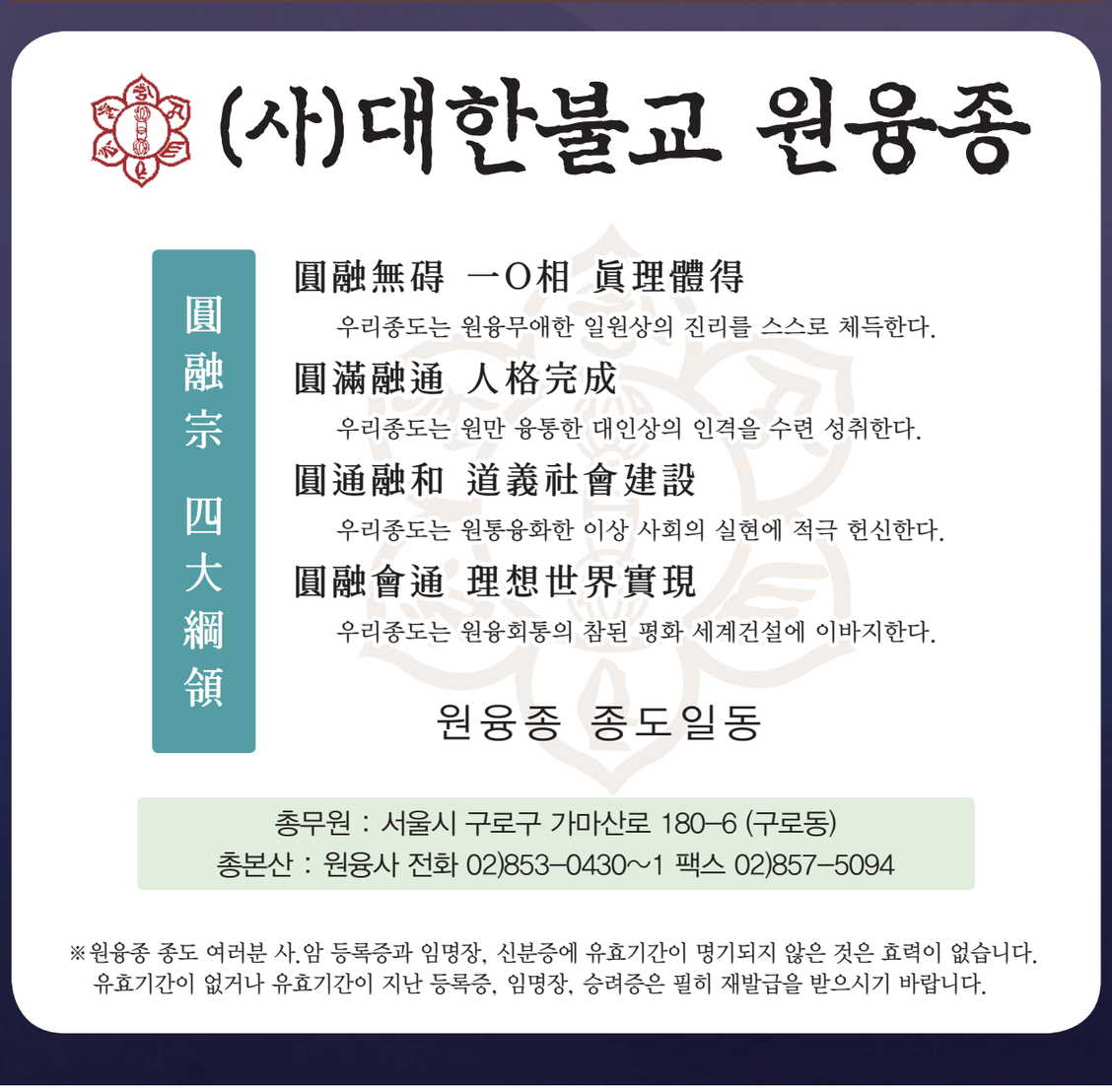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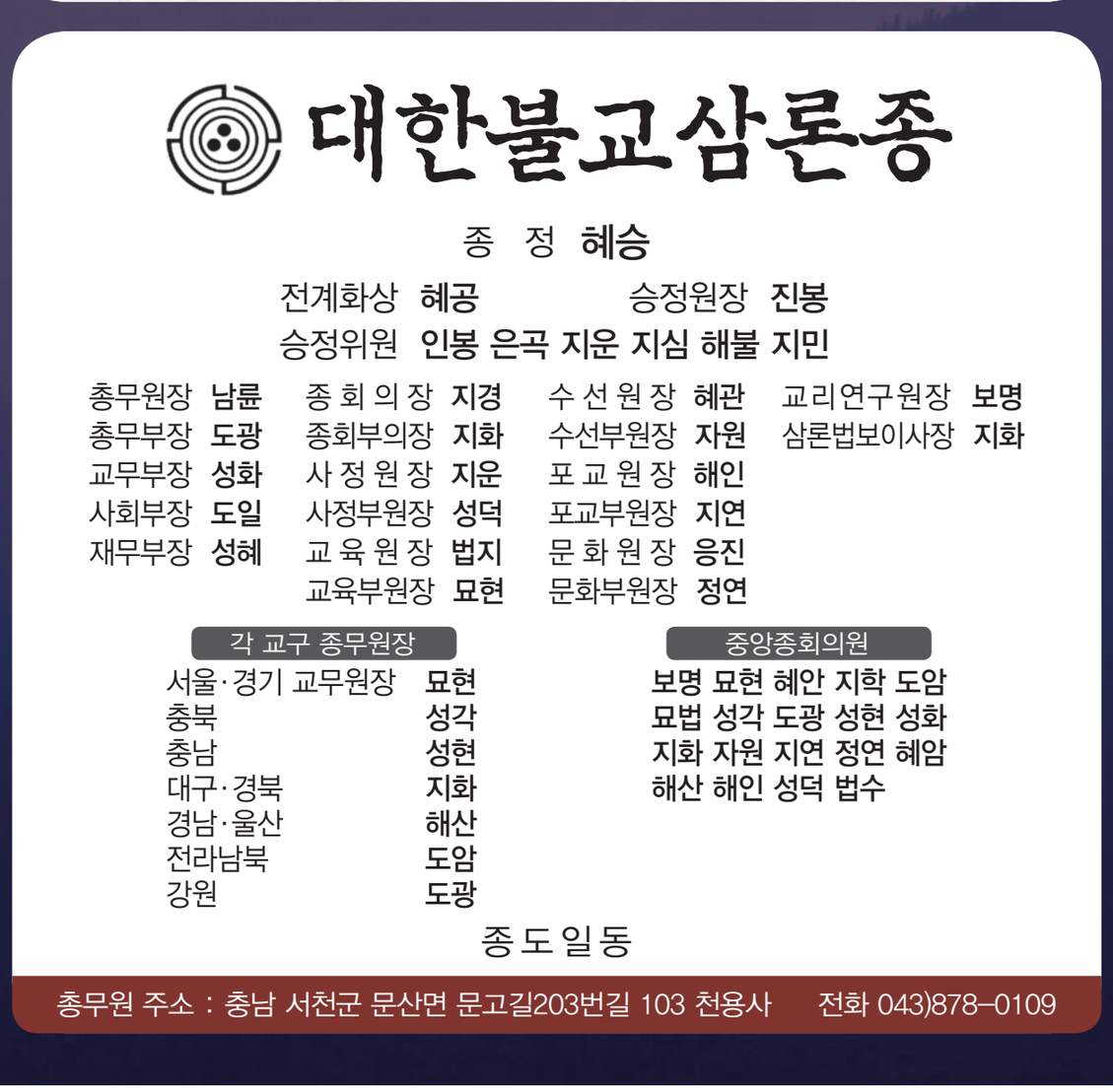












三冬 찬 바람 속 새봄을 준비하네!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잎 떨어진 가지마다 새봄을 준비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언 땅 위에 보리싹도 웅크린 모습으로 찬 바람을 대적하니 수행승의 결의를 보는 듯하도다.

때로는 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영축산의 초목은 힘차게 펼쳐질 봄소식을 준비하도다.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삼동 결재를 하고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구의 열기가 가득하니, 머지않아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장부가 무수히 배출되리라. 그 서늘한 기상은 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큰 가슴은 중생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며,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풀어 주도다.

보경호(寶鏡湖)에 드리운 영축산의 장엄한 모습처럼 수행을 통해 체득된 본래 청정하고 만덕을 구족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질병과 전쟁은 저절로 소멸하리라. 사바세계에서 쉼 없이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한마음 청정해지면 자타가 본래 한 몸이며 수행을 돕는 소중한 도반의 인연임을 알게 될 것이로다.

번뇌 그친 곳에 법계(法界)를 뛰어넘는 지혜가 현전하고, 원력 수승한 곳에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되도다.

久坐成勞永夜中 (구좌성로영야중)
煮茶偏感惠無窮 (자차편감혜무궁)
一盃卷却昏雲盡 (일배권각혼운진)
徹骨淸寒萬慮空 (철골청한만려공)

오랜 좌선 긴 밤 피곤하더니
차 달이며 한없는 은혜 느끼네.
한 잔 차로 혼미한 마음 물리치니
뼛속 스미는 맑은 향기 온갖 걱정 사라지네.

욕심없는 마음 正心으로 살라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圓覺이 普照하니 寂滅이 無爲라.
둥근 깨달음의 지혜가 두루 비추니
모든 차별의 경계가 사라지며
무명과 보리의 경계를 떠나
평등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일체가 시끄럽고,
한마음 깨치면 일체가 고요하다.
무명의 꿈에서 벗어나 의지할 바 없는 금강반야를 증득하여 일심 삼보에 의지하라.

한마음이 깨달아 있으면 佛이요
올바르면 法이며, 맑고 청정하면 僧이니
삼보가 본래 한바탕이요
법계가 그대로 삼보의 다함없는 모습이라.
〈중략〉

언제나 일체중생의 행복과 함께
국운융창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욕심 없는 마음
正心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아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혁신으로 새해를 밝힙니다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새해 새날 대일여래의 광명이
우리 마음 속 서원의 법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우주의 운행이 쉼 없이 이어지듯
우리의 정진도 다함 없기를 서원합니다.

화합이란 온 우주와 나의 합일이자,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세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허물로 삼지 않고
각자의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혁신은 화합을 근본 바탕으로 하며,
참회를 통해서 바르게 완성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보는
지혜와 자비심이 곧 시작입니다.

우리 진각행자는 지심 참회불공으로
나와 가정의 인연을 바루고 종단과 국가,
온 법계의 인연을 감동, 교화시켜야 합니다.
〈하략〉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世道火宅人生短
佛子覺醒正念樂
聞思修行三慧路
共生共行到安樂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국제 정세의 불안과 갈등이 이어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나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쉼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분열과 불신으로 서로를 살피는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불자들아 깨어나라.
덧없고 무상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생활하자. 문(聞). 둘째, 부처님을 생각하며 올바른 견해를 갖고 살자. 사(思). 셋째, 주어진 인연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 수(修).

모두가 삼혜(三慧)의 삶을 확신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자.

안락한 세상되게 함께 살아가는 힘찬 병오년을 축원합니다.

일념청정이면 세상은 봄과 같다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



세개월신(歲改月新) 만상갱신(萬象更新)
일념청정(一念淸淨) 세계개춘(世界皆春)

해가 바뀌고 달이 새로워지니 삼라만상이 다시 태어납니다.

한 생각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봄과 같습니다.

이 게송이 주는 가르침에 따라 병오년 새해는 밖의 변화보다 먼저 안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회대중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서 쉼 없이 달리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말은 앞으로 나아가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길을 잃고, 힘이 넘치되 고삐를 놓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오늘의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갈등과 분열, 탐욕과 분노가 서로 맞물려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는 멈추어 서서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마음이 혼란에 물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어긋남이 없도록 세행(細行)이 반듯해야 할 것입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율을 생활로 삼고, 자비를 언어로 삼으며, 지혜를 행동으로 삼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략〉

AI시대, 부처님 가르침 필요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현재 세상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양자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AI로봇의 작업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간의 삶의 환경변화, 인간과 AI로봇의 공존, 인간과 복제인간의 공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교화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윤리적, 사회적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무엇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중생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하는 윤리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략〉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장 은산 종국
회주 송천 종열
주지 경천 우석
신도회&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지혜와 자비로 서로를 비추는 병오년 새해를 발원합니다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국민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는
불의 기운을 지닌 해이지만,
그 불은 서로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의 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며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을
더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선명상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아주 쉬운 마음 연습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평안과 회복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교박람회와 연등회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세대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하는 자리를 넓혀 가겠습니다.
연등의 따뜻한 빛처럼
서로를 비추며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병오년 새해,
분노의 불은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혀
서로의 마음을 덥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우리 사회의 내일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정한 본래 마음 되찾자"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병오년 새해에는 모든 불제자가 자신의 청정한 본래 마음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점 흔들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번뇌와 고통이 깊어 애착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합을 깨트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는 오탁 악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타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동체대비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진흙탕에 피어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모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눈 밝은 선지식이
되길 서원합시다.

"밀엄정토 구현되길"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병오년(丙午年) 새해입니다.
다시 새해, 새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진을 바르게 합시다. 〈중략〉

종단은 진각기원 8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인재양성과 건전한 재정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시스템은 물론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미래 발전 전략을 짜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다양한 불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8대 총금강회와 함께 소통(疏通)하고 화합(和合)하면서 종단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첨단 인공지능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불확실성의 생태계에서는 지금, 서 있는 자리,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원(誓願)과 찬탄(讚歎), 그리고 하심(下心)하면 개인은 물론 인류가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만다라 세상이 열립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가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병오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이 세상 밀엄정토가 구현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어디서나 내가 주인되는 마음 가져야"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병오년 새해, 희망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커지는 만큼 조기 퇴직과 일자리 감소 같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지혜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지혜는 나를 잘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5분 명상으로 잠시 나를 들여다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건강한 체력입니다. 달리기든 줄넘기든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일도, 마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자연히 찾아옵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가짐은 변화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략〉

"태고종도 하나된 원력으로 어려움 극복하고 도약"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태고종도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법과 대중교화, 그리고 종단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진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불교태고종은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하며 한국불교의 전통법맥과 계율정신을 온 세상에 드높이 알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계율의 서원과 보살행의 다짐은 한국불교의 뿌리를 재확인하고 태고종이 전통법맥을 온전히 이어 온 적통종단임을 분명히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해동율맥을 바탕으로 수행과 계율을 중시해 온 우리 종단의 정체성이 대중 앞에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종도 모두의 헌신과 원력 덕분으로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태고종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광화문에서 확인한 태고종도의 하나된 원력과 저력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정진하며, 대중과 사회를 향한 자비행을 실천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원 또한 종도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종단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태고종의 법맥이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 종단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며, 국제불교교류의 지평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수행과 삶 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일상서 진일보 이루길"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광명과 대자대비의 가지력이 모든 분들의 삶과 수행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삼가 축원드립니다. 〈중략〉

올해는 말띠 해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은 힘찬 정진력과 지혜를 상징하며, 중생을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보살행의 숭고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말은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수행자가 퇴전하지 않고 한길을 걷는 상징의 대표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지혜의 고삐를 바로 잡고 정진의 채찍을 멈추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의 길과 일상의 삶 모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가장 큰 복덕임을 깊이 새깁시다. 건강한 몸은 일체 수행을 위한 굳건한 바탕이며, 평안한 마음은 고요 속에서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일체의 병고와 재난이 소멸하기를 바라오며, 평온과 행복이 마치 해와 달처럼 끊임없이 비추어 머물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병오년의 새 아침,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 광명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수행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합시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조 실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해도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탄학	호법국장	현묵
사서국장	무일	전법국장	혜교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처님법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식당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병오년 새해 초심으로 미래를 열고, 국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로 평화롭고 지혜로운 행복한 한 해 되소서.



(사)대한불교총화종

종 정 혜각
종회의장 법만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일동

총본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실상사
전화 (043)745-4508, **팩스** (043)745-4506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교육원장 일 초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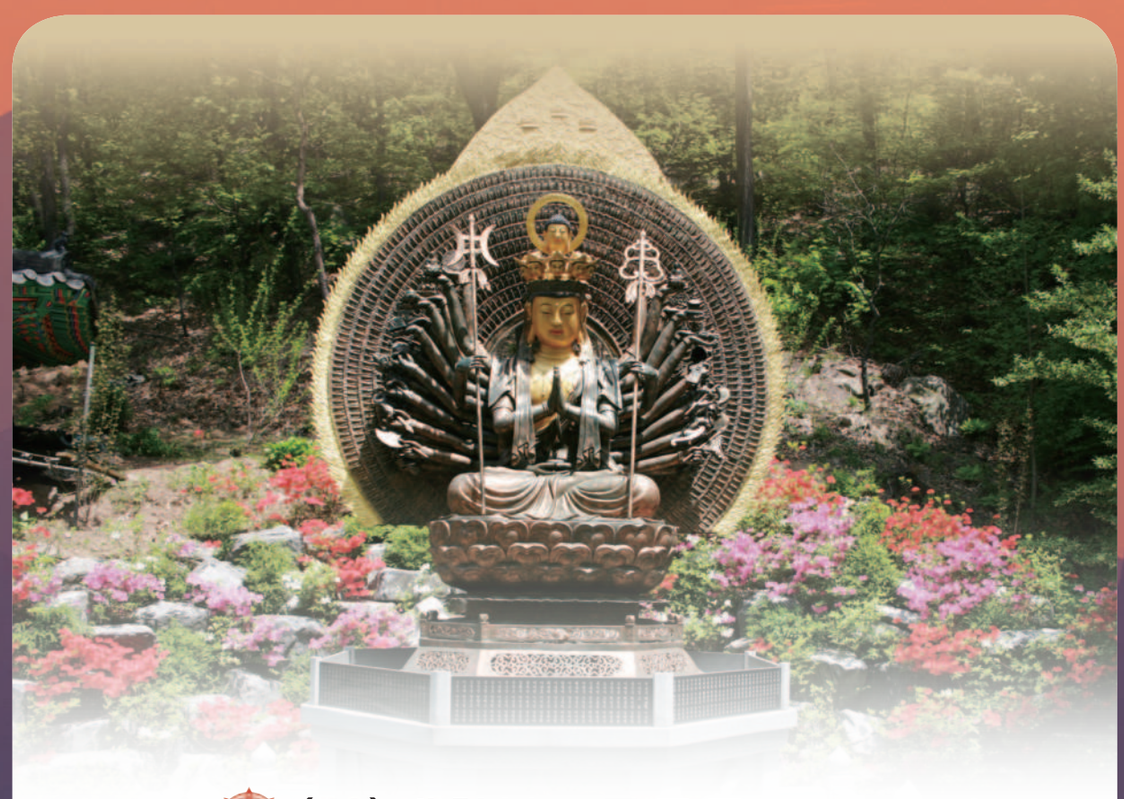
(財)韓國佛敎 如來宗

총무원장 명안(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부원장 혜안(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부원장 무극(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부원장 혜광(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부원장 도혜(횡성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영월 천운사 주지)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8-1　**전화** 043)731-2261



(사)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총무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도선사)　**전화** 02)2091-0408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교육원장 도언
부 원 장 도언　　포교원장 도림
원로의장 본자　　감사원장 해인
종회의장 갑태　　총무부장 보현
　　호법부장 마천
남부지역원장 호문　　종무실장 보선
중부지역원장 현초
경기지역원장 광원

- 중앙신도회 -
중앙신도회장 조도훈
여성신도회장 김미선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7번길 6 (전포동 204-19)　**전화** 051)809-5789　**팩스** 807-5780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해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효

승정원장 월서　원로원장 원명
교육원장 해안　포교원장 덕산
사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혜일
고시원장 혜신　수선원장 해륜
복지원장 법영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사무총장 현우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법신(내원암)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본(대각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당진시 교구원장 법성(유향사)
경기북부 교구원장 현수(여래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 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희망 미래로 '성행'의 신심을

真如苑(신뇨엔)원주
이토신소 대승정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래에는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질병과 빈곤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은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뇨엔에서는 젊은 생명을 이타 제도(利他濟度)에 바친 영존(靈尊) 신도인(真導院)의 가르침인 '성행(成行)의 송(誦)'을 날마다 염송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음의 성구입니다.

"가르침은 굽어지지 않는다. 굽어지지 않기에 진실이라 하며,진실이기에 존귀하다."

거짓과 허위가 아닌, 올곧게 '진실'을 살아간다는 것,즉 세상과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이와 같은 '선한 원인'을 쌓는 것이, 누구에게나 행복이라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선념(善念)'을 결집하여선하고 참된 실천을 함께 이루어 나아갑시다.

바르게, 함께, 실천을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千江月影無從取
一念慈心開佛門
苦海衆生同載渡
法華一乘到彼岸

천 강의 달 그림자 잡을 길 없고
한 생각 자비심이 불문을 여나니
고해 중생 함께 태워 건네고
법화 일승으로 저 언덕 이르리

법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믿음을 일깨웁니다. 중생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어두워도, 그 바탕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남을 대할 때 먼저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묻기보다, '저 사람 안에도 부처가 계시다'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수행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가정에 번지고, 사회에 번지고, 나라에 번집니다. 법화의 연꽃 향기가 대중의 삶 속에서 환히 피어나길 발원합니다.

공(空)을 밝히는 새아침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삼론에서 말하는 공(空)이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 나와 남, 이익과 손해를 붙잡고 스스로를 옭아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보면, 그 모든 분별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쫓을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놓아줄수록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밖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욕심의 불은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힐 때 이 세상 또한 고요히 맑아질 것입니다.

공을 바로 알 때, 삶은 가벼워지고 중생과 함께 걷는 보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닮아가는 참중생됩시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베풂을 생활화하는 불제자는 공덕을 얻고, 자비심을 지니는 자는 적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는 자는 고뇌가 없다 하셨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부처님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며, 교만한 눈으로 보지 않고 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거만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맺어진 불제자의 인연, 과거에도 인연이었고 지금도 인연이라면 우리는 필연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새해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을 닮아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에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함께하는 길에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길상이로다, 길상이로다, 길상이로다.

지혜 등불 켜 나갑시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붉은 말이 허공을 차고 오르니 천지에 티끌 하나 일지 않는구나.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희망찬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역동적인 말의 기상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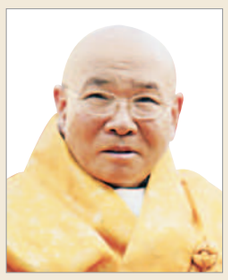
지금 세상은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밖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살피십시오.

너와 나는 본래 한 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탐욕의 불길 대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이 자비로 화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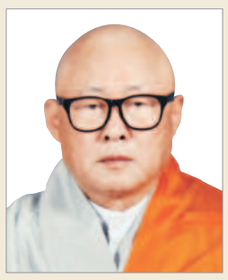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불기 2570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의 삶과 수행처마다 가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가오지만, 불법의 길은 언제나 한결같은 정진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수행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불법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 대각(大覺)은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깨달음입니다. 대각종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불안과 갈등, 고립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총무원은 새해에도 종도 여러분과 소통하며, 수행과 포교,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종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은 굳건히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는 열린 자세로 대각종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초심(初心)으로 미래(未來)를 열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一心不生하면
萬法無咎이며
無咎無法이면
不生不心이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오년 새해 초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서로가 반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자애하고 소통하며 화합과 배려의 존경심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대 변화에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긍정적 사고력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안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새해 밝히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의 첫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살필 기회를 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으나,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집착과 분별에 있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안을 비추어 살필수록 길은 또렷해집니다. 나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생각을 바로 세우면 내일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깨어남은 가정과 이웃,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희망이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바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새해에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분노보다 자비를 먼저 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등불을 밝혀 나아갑시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 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惺應,晩愚,松憲,淸虎,智峰,月照,智行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蓮虛,曉門,晩松,峻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敎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法演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社會福祉院長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복이 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임을 일러주십니다.

법화경은 그 마음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방편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갈라진 길을 경쟁시키는 데 있지 않고, 마침내 모두를 한 부처의 길(一佛乘)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시대일수록, 불자는 그 '한 길'의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법화경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과 사건의 '참모습'을 보라고.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 이기려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려 살리는 길을 찾는 눈입니다. 그 눈이 곧 지혜이고, 지혜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새해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고, 뜻하신 바 원만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붉은말 힘찬 기운, 대동세상 이룹시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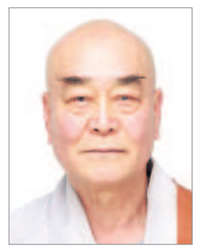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태양이 대지를 환히 비추듯,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국민의 삶 속에 더욱 밝게 빛나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만물을 일으켜 세우듯 지난 한 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라와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희망의 길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세계일화'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국민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대립과 갈등과 적대감을 없애고 지혜와 자비와 상생의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운 데까지 차별 없이 골고루 비추어 화합과 평화와 번영의 대동세상을 향해 붉은 말처럼 큰 걸음으로 용맹하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길 축원드립니다.

중도정견으로 새해를 밝힙시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삼천의 해와 달이 새롭게 밝아오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 비추는 새해입니다. 연기와 무자성의 진리를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금년 한 해가 지혜로운 인연과 원만한 공덕으로 가득하기를 삼가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삼론의 법맥을 함께 이어가는 종도 여러분, 지난해 대한불교삼론종은 숱한 난관 속에서도 공(空)·가(假)·중(中)의 삼제(三諦)가 가르치는 '머무르지 않되 끊어지지 않는 길'을 따라 종단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정비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삼론의 가르침은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자성의 통찰에서 출발하며, 이 통찰은 곧 중도의 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자비로운 진리임을 일깨워 줍니다. 중도의 길은 화합의 문을 엽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이 중도에 머물고, 행이 자비로 나아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 분열 치유에 앞장서자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해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불법의 길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공동체 또한 하루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길은 열리고 화합은 이루어집니다.

원융은 차별을 넘어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종단과 사회를 나누지 않으며, 수행과 실천을 둘로 보지 않는 것이 원융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불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원융의 정신이 현장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며, 수행 공동체로서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서로 품는 화엄행 실천합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화엄종도 여러분.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분열과 갈등, 전쟁과 불평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르침은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사상입니다. 나와 남, 개인과 사회는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입니다. 함께 돌보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해에는 경쟁과 배타를 내려놓고 서로를 품는 화엄행을 실천합시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법계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함께 화엄행을 실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는 새해를 고요히 맞이하자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새해의 문턱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땅의 모든 생명 위에 고르게 스며들기를 삼가 발원합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속도와 결과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멈추어 보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자신을 비출 때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동종은 새해에도 수행 전통을 굳건히 하고, 종도 교육과 수행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며,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고요한 힘이 살아 움직이도록 차분한 포교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종도 여러분의 좌복 위에 평안이 깃들고, 불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깨어 있는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되 흐트러지지 않고 정진하되 조급하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 아픔 치유를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새해의 첫걸음마다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시어 마음은 평안하고 행보는 바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래의 가르침은 분별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탐욕을 비우고 겸손을 세우며, 말과 행동을 삼가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이 곧 수행의 길임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이 세상을 맑히는 첫 인연이 됩니다. 작은 보시와 한 걸음의 실천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크고 거창한 공덕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자비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사회에 복덕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치유와 평화 힘 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병오년 새아침에 부처님의 진언 공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새해의 첫 숨결마다 진언의 울림이 퍼져,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수행이며, 마음과 몸을 동시에 밝히는 실천의 길입니다. 한 글자 한 음절의 염송 속에 번뇌는 가라앉고, 지혜와 자비는 더욱 또렷이 드러납니다. 꾸준한 진언 수행은 스스로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불교진언종은 새해에도 계율과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일상의 번뇌를 다스리고, 진언이 지닌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를 사회 곳곳에 전하겠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수행자의 정진이 더욱 절실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비로 여는 새 아침을 열며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새 아침을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나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깨닫고 함께 건너는 길입니다. 나의 평안은 이웃의 안녕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한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행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지혜는 앎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새해에는 분노를 내려놓고 이해를 키우며, 경쟁보다 연대를, 이익보다 공덕을 먼저 생각합시다. 작은 친절 하나, 한 번의 배려가 곧 보살행이며,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대한불교대승종은 대승보살도의 본뜻을 되새기며, 중생과 함께 울고 웃는 불교, 삶의 현장에서 숨 쉬는 불교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자비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정마다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별 망상심 여의세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송천 스님



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위의 뜻은 "모든 것이 환(幻, 꼭두각시)인 줄 깨닫기만 하면, 곧 (헛된 생각을) 여의면 더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幻)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더 닦아갈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우리들 곁을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몸 한 맘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이 하나 또한 없음을 안다면, 분별망상심(分別 妄想心)을 여의게 되어 마침내 성불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의 마음으로 정진 수행하여 밝은 나라, 불국정토를 이룹시다.

분별떠나 행복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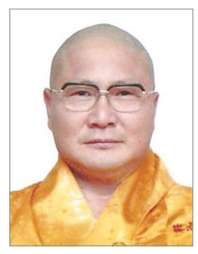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등과 불안이 깊어졌으나, 해답은 늘 마음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탐욕을 덜고 분별을 놓으면 삶은 곧바로 평온해집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비난보다 연민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계율을 지키고 정진을 이어 갈 때, 한 사람의 수행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새해에는 스스로를 살피며 모두가 함께 이익 되는 길로 나아갑시다. 작은 선행을 미루지 말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여 자비의 인연을 넓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마음의 새 아침 밝았네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불기 2570년 새해를 맞아 한마음조계종 사부대중 여러분께 법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은 밖에서 새로움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마음은 본래부터 온전하며, 분별과 집착이 그 빛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추어 보면, 이미 부처의 자리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수행이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한마음을 담아 실천합시다. 나의 평안이 이웃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정법 등불로 밝히는 세상 열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권한대행 혜운 스님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법(法)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의 길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곧 참된 수행이자 불국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지혜의 불을 밝혀 어둠을 걷어내고, 상생과 평화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자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諸志行千里 貪心滅諦快
滅度生死苦 當來甘露味
제중생들이여 뜻이 있어
천리를 가고자 하려거든 탐심을 버리라
일신이 가볍고 즐거우리니
자연히 생사고도 멸할것이요
머지않아 감로의 단맛을 보리라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정하리니 저마다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켜 조용히 처신해야 민심 또한 평온해질 것이니 기득세력일수록 망동하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마음 밝히는 새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번뇌는 그칠 줄 모르지만, 진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분별을 줄이고 자비를 넓히며,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는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시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며, 한 걸음 실천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한 생각 놓는 계기삼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새해가 왔다고 시간은 새로워지지 않지만, 한 생각을 놓으면 그 자리가 곧 새해입니다. 사부대중과 모든 인연 있는 중생에게 이 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발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어디로 더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하나가 곧 괴로움의 뿌리임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를 바로 보십시오. 고요를 찾으려 하지 말고,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살피십시오.

언행을 살피고 삼가라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부나비 촛불에 뛰어든다고 촛불을 끄랴. 낙화(落花))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가는 세월 오는 백발 막을수 없는 인과(因果)의 수레 바퀴 무상(無常)한 권력의 부침 (浮沈) 또한 다름이 없것마는 어리석은 중생들 모진 업보에 가려서 삼독(三毒)에 취해 헐떡인다. 오호라 을씨년의 난장을 딛고 적토마가 갈기를 세워 힘차게 달리는 도다. 훗날을 기약코저 한다면 지금바로 지금 그대의 언(言)과 행(行)을 살피고 삼가하라 다언삭궁(多言數窮)이요 항용유회 (亢龍有悔)로다.

그릇된 집착과 탐욕은 다내려놓고 자비를 베풀면서 복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비로 피어나는 세상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기운으로 만물이 생동하고, 국운이 융창하며 국민 모두가 평안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생활 불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산속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과 이웃의 따뜻한 미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비심이야말로 세상을 맑게 닦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마음의 밭을 청정히 갈아야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둠을 물리치고, 갈등을 넘어 상생의 꽃을 피워냅시다.

계율청정의 새해 만드세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불자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은 말로 빛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 삶의 기준이 곧 계율입니다. 계율은 얽어매는 규범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길이 흐트러지지 않듯, 계율이 바로 설 때 수행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욕심을 절제하고, 언행을 삼가며, 공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한 계목을 지키는 정성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율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과 포교가 함께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은 태워 마음을 밝힙시다

대승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은 태우는 힘이 아니라 밝히는 힘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불안하지만, 길은 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멈추고, 한 번 살피고, 한 번 내려놓는 것이 이미 불법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어도 자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더 많이 주장하기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이 사회의 온도를 바꿉니다. 새해, 모든 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서 지혜의 불을 밝히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병오년 새해에는 모든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는 안정과 번영을 펴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잘살았가는 길 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고 부인하는 어두운망 복념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자비 화합 평등 자주의 부처님 정신이 청정무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이며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찬란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심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화합하여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용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존중과 사랑 공동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지난 한 해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도 불법의 가르침을 삶 속에 펼치고자 한 여러분의 실천은 진정한 보살행의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리심의 발현이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새해는 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만, 동시에 참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짐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리심은 온 세상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고 연기하여 존재함을 깨닫는 데서 비롯합니다.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돕는 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불법을 통해 마음의 빛을 키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경 너머 자비의 꽃”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는 그동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척박한 땅에 학교를 세우고 물을 길어 올리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도 본래 존귀한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의 나눔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로터스월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세상을 향한 따뜻한 동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가난한 마을이 자립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보듬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비로운 원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촌이라는 한 일터에서 상생하는 도반이 되어, 전 세계에 희망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향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연등 되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도량을 깨우는 새벽 예불의 법향이 널리 퍼져 일체 만물을 깨우듯 우리들의 새해 서원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희망과 자비의 빛으로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으나 부처님의 자비가호 속에 서로 고통을 나누며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청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아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연대와 자비의 활동을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교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치유의 길을 꾸준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행 속에, 한마디 따뜻한 말 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든 한 호흡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연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찬 말처럼 정진 약속”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주인을 괴롭게 하지만,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마음도 그러하니, 바르게 길들여진 마음은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는 열정만 앞세우며 앞 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길들여진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해에는 내면을 먼저 살피고, 작은 깨우침에도 즉시 실천하는 ‘잘 길들여진 마음의 수행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중앙신도회도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강화를 위해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는 물론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하고 행복한 해였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한국 불교 100년의 미래를 위해 힘찬 말처럼 정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좋은 동국, 나은 미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올해 동국대학교는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육구국의 원력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은 지난 12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립대학의 소명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6,5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30여 개국 유학생이 참여한 불교 동아리 창립으로 전법의 씨앗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120년의 전통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동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비상하는 해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동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확고히 하고, AI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며 교육·연구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국대의 정진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평화 찾는 길동무”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올 한 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4800여 포교사의 가정과 일상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발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포교현장에서 마주한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거울이며 보살행의 실천이었습니다. 포교사단에서 운영하는 불교문화해설사는 전통사찰과 성보에 깃든 천년의 향기를 품격있게 전하는 활동입니다.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종단에서 추진하는 선명상 활성화를 위해 명상상담사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정신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자비롭게 어루만지겠습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통하여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치유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서원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조금 더 따뜻한 실천”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 둘 곳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은 많아지고 판단은 빨라졌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유는 부족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나와 이웃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각자의 일상 속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늘 삶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쉼과 성찰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금 더 살아 숨 쉬고, 불자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경청하며, 조금 더 따뜻해지는 작은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희망 주겠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불교리더스포럼은 그동안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제7기 출범과 함께 종단과 세대를 넘어 연대하는 열린 공동체로, 대화와 숙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의 모습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수행에 뿌리를 둔 리더십,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공공성, 생명과 평화를 우선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도록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 있는 수행자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사회 지도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하며,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모두는 그 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 단단해지는 해”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지난 한 해,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연대하며 여성불자로서의 수행과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재난으로 대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한번 깨닫고 생명존중의 삶을 다짐하며 시작했던 쓰담순례는 고운사, 신흥사, 해인사, 한양도성길까지 전국으로 이어져 내 삶을 바꾸는 실천하는 자비정신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웃종교 여성종교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2회차로 진행한 김장축제에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은 여성불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전국여성불자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불자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 다음 세대를 품어 안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말과 글로 정법 정진”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새해를 맞아 전국의 불자를 비롯해 한국불교기자협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붉은색을 상징하는 ‘병(丙)’과 ‘말(午)’을 뜻하는 병오년은 뜨거운 생명력과 정진의 에너지를 품은 해입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쉼 없는 전진은 수행과 포교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기운처럼 우리 모두가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그 빛을 원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참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새해에도 말과 글이라는 정법의 도구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전쟁 피해 주민 긴급구호 캠페인

태국-캄보디아 무력 충돌로 국경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 중입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엠립 지역의 사찰뿐입니다.
사찰은 쌀과 물을 나누며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늘어나는 피난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와 깨끗한 물이 절실한 지금,
쌀·생필품·식수 지원이 시급합니다.
작은 후원이 생명을 지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주세요.

후원계좌 : 기업은행 024-071023-01-031 (사)로터스월드
후원문의 : 02-725-4277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부종정 **법천 덕일**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진 각**

연수원장 **법진** 포교원장 **법현** 교육원장 **진산** 고시원장 **진공**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경기동부종무원장 **진응** 경기서부종무국장 **보성**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충청종무원장 **진산**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사회부장 **제봉** 재무부장 **공민** 연화부장 **정혜**
호법부장 **지안** 규정부장 **진성**

총본산 :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85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96번길 62-12 천지암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055)585-5300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혜안 효종**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목** 포교원장 **법연**
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덕**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보림**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보월** 감찰부장 **무공**
총무국장 **보미** 재무국장 **보리** 교무국장 **보심** 감찰국장 **보명**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지리산 칠보정사
전화 055)883-7771, 7790

우리 중생이 웃고 행복해야 부처님이 웃으시고 행복하십니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성주, 혜원, 해인 대종사**
종 정 **동화 대종사**(보광사 주지)
총무원장 **화림**(월정사 주지)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습득**

전 종도 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만수산 승가사 **총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5번길 5(서래암)
전화 051)552-8554, 556-0278~9 **팩스** 556-8551 seunggajong.co.kr

청년불교, 새중불교, 한글불교

새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공 종회의장 : 도원 총무원장 : 대호
사정원장 : 혜담 포교원장 : 정오 유천도원장 : 지완
교육원장 : 대륜 비구니회장 : 보원 불무도원장 : 보각
법사단장 : 대공 학술원장 : 운곡 사무총장 : 자륜

총무부장 : 송담 총무국장 : **도우** 교무부장 : 동진 교무국장 : 덕일
재무부장 : 도경 재무국장 : 도현 교육부장 : 인봉 교육국장 : 도운
기획부장 : 청봉 기획국장 : 법봉 사회부장 : 송인 사회국장 : 혜안
규정부장 : 해원 규정국장 : 중광 포교부장 : 보광 포교국장 : 용성
홍보부장 : 송하 홍보국장 : 대향 문화부장 : 지홍 문화국장 : 서진
의전부장 : 은산 의전국장 : 선재 봉사부장 : **성원** 봉사국장 : 명진

총무원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443번 가길 88-4(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범어사, 세계 향한 국제템플스테이관 첫 삽

12월 20일,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부지서

국제 명상 치유 도량 착공
사부대중 동참한 불사 개시
수행 교류 확장 비전 제시
올해 완공 위한 공사 돌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국제 사회의 수행과 명상 거점이 될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의 첫발을 뗐다.

범어사는 12월 20일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예정 부지(부산 금정구 청룡동 479번지)에서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수좌 수불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부주지 대방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재가 내빈과 범어사 신도단체 및 신도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착공의식 불공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치사, 격려사, 축사, 시삽식, 사홍서원,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은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명상, 수행, 교육, 교류를 아우르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국제템플스테이관은 외국인과 국내외 거주자 모두가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와 사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수행과 문화의 가치를 체득하고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건립 과정에 힘을 보탠 지자체와 관계 기관, 환경단체, 시공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좌 수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 명상의 날을 앞두고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이 이뤄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연을 만들어 온 범어사 사중의 노력이 오늘의 착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기념사에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이 오랜 준비 끝에 내딛는 첫걸음"이라며 "전통을 지켜온 범어사가 변화하는 시대



범어사는 12월 20일 열린 '범어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식'에서 시삽으로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속에서 수행 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오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관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수행과 명상,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오랜 시간 범어사 주변의 공간 확충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았다"며 "이번 국제템플스테이관 착공이 그간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승가와 재가 내빈이 함께하는 시삽을 통해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범어사는 국제템플스테이관 준공 이후 템플스테이를 수행과 치유,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템플스테이관은 금정구 청룡동 479번지 일원 4필지에 건축면적 400.49㎡(121평), 연면적 646.51㎡(196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건립되며, 공사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종범 스님 "작은 티끌 하나도 비로자나불"

12월 20일, 통도사 설법전
화엄산림 입재법회 봉행해

"미진(微塵) 하나, 찰나(刹那) 하나까지도 여래의 지혜로 보면 모두 비로자나불의 공덕 세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에 입재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매일 품차에 따라 〈화엄경〉을 강설하는 통도사의 대표 산림 법회로, 대중은 기간 중 원하는 날 동참해 경전의 흐름을 함께 체득할 수 있다. 이번 법회는 오는 1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화엄경〉 구성을 설명하며 "〈대방광불화엄경〉은 80권 39품으로, 보살이 입정하고 여래가 방광하는 구조 속에서 보살이 삼매에 들어 그 방광의 진실성을 깨달아 설하는 경전"이라고 말했다. 보살이 삼매에 드는 과정이 여덟 차례 있어 팔정(八定)이라 하고, 부처님이 방광하는 것은 열 차례로 십방광(十放光)이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대중이 이 화엄 법회에 동참해 화엄 예경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곧 비로자나불의 화엄 세계를 장엄하는 일"이라며 "한 마음이 티끌로 향하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중생이 되지만, 한 마음이 청정한 광명으로 돌아가면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된다"고 입재법문을 맺었다.

입재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은 "많은 대중이 마음을 모아 법문을 듣는 모습이 감동스럽다"며 "앞으로 더 추워지고 눈이 올 수도 있는 날씨 속에서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탈하게 법회가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가 12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에서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입재법문을 하고 있다.

'창립 12주년' 쿠무다, 자재병원서 자비 음악회

담요 100개 · 후원금 500만원도
"나눔 · 봉사로 기념식 대신해"

문화예술을 통한 전법 활동을 이어온 사단법인 쿠무다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의 곁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사진〉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12월 19일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마하보디센터 법당에서 '사단법인 쿠무다 12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4주년 기념 자비와 나눔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쿠무다와 명경문화재단은 자재병원



에 담요 100개와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 창립 12주년을 맞아 나눔과 봉사로 이곳을 찾게 됐다"며 "오늘의 음악과 작은 마음의 선물이 환우와 돌봄의 현장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여원 '동지맞이 팥죽 나눔' 26년째 이어져

구포시장서 도시락 1500개 나눔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이 동지를 맞아 26년째 이어온 팥죽 나눔으로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진여원은 12월 1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일대에서 팥죽 도시락과 과일을 나누며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무탈한 새해를 기원했다.〈사진〉

이날 준비된 팥죽 도시락은 1500개로, 구포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전달됐다. 진여원은 구포시장 나눔을 포함해 동짓날을 전후로 총 3000여 개의 팥죽을 지역



사회에 회향했다.

남순덕 원장은 "동지는 가장 긴 밤을 지나 다시 해가 길어지는 날로, 어둠을 걷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절기"라며 "팥죽 한 그릇에 액운을 막고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영산재, 공개시연으로 시민과 전통을 잇다

12월 18일, 부산 공간523홀서

부산 불교의 대표적 의식문화인 '부산영산재'가 시민과 직접 만나는 공개시연을 통해 그 전통과 의미를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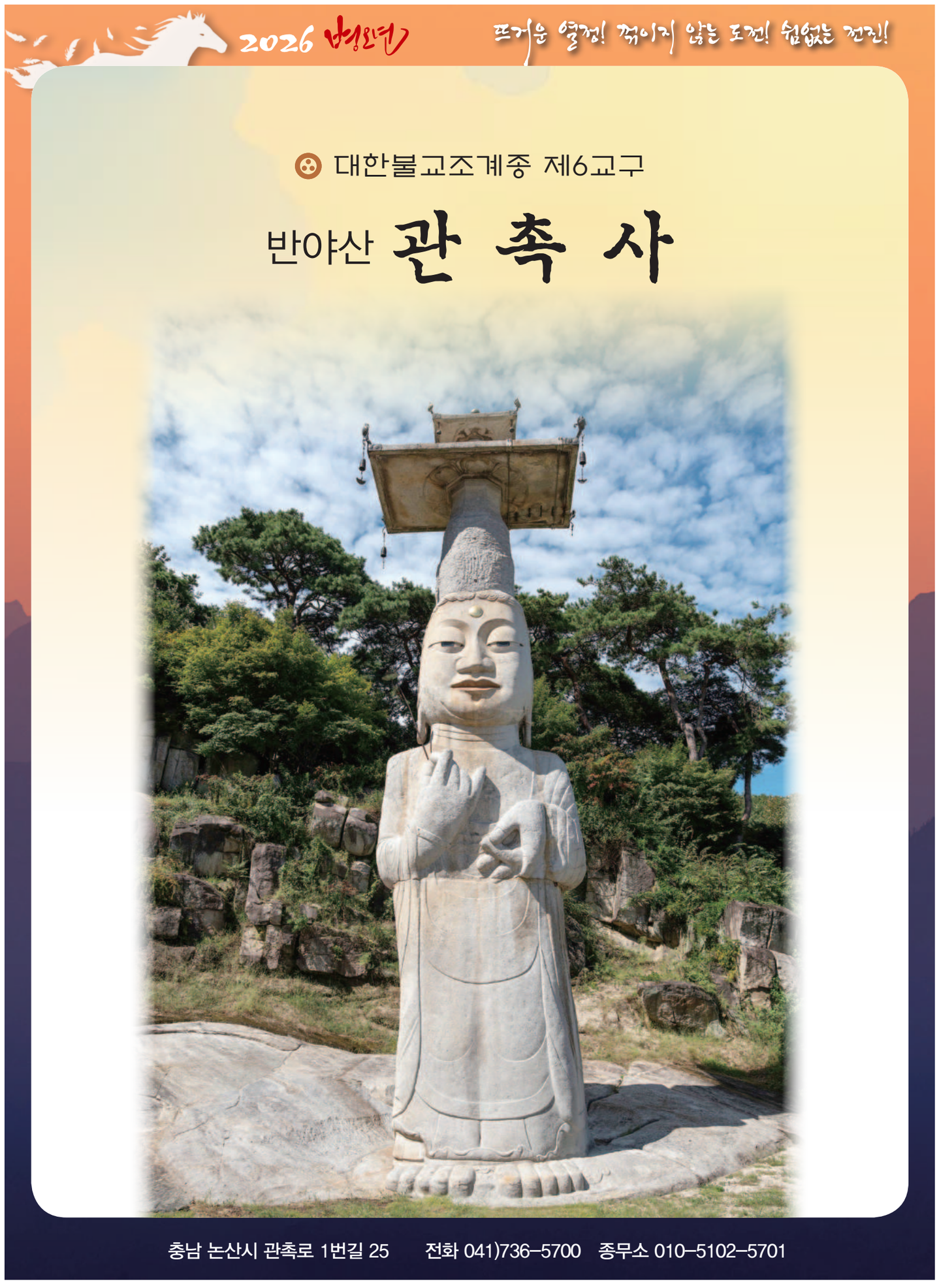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회장 성림 스님)는 12월 18일 부산 사상구 공간523홀에서 부산영산재 공개시연 행사를 열고, 범패와 작법무, 의식 절차로 구성된 영산재의 흐름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영산재 의식집 발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부산시가 후원했다.

이날 시연은 도량 청정 의식부터 영산회



상 작법, 천도 발원 의식까지 장면별로 재구성됐다.

성림 스님은 "부산영산재는 부산 불교의 역사와 함께해 온 공동체 의식문화"라며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화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불교입문(3개월) • 천수경(3개월) • 선 · 명상 입문(10회)
문의) 02-997-6467

불교대학, 대학원, 경전반 3월 14일(토) 입학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97-6469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 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413-6060 www.bulkwang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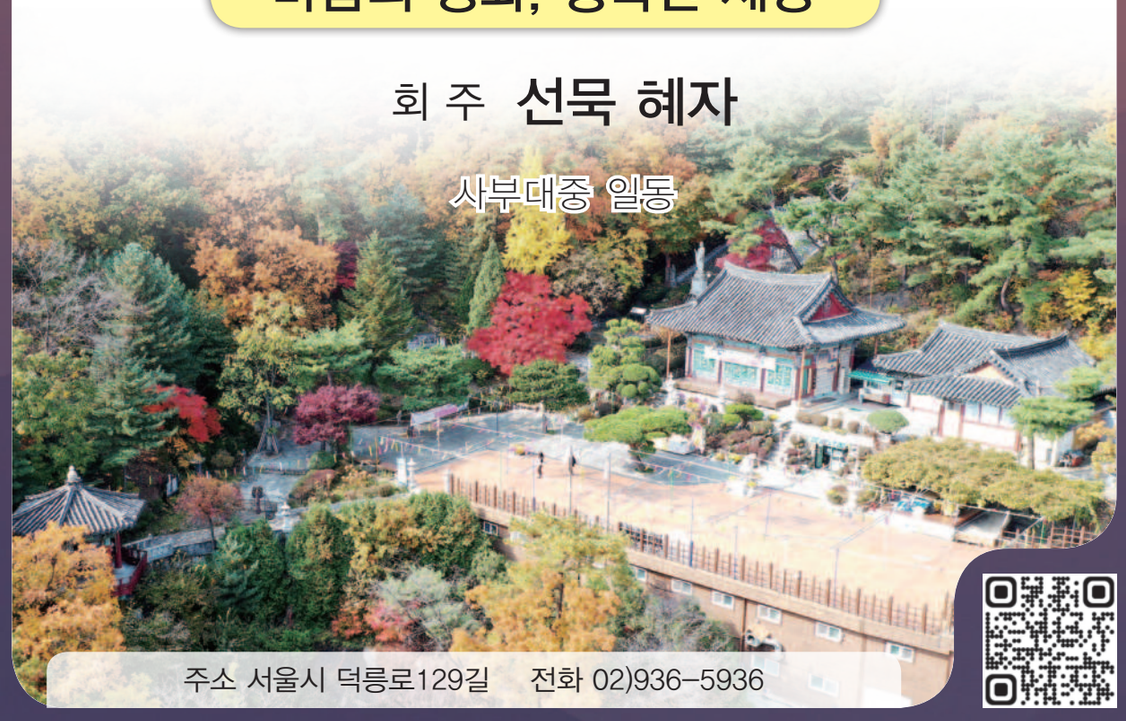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회 주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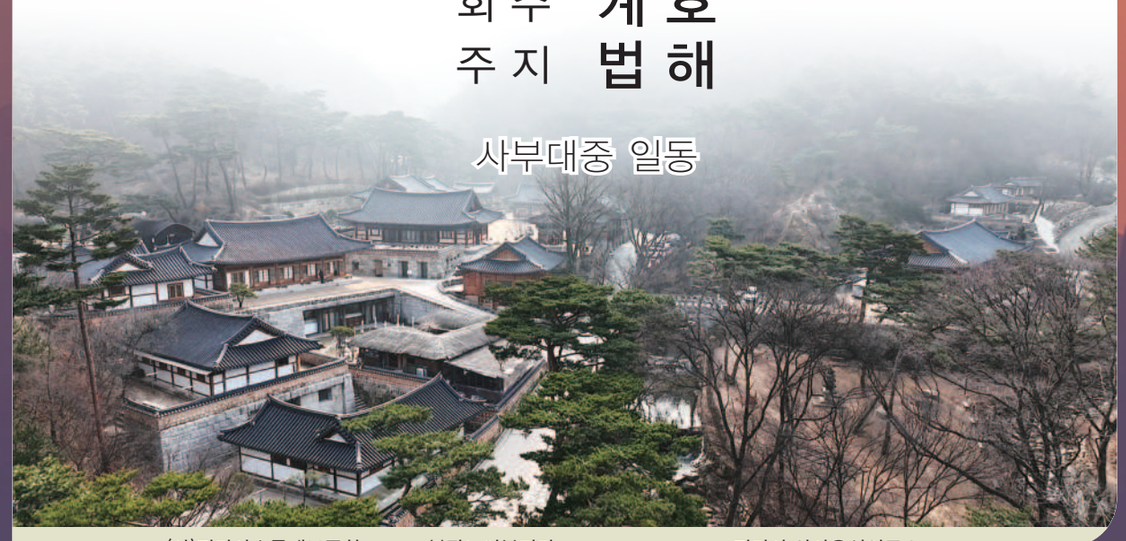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계 호**
주 지 **법 해**

사부대중 일동



부설기관
-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사)진관사 지화장엄보존회
- (사)백초월스님 선양회
- 사.복)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 코끼리유치원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불교대학·대학원
- 한문화체험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회 주 **진 화**
주 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50-26(흑석동)
02)813-7425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 일동



호국불교 상징 '김윤후 승장' 도로명판 제막

용인시, 12월 18일 제막식
봉명리–서리 13km 구간
처인성 역사 지속 발굴 계획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용인시는 12월 18일 처인성 역사교육관 앞 도로에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고려 시대 대몽항쟁 전승지인 처인성(處仁城)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스님을 기리는 명예 도로명판이 세워졌다.

용인시는 12월 18일 처인성 역사교육관 앞 도로에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섭 전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해당 도로 구간에 총 8개의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했으며, '김윤후 승장로'는 남사읍 봉명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 약 13km 구간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호국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는 명예도로 운영을 통해 처인성 일대를 중심으로 호국불교문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광 대종사는 "용인이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그 중심에 김윤후 스님이 있다"며 "명예도로 지정이 처인성의 역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역사적 현장을 보존·활용하는 일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 제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도로 지정을 발의했던 전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은 "용인 역사문화의 상징은 처인성이고 처인성의 시작은 김윤후 스님"이라며 "앞으로 처인성에 김윤후 스님을 기리는 기념전각 조성 등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신도회는 지난해 6월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김윤후 승장 선양사업을 위해 '김윤후 승장로' 도로명 부여를 시에 건의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용인시는 이전에도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딴 '청년김대건길' 등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지역 역사 인물을 기리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이며 현재 보존·정비를 통해 방문자에게 개방되고 있다"면서 "'김윤후 승장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호국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정인사, 제4기 불교대학 수료식

124명 수료 · 22명 개근



창원 정인사(주지 원행 스님)가 12월 23일 교육관 2층에서 제4기 불교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보시반 21명, 지계반 20명, 인욕반 21명, 정진반 21명, 선정반 20명, 지혜반 21명 등 6개 반에서 공부한 12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1년간 성실히 출석하며 정진한 수료생 22명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됐다.

불교대학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출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수료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를 줄이고 남을 배려하는 보살행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신흥사 대광전·벽화' 조명 학술대회

12월 19일 양산문화회관서



양산 신흥사(주지 호법 스님)는 12월 19일 양산 예술문화회관에서 '조선 후기 사찰 공간과 불교미술의 종합적 이해와 국가유산으로서의 보존·계승 방안 모색'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회는 대광전과 벽화의 역사·예술적 가치를 건축·불상·회화·의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본질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호법 스님은 개회사에서 "대광전과 벽화에는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회화적 성취, 수행과 교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형상 보존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이번 논의가 불교문화유산의 미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신흥사 회주 영규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양산불교연합회회장 동진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건립한다

12월 19일 교구종회서 결의
새해 예산안, 사업 계획 승인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불기 2569년도 제2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12월 19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교구종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2026년 교구예산 승인의 건, 전주포교당 건립의 건, 2026년 분담금 배정의 건, 기타 교구운영의 건을 일괄 상정해 토의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6년도 교구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건립불사에 교구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주에코시티 전법도량 불사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문복지회, '어울림 밤'으로 20주년 회향

12월 23일 500여 명 한자리
장기근속 · 우수종사자 표창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가 2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한 해를 회향하는 '2025 보문복지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밤'을 12월 23일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사진〉

향일암과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보문이 걸어온 길 20년, 미래복지를 선도하는 보문'을 주제로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산하 시설장과 담당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연규 스님은 '이십주년' 사행시로 대신한 인사말에서 "이웃의 웃음과 눈물이 곧 우리의 일이 되었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시간들이 오늘날 보문복지회를 만들었다"며 "지난 20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걸어가자"고 감사와 발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0년 장기근속자 구미정·김산·최점순·조기임·박현숙·안경숙·이수형·전경희·사사기·미유기 씨와 20년 장기근속자 김양자·함유진 씨에게 감사패와 황금열쇠가 전달됐다. 우수종사자 오은채·이미건·손우정 씨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보문복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피앤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천NCC, 적십자 디딤돌, 여량산악회에는 감사패가, 김영곤·김수진·정병환 씨에게는 감사장이 각각 전달됐다.

장기간 헌신한 종사자에게 수여되는 '보문 장수공로상'은 곽성준·배호연·임혜숙·김나옥·황인숙·서진자 씨에게 돌아갔다. 보문 최고상은 법인을 이끌며 헌신해 온 연규 스님에게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수여됐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축사를 통해 "보문복지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왔다"며 "기관과 후원자, 직원이 어우러진 선근 인연공덕의 회향처로서 앞으로도 백년복지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보문복지회는 2005년 9월 설립 됐으며, 장기요양·재가·자활·아동쉼터·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벽선암, 13년째 동지 팥죽 나눔

12월 21일, 호계역 일원서
시민에 팥죽 3000그릇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이 올해로 13년째 동지 팥죽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벽선암은 12월 21일 울산 호계역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동지 팥죽 3000인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사)야단법석이 주최하고 울산 북구청과 벽선암 신도회가 후원한 이날 팥죽 나눔에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동지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나눈 팥죽 한 그릇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발원이 모든 액운을 물리치고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온 벽선암과 (사)야단법석,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원로원장 혜윤 조허(금강사)
종회의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규정원장 일초(상주 연화사)
고시원장 자혜 수봉(대광사)
호법원장 덕현(성현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 화 원 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원장 선행
포교부원장 혜원
교육부원장 법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수 원 사

회 주 **세 영**

주 지 **보 선**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00
☎ 031)245-9670

대한불교조계종

벽 암 지 홍



신축 템플스테이체험관 투시도(안)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대한불교조계종

장 안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나길 21-2 ☎ (02)832-7165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관 음 사

주 지 **석 두**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동탄 용 화 사

회 주 **성 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193번길 55
☎ (031)372-7050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석산 성행**

기	획 명원	포 교 사	수인
총	무 명법	노 전	정타
재	무 명종	부 전	정완, 강륜
포	교 명우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 실 정암 세연

회 주 학농 장윤 주 지 여암



2025년 보물 지정 전등사 명경대 실물 사진

2025년 9월 6일 새롭게 국가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전등사 명경대.

명경은 사람들마다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불성(佛性)을 비치는 거울로 1627년에 밀영(密英), 천기(天琦), 봉생(奉生/鳳生)이 만들었다. 이 명경대는 17세기 목공예 작품 중 기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며 불교미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명경대 중에는 이른 시기 작품이며, 조각과 채색 기법도 뛰어나 예술적 가치도 높다.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관음재일 – 예경문 독송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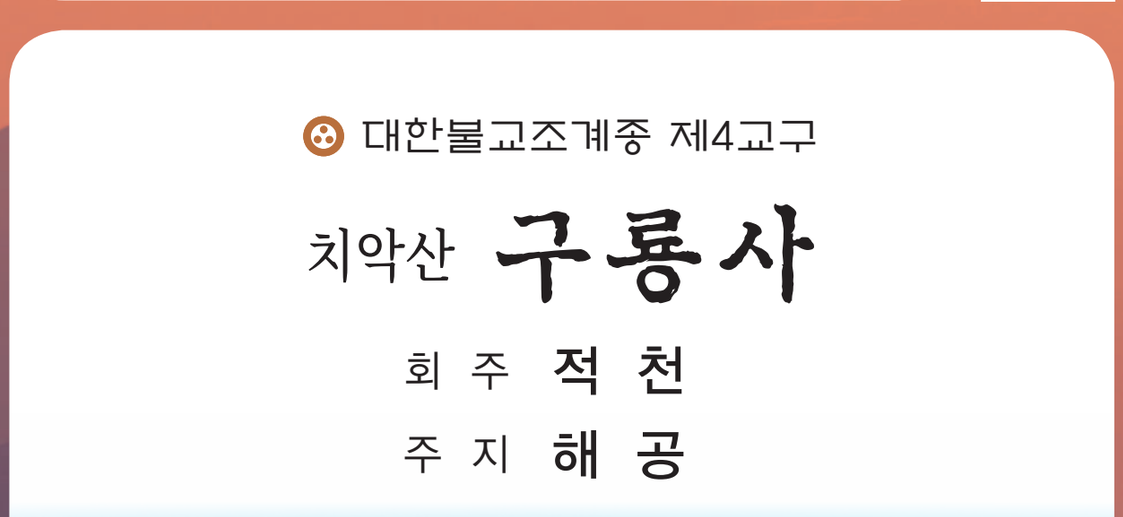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현성정사 | 동도선사 | 사회복지법인 혜명 | 학교법인 청담학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선사길 278
☎ (02)993-3161 Fax (02)993-3164 www.doseo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오대산 상원사

주 지 해 량

사부대중 일동



기도안내
문 수 재 일 법 회 매월 음력 4일
광명정진 철야기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 (033)332-666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룡사

회 주 적 천

주 지 해 공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TEL. 033-732-4800
템플스테이 033-731-0503 www.guryongsa.or.kr

불기2570(2026)년 丙午年새해에는 모든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그득하길 두손 모읍니다.

禪의 향기가 그득한……

大韓護國佛教少林禪宗

•종 도 모 집•

본 宗은 중국불교 1700여년 만에 중국숭산 소림사에서 처음으로 수계 득도한 외국 제자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로서는 최초로 중국 선종의 법맥을 받은 유일한 전법 전수 제자인 석연화 종정이 소림사로부터 종명을 받은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에서 선불교 중흥에 동행하실 종도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33)761-3200

•한국달마연구회 회원모집•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 본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에서는 선종(禪宗)의 초조(初祖) 달마(達磨) 대사의 선(禪) 수행의 심법(心法)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중국 달마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함께 할 한국달마연구회(학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10-4813-6800

中國 嵩山 少林寺 韓國 本刹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찰 미륵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27 033)761-7008, 2556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7-7호 법인등록 194621-*******)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종회의장 법륜

승 정 원 장	월해	호 법 원 장	해월
감 찰 원 장	성호	교 육 원 장	영호
포 교 원 장	덕해	포 교 부 장	장문
호 법 부 장	문경	서울교구원장	법혜
감 찰 부 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천호
대전교구원장	수진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입종사찰 : 전남 여해사 여해스님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108종도일동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대행 스님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겠는가

항상 여러분과 마음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고, 찰나찰나 이렇게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량이 좁아서 불편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어디인들 어떠하리까? 이 모든 게 물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한마음이 모두를 행해서 이 현실 물질세계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이 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한 철 나는 동안에 세세생생에 굴러야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도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한 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들어서 잘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병고가 닥쳤다든가, 어떠한 가난이 닥쳤다든가,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다든가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여러분 제각기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그것을 대치할 수 없고 살아서 나를 볼 줄 모르고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는 요다음에 옷을 벗어도, 죽었다 하더라도 관습에 끄달리는 그 영혼만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모습을 달리달리 쓰고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무슨 지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곤충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독사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이런다면 그게 바로 차원에 따라서 그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무간지옥이다 하는 것도 바로 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럴 때, 참 생명이 위급하다 할 때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너무 위급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무(無)의, 무심(無心)으로써 오고 가는 통신이 있어야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통신이 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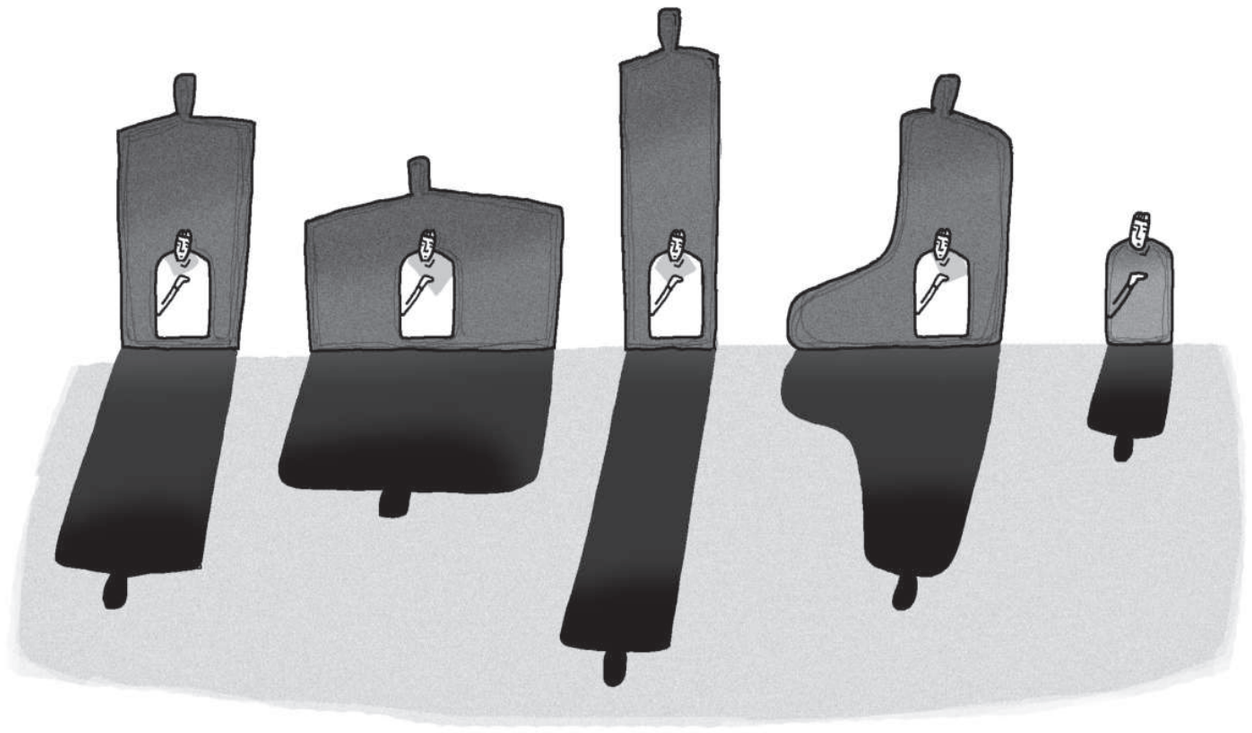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해신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소임을 맡은 그 보살한테 내가 통신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찰나에 한마음이 돼야 건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과 참나와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해신한테도 통신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땐 속수무책이다 이거야. 건질 수가 없어. 또 그것은 하나로 방편을 세워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그게. 이름은 그러하지만 진실은 그대로니깐요.

우리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다가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양면을 대치하느냐? 지금 그 바다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일러 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바다의 소임을 맡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산에도 주산신이 있고 또 나무들 관리 소임을 하는, 풀과 나무들 모두를 관리하는 그러한 소임자는 바로 주림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신들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면 그 신도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각자 여러분께서 그리로 그리로 통과가 돼야 살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건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한 회사에, 큰 회사에 회장이 됐으면 회장의 권리가 있어야 공장장 또는 사장 또 부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 우리가 관찰해서, 위에서 관찰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것을 대치해서 명령을 내려야만, 명령이라고 할 건 없지만 결정을 지어야만이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처님과 보살, 이 부처님 한생각에서 보살들을 생산시키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을 생산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또 지금 하셨고.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서 생산처가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전체 삼천대천세계 한가운데 그 법정이 생긴다는 거, 이건 부처님의 한생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생산처라고 한다면, 이 생산처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서류가, 우리 보이는 데는 책이 있고 글자가 있지만, 백지에 글자가 없는 글자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무심권도(無心權道)'의 책입니다. 그래서 생산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기도 하지만 들이기도 하니까 이 들이고 내는 데를 '생사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떠난 생사천이지 이름이 있는 생사천이 아닙니다. 그 생사천에 모두 서류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른 쉽게 말해서 70살에 갈 사람이 장부에 한 25세쯤 돼서 갔다, 가려고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아, 이 사람은 한 70살이나 근 살 텐데 어째서 25세가 됐는데 죽어가나?' 하고 검증을 할 때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단 얘깁니다. 생각해볼 때 '아, 이거는 어디서 잘못됐구나.' 하고 그 장부를 가지고 오래 봐야만 그게 해결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사처의 그 장부를 보려면 통신이 돼야 되죠. 생사처의 모든 소임자를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둘이 아니게 돼야 그 장부를 볼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살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떠나서 내가 한 권리를 갖는다면, 한 생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세세생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인생길이 가끔 생각한다면 너무도 참혹할 때가 많거니와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한순간에 돌아갑니다. 부자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바꿔 가면서 변해서 화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 A27면으로 계속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평등하게 사시사철 푸르게살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

진주봉사단 일동

후원계좌 : 농협 801098-51-008286(한마음선원)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말겨라

☞ A26면에서 계속

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틈이 났다 또 벌어졌다 오므라지고 오므라졌다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도 벌어졌다가 한데 붙어지고, 합쳐지고 또 벌어지고 싸우고, 허허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조그만 것만이 아니라 큰 거에서부터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걸로 그렇게 벌어지곤 하죠. 우주의 섭리도 그러하고 은하계의 섭리도 그러하고 모두가, 블랙홀의 섭리가 다 그러한 거니깐요.

그래서 또 한 말을 한번 되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컴퓨터니 녹음기니 텔레비전이니 또 로케트니 뭐, 그냥 별놈의 게 다 생겼습니다. 허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동적인 누진이 있느니라, 자동적인. 자동적인 누진. 바로 세세생생을 이어 가는 자동적인 누진. 이거는 인간의 중심, 바로 두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다가 과거를 보려면 꼭 비디오를 되감아서 다시 넣어야 봅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그러나 한생각의 머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를 다 스크린처럼 돌려도 손색이 없이 다 나옵니다, 과거가. 안 그러십니까? 그, 묘한 법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려면 한번 스크린을 돌려 보세요, 마음의 스크린을. 얼마나 잘 생각나고 얼마나 잘 보이나.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찰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그건 물질과학이지 심성 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 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계죠.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요. 댁의 몸으로는 모두 뛸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모두, 이 세상 도량을 한꺼번에 쥐고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도리가, 바로 그 녹음해 둔 이 두뇌에 있단 얘깁니다. 두뇌 아닌 두뇌지, 또 그것도. 이 물질적인 두뇌에 접해서 그냥 응시해서 있을 뿐이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몸체가 다 죽어도. 그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이게 때로는 화면, 또는 말 나오는 거 또는 끄고 켜는 거 또 높이고 줄이는 거, 이거와 텔레비전 전체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조절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 안에 수없이 생명의 그 의식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꽉 찼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꽉 차서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또 만나고 또는 내가 어디서 오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다섯 가질 종합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뇌에 연결이 되는 게 누진입니다. 그 누진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게. 녹음이 다 되고 입력이 다 돼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인간 몸에 사대로 통신이 돼 가지고 그 사대 안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통신이 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깥의 일들이 보고 듣고 들이고 대뇌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 가지고선 바로 찰나에 이게 바로 되는 일입니다.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그러는 까닭에 인간 몸뚱이 하나가 모두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로보트가 컴퓨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듯이 자기가 생각을 내서 하는 게 없어요, 이 몸체 안의 생명들은. 통신이 돼야만 그것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그 통신이 끊어졌다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는데 들이쉴 수가 없고 내쉬는데 내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뜻이나 똑같죠. 끊어지니까, 한쪽이 끊어지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전체의 이 모두를 볼 때, 보세요. 보는 거, 이거를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말할 땐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서 이럽니다.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 남의 마음을 아는 것 타심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그냥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보고 돌아가고 걸어오는 것도 발자취를 짊어지지 않고 오고.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도 들을 뿐이지 그냥 돌아가고 있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들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자꾸자꾸 끌어 뭉쳐서 쥐고 놓지를 않고 사는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마음으로 자꾸 오업(五業)을 짓는 거죠. 다섯 가지 업을 짓는 거죠. 그 업 속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종합해서 들어 있노라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벗어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와 보고 듣고 들이는 거와 안에서 듣고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양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모든 게 작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대뇌, 누진이란 얘깁니다. 누진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대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모든 게 사대로 퍼지는데, 통신이 되는 건데, 이게, 본래.

그런데 이 누진이 바로 입력을 다 해 가지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그 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녹음이 되는 누진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난 누진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사 건에도 그렇고, 이 모든 살아나가는 거, 수명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전체가 살아나가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녹음이 돼 있는 바로 개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누적이 돼서 거기 전부 녹음이 돼서 있는 줄 모르고…. 그럼 거기서 차례차례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녹음을 해야 그놈의 게, 이 누진에서 녹음된 게, 즉 말하자면 입력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멍멍하게 계십니까? 아, 지금 현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멍멍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말하는데 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도 말해 보고 저렇게도 말해 보고, 지금 난 요절이 났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전부 모습도 차원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에서 통신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움죽거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자라는 데를 채워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내 마음에서 모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입력을 했을 때, 통신을 했을 때 바로 직속으로 통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속, 화해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원자로 된단 말입니다, 그쪽 원자. 이렇게 왕래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데도 사람이라면 99%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살고 나가는지, 자기가 그렇게 구성된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 그것들을 통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는 죽기 살기 그냥 매달리면서 육체로, 말로 그냥 한몫하죠. 그냥 '아이구, 불쌍한 너야, 왜 이러느냐. 아이고, 네가 잘돼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주어져서 자유의 권리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한마음 될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한생각이 그렇게 보살로다 화할 수 있고, 법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보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문수가 되고 말입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은 문수가 되고 움죽거렸다 하면은 보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림을 그리는 데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모습을 놓고서 여럿이서 다 똑같이 그린다 합디다, 시험을 보느라고. 그렇듯이 우리도 다 제각기 똑같아요. 이 우주의 섭리가 다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크고 작을 뿐이지.

그래서 나 하나만 깨치면 모두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아주 그냥 딱 직결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이 우주의 근본이 이 행성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듯 이 행성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이게 보이지는 않죠,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허나 이 마음의 능력의 줄은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궤도를 그냥 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냥 수레바퀴에 얹혀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안에 벌레로서 지구 바깥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7545-4577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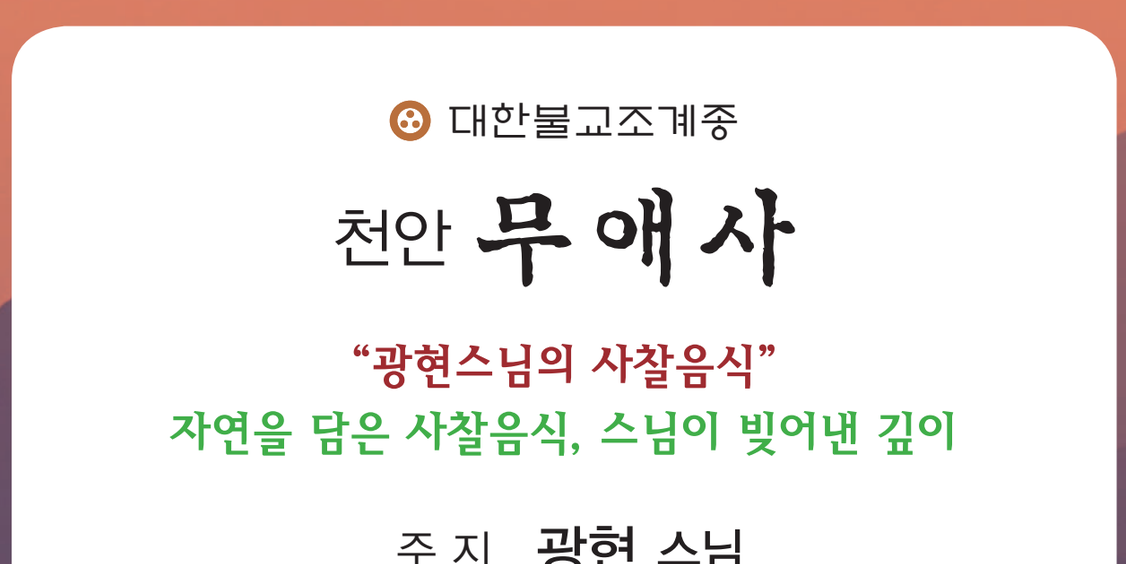
나반존자 기도영험도량

금정산 **미 륵 사**

회 주 大蓮 眞愚

주 지 덕 안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26 ☎ 051-508-4707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만 수 산

부여 **무 량 사**

천년고찰 아미타기도도량

주 지 정덕 스님



충청남도 부여군 무량로 203
전화 041-836-5066

대한불교조계종

천안 **무 애 사**

"광현스님의 사찰음식"

자연을 담은 사찰음식, 스님이 빚어낸 깊이

주 지 광현 스님

사부대중 일동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추1길 36
전화 041)568-0361

2026 제12회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태학산 해맞이 및 희망타북식 (떡국나눔)

일 시 : 1 월 1 일 7시 장 소 : 태학사

주최 : (사)충남불교문화진흥원 주관 : 태학사 불자봉사회

후원 : 천안상고총동문회, SM스마트치과, 우주(강산)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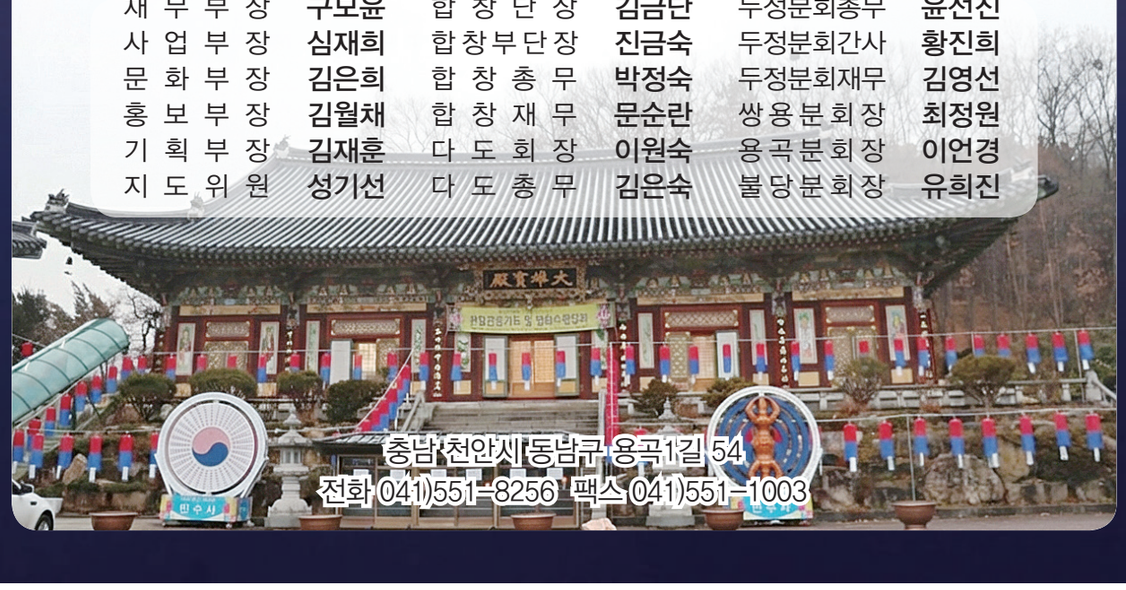
전망대365광고

대한불교천태종

천안 **만수사**

주 지 김도언

신도회장	이운칠	풍물단장	이재성	다도재무	한순옥
여부회장	유용자	지도위원	성금숙	풍물총무	최승미
교무부장	고종수	복지부장	장현순	다가분회장	김정임
재무부장	문현영	지장회장	한기섭	두정분회장	조복순
재무부장	구모윤	합창단장	김금단	두정분회총무	윤선진
사업부장	심재희	합창부단장	진금숙	두정분회간사	황진희
문화부장	김은희	합창총무	박정숙	두정분회재무	김영선
홍보부장	김월채	합창재무	문순란	쌍용분회장	최정원
기획부장	김재훈	다도회장	이원숙	용곡분회장	이언경
지도위원	성기선	다도총무	김은숙	불당분회장	유희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전화 041)551-8256 팩스 041)551-1003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만수사 **도언** 스님

원로의장 각원사 **대원** 스님

원로의원 광덕사 **철웅** 스님
원로의원 천불사 **인경** 스님
원로의원 용화사 **지용** 스님
원로의원 약천사 **인봉** 스님
원로의원 연대선원 **지현** 스님

부 회 장 정화사 **경천** 스님, 도광사 **도공** 스님, 쌍용선원 **자장** 스님, 고불사 **능엄** 스님, 무애사 **광현** 스님

감 사 광덕사 **혜광** 스님
교무국장 덕흥사 **선영** 스님
포교국장 안양암 **탄형** 스님
재무국장 극락정사 **일양** 스님

총무국장 태학사 **법연** 스님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만수사
전화 : 041-552-9256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은 광**

운문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신도교육 포교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사

주 지 **도 륜**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대학
한마음합창단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41
전화 054)858–2630 팩스 054)859–7230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지 겸 관장 **탄대**

사부대중 일동

우리 복지관은 지금

1.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상

불교 자비 정신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도움 제공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복지 실천으로 구현하고자 1995년 2월 25일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휼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꾸준히 역할을 확장해 왔습니다.

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재단은 불교계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결·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국정토 구현을 지향하는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재단은 전국적으로 약 18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며, 다양한 자비나눔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 실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조계종의 오랜 전통과 전국 교구본사 및 지역 사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은 불교계 사회복지의 고유한 강점으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생애 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교적 가치가 담긴 윤리적·실천적 복지관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과 관리, 활동 연계를 통해 전국 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비나눔 사찰 캠페인', '만행 결연 후원' 등 다양한 후원 캠페인을 전개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및 저소득층 생계·교육 지원 등 구체적·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의료·교육 지원과 재난 구호 등 국제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 불교적 자비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위에 축적된 경험과 현대적 전문성을 결합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新年隨想

'인생난득' 몸과 마음에 새기는 새해 되길

무비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불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소리마저 다 쉬어 가고,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언제 생을 마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법어의 무게는 그 어느 날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붙들고 살아온 화두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입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화엄난견(華嚴難見)"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화엄을 만나고 보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말이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가장 오래된 말이 가장 새로운 말이 되고, 가장 흔한 말이 가장 값진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경책입니다.

사람 몸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법을 만났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고 귀합니다. 불법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불법은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구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한 말씀이 평생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촌철살인(寸鐵殺人)'이라고 합니다. 말은 짧지만, 그 힘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법에는 여러 교설이 있고 여러 주장과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바가 다르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분열도 생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화쟁(和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화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화쟁은 불가능합니다.

〈화엄경(華嚴經)〉을 만나기 어렵고, 화엄을 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 또한 결국은 화엄 사상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화쟁이란 불법에 대한 여러 교리를 모두 융화시키자는 뜻이며, 그 화쟁은 결국 〈화엄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산 앞바다에서 물을 떠 마셔도 짠맛이고, 동해에서 마셔도 그 맛이며, 서해에서 마셔도 그 맛입니다. 그 바다에는 온갖 강물이 들어옵니다. 온갖 동물들의 오물과 사람이 쏟아부은 오물까지도 모두 흘러들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섞여도 바다는 바다의 맛 하나만을 냅니다. 짠맛입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 지중히 여기고 불법, 그중 화엄 만난 가치 깊이 새기며 한 구절이라도 천 번 만 번 되새기라"

이것이 바로 화엄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주장, 저 주장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모두 한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자기주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생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불법을 만난 가치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 주장과 여러 생각이 있지만, 불법을 만났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짧습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해도 그러했고,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그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教網 漉人天之魚)"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입니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활짝 펴서 인천(人天)의 고기를 모두 건져 올리겠다는 이 서원은 원효 스님 평생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부처님의 깃발이며,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깃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教網 漉人天之魚)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다 교화하리라.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이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관찰하라.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諸法從緣生 諸法從緣滅 我佛大沙門 常作如是說)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 조각이 있는 법은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이며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이치는 한 번 들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나 역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 했습니다. 백 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백 번 읽고도 모르겠다면 또 백 번 읽어야 합니다. 읽고 모르면 또 읽으십시오. 불법은 그렇게 반복 속에서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났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가슴으로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법을 만난 가치를 깊이 새기며, 한 구절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천 번 만 번 되새기는 것. 그것이 새해를 맞는 불자의 길입니다.

나는 평생 이 말 하나를 붙들고 살아왔고 올해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화엄난견(華嚴難見)"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불곡산 대 광 사
주 지 경혜 스님
신도회장 민 기 홍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 FAX. 031-715-3409
E-MAIL. daegwangsa3@gmail.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뉴미디어 시대, 포교도 새 길이 필요하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어렸을 적 고향에는 극장이 없었다. 방학이 되면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했다. 화면은 작았지만 그 천막은 그 시절 사람들이 세상과 만나는 창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매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왔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됐고,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일상이 됐다.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손바닥 안의 화면으로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는다. 2019년 코로나19 펜데믹은 온라인을 기반한 '언택트(Untact)' 문화를 일상으로 만들었고, 2022년 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사고와 표현 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이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접속하는 방식의 변화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앞에서 불교 역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중은 사찰보다 먼저 화면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 이 첫 만남이 피상적이거나 왜곡된다면, 깊은 가르침에 닿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시대의 언어로 전해져 왔다. 원효 대사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불법을 풀어냈고 근대의 스님들이 한문 경전을 한글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가르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전달의 문턱을 낮춘 수행이었다.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진 시대
뉴미디어 홍보 포교, 선택 아닌 필연
유튜브 중심, 종단 네트워크 연계해야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뉴미디어 홍보와 포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시대의 언어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불교는 깊이를 지키더라도 대중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조계종은 미디어홍보실을 설치하고 종단 홍보와 미디어 활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홍보실은 불교 콘텐츠의 현대화와 종단 뉴미디어 운영, 사진·영상 콘텐츠 관리를 통해 종단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에 전달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미디어위원과 홍보위원, 실무협의체 제도는 홍보를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종단 전체의 공동 과제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다. 홍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제도는 종단의 메시지가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한다.

2026년의 방향 역시 분명하다. 더 많은 콘텐츠보다 더 잘 연결된 콘텐츠다.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되, 이미 형성된 종단 내외의 네트워크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각 사찰과 각 포교 현장에 축적된 이야기를 흩어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것이 과제다.

뉴미디어는 빠르다. 그러나 불교는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제때 말을 건다. 이 시대의 언어로, 그러나 불교의 깊이를 잃지 않고, 대중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포교의 길을 묻는 이유다.

새해를 맞는 마음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새해를 맞았다. 달력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일의 무상함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옷깃을 여미며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는 경건함을 놓칠 수는 없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고, 정해진 정년도 그만큼 짧아지며 다가섬을 느끼는 순간 멈칫하며 잘 살아왔는지를 성찰하는 굽이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사태로 맞이한 2025년은 대통령 탄핵과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의 배우자와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한 해를 어지럽게 장식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미국의 비상식적인 관세 부과로 촉발된 경제 위축도 국내 불황으로 이어지며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옥죄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거친 이익 추구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일상의 고단함으로 몰려들고 있다.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지만, 새해 경제 예측 역시 낙관보다는 비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 상황이 지니는 복잡성과 복합성을 생각하면 섣부른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선 잠시 물러서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잡으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들의 자세는 전문가들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의견들과 합해지면서 실천적인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나의 몸가짐부터 바로잡으면서
연결된 관계에 희망 주고받아야
화엄불교 오랜 명제 실천하는 일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들 자신의 일상이 온갖 정보들로 넘쳐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렵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거대 양당의 정파적 이익과 맞물리며 폭풍처럼 몰려다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뒤로 밀리거나 아예 들려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새해에는 이 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몰려들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바로 나 자신의 몸가짐부터 바로잡으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망들로 희망을 내보내고 또 받는 일이다. 21세기 들어 화엄불교의 오랜 지혜인 '모든 것은 연결망'이라는 명제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사회과학 담론과 신경과학의 뇌세포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고 또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연결망에 관한 주목은 나 자신의 인식과 행위가 다른 존재하는 것들과 긴밀히 연결된 사실에 대한 주목이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인식과 행위는 나 자신만의 것일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돼 다른 사람은 물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오래된 깨달음'의 재확인인 셈이다. 필자는 그것을 호모 인드라네티우스(homo indranetius)라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구체화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새해는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 연결망을 새롭게 새기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다.

社 說

'힙'해진 불교, 이제는 깊어져야 한다

'힙(Hip)한 불교'.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형용모순처럼 느껴졌던 이 말이 이제는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MZ세대가 몰리고, 불교문화유산이 세련된 굿즈와 콘텐츠로 재해석되며, 템플스테이·사찰음식·선명상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았다. 불교는 산사를 넘어 쉼과 정돈,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이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효능감'에서 불교의 호감도는 54.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와 30대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탈종교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교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담 없는 종교, 가장 친근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쉼·정돈·의미 찾는 세대에 '힙'한 불교
호감도 '최고'에도 종교활동은 '외면'
외적 호감이 수행·신행 이어져야

이러한 변화는 분명 고무적이다. 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시대에 불교는 문화와 감성, 체험을 매개로 다시 대중과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불교 굿즈가 인기를 끌고 명상과 사찰음식이 일상 속 선택지가 됐다는 사실은 불교가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해를 맞은 지금, 불교는 이 성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호감도는 높아졌지만, 신앙의 깊이는 그만큼 따라오고 있는가.

앞서 12월 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에서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는 3%에 불과했다.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당신의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한 불자는 35%에 그쳤다. 불교에 대한 인식은 부드러워졌을지언정,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력과 유대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물론 법회 참여 빈도만으로 신앙의 깊이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자의 15%가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점, 젊은 불자일수록 종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불교가 '좋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데 그친다면 힙함은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

지금 불교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외적 호감과 인기를 내적 수행과 신행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불교가 건네는 '쉼'과 '정돈'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수행이다. 선명상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경험은 불교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힘이다.

힙한 콘텐츠로 문턱을 낮춘 불교가 수행을 통해 삶의 도구로 작동할 때 대중의 호감은 신뢰로, 관심은 참여로 깊어질 수 있다.

불교가 힙해졌다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깊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재단이사회
이 사 장 일 명
부 이 사 장 경 담
상 임 이 사 오 원
이 사 혜 천
법도화
현 소
한태규

종정 / 총무원
종 정 예 하 대 륜
총 무 원 장 혜 일
종정비서실장 지 명

원로회의
원 로 의 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승원

중앙종회
종 회 의 장 도정
종 회 의 원 재단이사회
고 봉 석 경
무 착 정 암
서 현 보 은
동 철 성 운
혜 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 계 원 장 동청
교 육 원 장 지언
포 교 원 장 지명
문 화 원 장 제법
기획추진위원장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감 사 원 장 법광
포교부원장 덕산
문화부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동심
총 무 국 장 보륜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 · 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謹賀新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FOUNDATION

동국발전 불교중흥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해 원





WISE캠퍼스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DUICA / 일산장례식장 / 만해마을수련원 / 동국부동산센터



해당 일러스트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Buddhism **is** **Hip!**

불교는 요즘 말로 '힙(Hip)'하다. 불교 관련 산업 전반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1~2년 전부터 Z세대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2025년 4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으며 '불교가 이렇게까지 대중적일 수 있나'라는 세간의 감탄을 이끌었다.

불교를 상징하는 도상과 언어는 더 이상 법당에만 머물지 않았다. 불교 이미지를 활용한 티셔츠·스티커·키링 같은 굿즈가 '갖고 싶은 물건'으로 떠올랐고, 일부 브랜드 부스는 품절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이 흐름은 Z세대가 엮어냈다. 실제 박람회 사전등록자 중 20~30대 비중이 76%였다. 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기심은 종교적 귀의(歸依)라기보다 '쉼'과 '정돈', '의미 있는 소비'로 여겨졌다. 박람회장은 사찰과 페스티벌, 감성 카페의 경계를 오가며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다.

'체험'은 더 큰 파도를 탔다. 템플스테이는 이미 국민 여행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2024년 참가자는 62만명(2023년 대비 13% 증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찰음식은 2025년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유산적 가치가 재확인됐다. 곧이어 6월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2만여 명이 다녀갔고, 사전등록 1만 5000명 가운데 20~30대가 56%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이처럼 불교문화는 '콘텐츠'가 됐다. 박람회(산업)와 템플스테이(여행), 선명상(웰니스), 사찰음식(식문화)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언어'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 기능한다. 불교 오브제를 책상 위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불교문화는 젊어졌다. '젊어짐'은 단지 연령대가 아니라 작동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어느새 B-문화는 '힙-플랫폼'이 됐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 플랫폼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B-Goods

B-굿즈, 굿즈 전성시대를 열다
B-굿즈, 어디까지 만나 봤니
B-굿즈를 만드는 사람들

B- Spot

서울 중구
전국 B-벨트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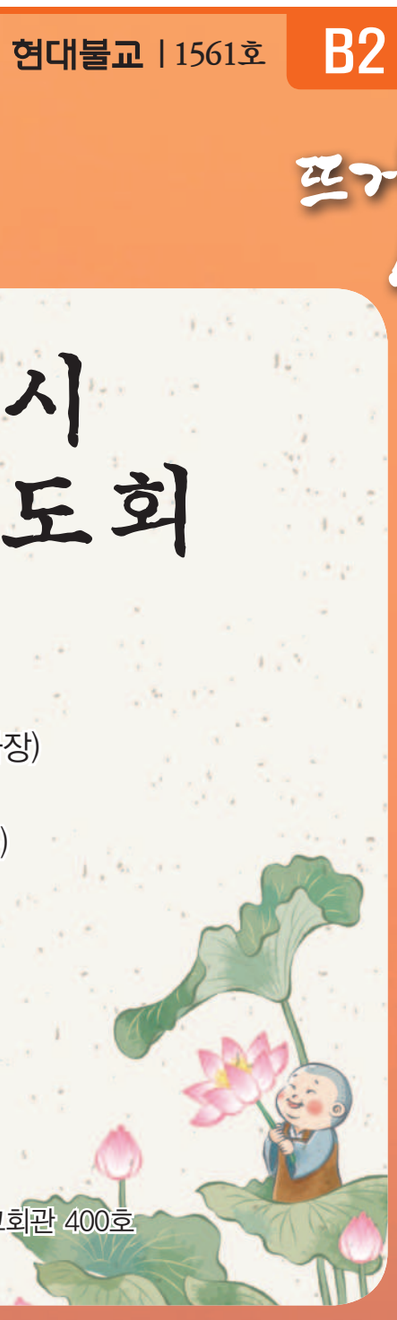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범어사 신도회장)
상임고문 **우방우**(금양상선(주) 회장)
부 회 장 **김수현**(BTN불교TV 부산지사장)
하정선(BTN불교TV 염불공양회 회장)
김도연(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고문)
박정순(주원홀딩스 회장)
신한춘(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장)
박종웅(EK중공업(주) 회장)
김대명(루펜티스(주) 회장)
류광지((주)금양 회장)
상근부회장 **박대성**(해운정사 신도회장)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00호
전화 051)867-0501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진제대선사 주석도량

해운대 해운정사·금모선원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대한불교조계종 16만 도자대장경 봉안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서 운 암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094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홍법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유튜브채널 홍법TV (홍법사 법회 및 행사)
카카오톡채널 홍사홍사 (홍법사랑 홍법사진)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051-508-0345, 팩스 051-508-6561, 이메일 5080345@daum.net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태고종부산종무원장
동래구불교연합회장
동래경찰서 경승실장
주지 **청 암 자 관**
총무 **정 웅**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B is Hip!

B-굿즈, '굿즈 전성시대' 열다



반달 스님

'굿즈'가 아니다, '라이프스타일'이다

'반가사유상 피규어' 완판 열풍

국립중앙박물관 인기몰이 견인

공원공단 '반달 스님'으로 매진 중

'석굴암 미피' 로컬라이즈 선사례

불교박람회 굿즈 Z세대 취향저격

지속 위해 '라이프스타일' 확장을



반달 동자 스님



목탁 치는 고양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굿즈(Goods) 전성시대다. 연예인 관련 상품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파생상품으로 정의되던 굿즈는 팬덤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 충성도를 확보하는 중요한 마케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Z세대로 비롯되는 20~30대가 "박물관에 우린 쇼핑하러 간다"면서 박물관을 학습의 공간에서 소비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렵고 딱딱했던 박물관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꿔준 힘은 바로 굿즈에 있고 이는 불교에 기반한다.

굿즈 열풍 시작 '반가사유상 피규어'

현재 굿즈 열풍의 중심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굿즈 브랜드 '뮷즈(MU:DS)'가 있다. '뮷즈'의 상품 중 화제를 모았던 제품은 2020년 10월 처음 출시된 '국보 반가사유상(83호) 피규어'였다.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알려져 인기에 날개를 달았고 소위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 없는 매진 사태가 이어졌다.

'사유의 방' 개관을 맞아서는 굿즈를 리뉴얼했다. 기존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강렬한 원색이었지만 리뉴얼하며 우아한 파스텔톤으로 색상이 바뀌었고, 기존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을 제품 라인업에 추가했다.

지금도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다양하게 변주 중이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독특한 일러스트 스타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있는 최고심 작가와 콜라보한 'K-볼하트' 버전 반가사유상 피규어, 마우스패드 등을 선보였다. 'K-볼하트' 버전 반가사유상 피규어들은 현재 '뮷즈' 쇼핑몰 베스트 상품에 있는 상황이다.

반가사유상 피규어가 아니라도 경주 석굴암 키링, 경주 불국사 다보탑 만들기 키트, 석굴암 조명(2024년 뮷즈 공모전 선정작), 경천사 십층석탑 얼음 틀 등 불교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뮷즈 제품 라인업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뮷즈는 2025년 1~8월 매출이 217억원을 돌파해 이미 전년도 매출을 넘어섰다. 총 매출액이 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위 오픈런까지 이뤄졌던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상승에도 박물관 굿즈는 큰 영향을 미쳤다.



바반투의 '헤드셋 붓다' 티셔츠. BTS 멤버 RM이 구매해 화제가 됐다.

공공IP · 컬렉션 굿즈도 불교를 입다

공공기관 캐릭터와 컬렉션 굿즈도 '불교'를 입고 인기몰이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공단 대표 캐릭터 '반달이'가 스님과 동자승으로 변신한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 굿즈다. 반달이 스님 버전 굿즈들은 출시 직후 품절을 반복하며 화제가 됐고 현재는 2차분까지 전부 소진된 상태다.

이영주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 과장은 "국립공원 캐릭터 '반달이'가 지닌 친숙함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스님과 동자스님이라는 다소 의외이면서도 한국적인 콘셉트를 결합한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라며 "여기에 공공기관이 만든 캐릭터라는 신뢰성과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의미있는 소비로 받아들여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토끼 캐릭터 '미피'는 석굴암 부처님으로 분(扮)했다. 미피 탄생 70주년을 맞아 2024년 열린 기념전 '미피와 마법 우체통'에서 첫 공개된 '미피 석굴암 에디션'은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꼭 사야하는 굿즈가 됐다. 이는 브랜드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로컬라이즈(Localize)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람회, B굿즈 가능성 보이다

직접적인 B-굿즈의 가능성이 확인된 곳은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였다. 개최 기간 동안 20만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갔고 사전등록자도 4만명을 넘겼다. 368개 업체, 481개 부스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체 방문객 중 76%가 20~30대였고 절반 이상(52.3%)은 종교가 없었다. 현장에서는 불교 굿즈를 사기 위해 오픈런이 벌어졌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불교 카드를 모으는 '히든 담마 챌린지'와 젊은 감성으로 차려진 'AI 전시 부스'가 호응을 얻었다.

톡톡 튀는 감성IP(지식재산권)로 무장한 불교 연계 브랜드와 업체들도 박람회를 통해 재발견됐다.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티셔츠 등 유머러스한 밈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해탈컴퍼니, 불교 철학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을 선보인 바반투 등이 대표적이다.

종단 · 사찰도 자체IP로 굿즈 제작

B-굿즈가 활성화되자 종단과 사찰들도 자체IP를 통한 굿즈를 제작하거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서울시 유형유산 봉은사 사천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캐릭터 공모전을 5월 8일까지 진행중이다. 작품 부문은 이모티콘, 팬시, 카툰, 애니메이션 등으로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최근 자체IP를 활용해 '나모(NAMO)'라는 굿즈를 제작해 선보였다.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관음종 캐릭터로 등장한 아기부처님 '나모'를 종단에서 저작권을 등록해 굿즈화했다.

송종원 관음종 사무국장은 "매년 연등행렬에서 선보이는 아기부처님 인형탈이 반응이 좋아 이를 굿즈로 제작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면서 "종단의 정체성을 살려 '법화동자'라는 컨셉으로 2종의 굿즈를 제작했다. 현재는 비매품으로 종단 방문객 등에게 기념품으로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B-굿즈, 지속가능 라이프스타일로

B-굿즈 성장은 '불교문화가 불교 안에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신앙보다는 경험재, 즉 라이프스타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불상 오브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Z세대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B-굿즈는 완연한 '성장기'에 들어섰다. 성장기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받는 것'이다. 현재 굿즈 시장에서 불교는 '마음의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위치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형 매출을 상설형 매출로 전환하는 마케팅, 판매구조 구축과 리핏(반복) 카테고리 상품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업체들도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는 "주로 소품 위주의 굿즈들이 많았는데 패션 쪽으로도 제품을 늘리려고 한다. 승복 바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데님 바지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해탈컴퍼니를 좋아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나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커뮤니티로의 역할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관음종 굿즈 '나모'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眞如苑 신뇨엔

이타행 9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
6대주에 꽃을 피워 세계로 미래로

Shinnyo



신뇨엔 서울정사



신뇨엔 부산정사

▷ 신뇨엔 서울정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46 / 전화 (02)719-6998
▷ 신뇨엔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전화 (051)892-6998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www.shinnyo-enkorea.or.kr

무소유 지향하나 소유하고픈 'B-굿즈'들

B is Hip!

B-굿즈, 어디까지 만나 봤니

힙한 불교에 걸맞는 굿즈들이 쏟아지고 있다. 작고 귀여운 팬시 소품부터 라이프 웨어, 로컬라이즈 상품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NFC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사찰 키링이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무소유'를 추구하는 불교지만 소유할 수밖에 없는 B-굿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무소유를 위한 수행템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출처=X_리체_@rxcxxe

경주의 새로운 명물 '토끼 부처님'

미피 석굴암 에디션

"너, 불자니까 경주 자주 가지?"
"아니. 근데 왜?"
"미피 석굴암 에디션 좀 구해줘라."
"그게 뭔데?"
"미피가 석굴암 부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지난해 기자에게 무종교·타종교인 친구들이 부탁 전화를 쇄도하게 만들었던 그 굿즈, 바로 '미피 석굴암 에디션'이다. 네덜란드 태생인 미피는 탄생 70주년을 맞아 2024년 11월 개최한 기념전에서 처음으로 석굴암 에디션을 공개했다. 공개 직후 미피 석굴암 에디션은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미피 굿즈는 거제, 부산, 서울에서도 로컬라이즈 버전들을 잇달아 선보였는데 이 역시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이 같은 로컬라이즈 버전들은 현지 스토어에서만 판매되니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

판매처 : 미피스토어 경주(@miffy_store_gyeongju, 경주 황리단길 포석로 1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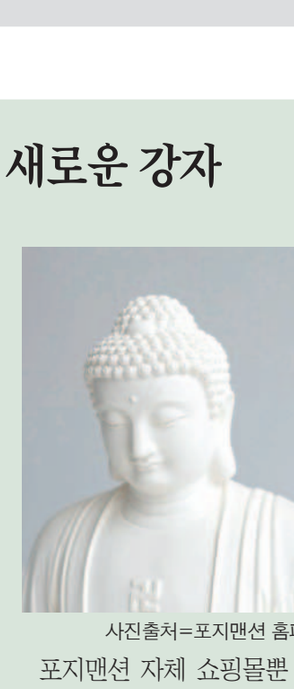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

바반투-옴 로터스 팬츠

바반투는 불교 철학과 명상에 기반한 패션·키링·오브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바반투의 '헤드셋 붓다 피그먼트 반팔티'를 착용해 화제가 됐다. 최근 선보인 옴 로터스 팬츠(블랙) 역시 RM이 착용하고 위버스 라이브에 출연한 후 바로 매진됐다. 12월 말 현재는 재입고된 상황.

옴 로터스 팬츠는 옴(ॐ)의 진동과 연꽃의 청정함이 만나는 오버핏 바지다. 오른쪽 다리 뒤편에 자리한 디자인은 연꽃, 붓다의 얼굴 그리고 '옴 마니 반메 훔' 만트라로 이뤄져 있다. 색상은 블랙과 카키 2종이며, 사이즈는 XS부터 XL까지 5가지다.

바반투는 "걷고, 앉고,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더 자비롭게 흐르기를 바라며 만든 바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바반투 홈페이지

판매처 : 바반투 온라인몰 (bhavantu.co.kr)

굿즈계 레전드, 콜라보로 돌아오다

뮷즈-반가사유상 (최고심 콜라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브랜드 '뮷즈'의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굿즈 열풍의 시작을 알린 굿즈계의 레전드다. 2020년 첫 출시돼 한 번의 리뉴얼 과정을 거쳤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버전이 제작됐다.

뮷즈는 독특한 감성의 일러스트로 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는 최고심 작가와 콜라보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마음시리즈를 비롯한 다채로운 20주년 기념 반가사유상 굿즈를 선보였다.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마음시리즈는 K-볼하트·네가 최고·사랑가득 3가지 버전이 있으며, 최고심 작가의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반가사유상 안전키링·마우스패드·꾸미기 스티커·리무버블 스티커·L자 홀더 등도 주목할 굿즈들이다. 뮷즈 온·오프라인 쇼핑몰에는 소유욕을 자극하는 굿즈들도 다양하니 최대한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입장하시길.



사진출처=뮷즈 홈페이지

판매처 : 뮷즈 온라인 쇼핑몰 (museumshop.or.kr), 오프라인 쇼핑몰 (전국 국립박물관 9곳)

반달이, 스님 되다

국립공원공단-반달 스님 시리즈

국립공원공단은 한국 국립공원의 보존·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 불교계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공단의 캐릭터는 반달이와 꼬미. 무분별한 불법 포획으로 멸종위기종이 된 지리산 반달곰을 형상화한 것이다. 국립공원에는 천년고찰들이 있어 국립공원공단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에 반달이의 스님 버전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국립공원공단 굿즈 반달 스님·반달 동자 스님 가방걸이는 반달이가 가사 장삼을 수한 모습과 승복에 걸망을 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 굿즈는 국립공원공단의 굿즈 제작과 판매를 전담하는 골든베어상사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현재는 품절된 상태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와 장성 백양사 사찰용품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처 : 골든베어상사 (smartstore.naver.com/goldenbearco)

불교 오브제 새로운 강자

포지맨션-불상 등 오브제

"사무실에 모셔 놓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업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구매했습니다. 아침 출근하기 싫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지긋이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 집니다."

후기에서도 증명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포지맨션'이 제작한 불교 오브제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 포지맨션의 주력 오브제들은 불상과 달마 조사상들이다. 연화대와 좌선 고양이상 등도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포지맨션 홈페이지

포지맨션 자체 쇼핑몰뿐 아니라 무신사, 29cm, 오늘의집 등에서도 포지맨션의 다양한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새해를 맞아 부처님을 보면서 명상을 하거나 차분히 하루를 시작해보고 싶다면 불교 오브제를 만나보면 어떨까.

판매처 : 포지맨션 쇼핑몰 (www.forgemansion.com)



송도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 바로가기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즐기는 특별한 재미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 여행 필수코스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B is Hip! B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



깨닫다!



“‘모든 존재 행복’ 발원, 브랜드 추구미”

바반투(BHAVANTU)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 ‘화제’
불교철학 기반 라이프웨어 인기
“마음 중심 찾는 경험 전해주고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바반투 팝업스토어의 모습.

‘로카 사마스타 수키노 바반투(Lokah Samastah Sukhino Bhavantu)’,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자유롭기를’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발원하는 의미를 담아낸 브랜드가 바로 불교철학, 요가, 명상에 기반을 둔 ‘바반투(BHAVANTU)’다.

‘바반투’라는 회사명이자 브랜드명을 만든 건 김서현 대표다. 김 대표는 인도 여행 중 만트라를 접했고 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바반투가 창립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 당시 제가 명상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제품 라인업도 명상 공간을 꾸미는 오브제나 소품들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붓다와 연꽃 등 불교적 오브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패션 제품으로도 넓어졌죠.”

사실 바반투의 라이프웨어 제품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으로 유명하다. ‘헤드폰 붓다’ 티셔츠와 ‘옴 로터스’ 와이드 핏 팬츠를 RM이 구매·착용한 것이 SNS와 위버스 라이브에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들은 품절 행렬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제품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

“최근 출시한 제품이 ‘옴 로터스’ 팬츠인데 이것을 RM님이 위버스 라이브에 착용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RM님의 라이브 방송 이후에 제품 구입과 문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RM님이 불교도 좋아하고 평소 메시지도 철학적이시잖아요. 저희 제품에 담긴 메시지들과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바반투의 라이프 웨어 등 제품에는 불교적 메시지가 다분하다. ‘Listen to What’s Inside of you’(너의 내면을 들어라) ‘Shut up and Meditate’(닥치고 명상) 등은 선(禪)불교 사상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요가와 명상에 관심이 높은 김 대표 자신도 신심 깊은 불자다. 그러다 보니 김 대표에게 불교는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였다. 이 같은 불교적 라이프 스타일이 제품군에 전부 녹아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3000배와 〈천수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불교는 제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면서도 제 내면의 목소리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하려 합니다.”

김 대표는 바반투의 제품 라인업을 ‘불교적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을 확장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경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장르 한계 없다…불교 커뮤니티로도 확장 추진”

해탈컴퍼니

어버지 스님 도우려 참가한 박람회
재밌게 만든 ‘불교 밈’ 티셔츠 대박
“내가 만난 불교, 대중에 전하는 중”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설치된 해탈컴퍼니 부스.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만난 해탈컴퍼니의 굿즈를 보고 든 첫 인상이다. 만화에서 강조나 큰 소리로 외칠 때 사용하는 말풍선에 붉은 색을 입히고 ‘깨닫다’라는 돈오의 문구를 윈도우XP 감성의 레트로한 폰트로 써내려간 로고 디자인. 이는 MZ세대에게 일종 불교적 밈(Meme)이 됐고,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어찌 보면 해탈컴퍼니의 독특한 감성의 굿즈들은 ‘불교 굿즈 열풍’ 시작을 알린 효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가 이 같은 굿즈를 만든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주 대표의 아버지는 원주 행복자비선원 주지 태현 스님으로 실담범자(悉曇梵字)에 능통한 전문가이다. 2023년 태현 스님은 한국 실담범자 명인 법헌 스님을 도와 실담범자 전시회를 열었고 전시회에서 주 대표는 문자를 티셔츠에 입히는 작업을 했다. 그때 문득 든 생각. ‘이걸로 불교를 알려볼까?’

“아버지가 스님이시니까 제게 불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제게 불교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멋진 세계였어요. 이 재미있고 멋진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불교라는 멋진 세계를 알리고 싶다는 발원에서 나온 굿즈가 바로 ‘깨닫다’ 티셔츠다. 그는 본격적으로 MZ감성의 밈을 접목해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응~수행정진하면 돼~’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였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최근 해탈컴퍼니는 홈페이지 리뉴얼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완전 휴지기는 아니다. 당장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아미울과 함께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도파민스테이션에서 신년맞이 팝업스토어를 연다.

더불어 주 대표는 회사 영역도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소품 중심의 굿즈 제작이 주된 사업이었다면 라이프웨어 등으로 제품군을 늘리고 행사기획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게 주 대표의 설명이다.

“승복바지를 데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샘플제품을 봤는데 직원 반응은 좋았어요. 이를 비롯해 해탈컴퍼니 팬들을 모아 이벤트 등을 열며 커뮤니티로도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신중일 기자

“불교박람회서 만난 감성 굿즈 ‘반달이’ 스님 버전 탄생 배경”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

스님 버전에 국립공원 관심 증가
공단–국민 연결 · 홍보의 새방식
사찰, 국립공원 보전 중요 동반자

2025년 하반기 굿즈계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 이것 사야 돼’라는 감탄을 나오게 한 굿즈. 바로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다.

굿즈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은 국립공원공단의 고유 캐릭터 ‘반달이’를 스님 버전으로 변주한 제품이다. 굿즈의 제작과 판매를 골든베어상사가 맡고 있지만 그 기획은 공단의 ‘생태디자인실’이 중심돼 이뤄졌다. 2025년에 직제가 반영된 신생 부서인 생태디자인실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에 어울리는 시설, 물품, 홍보 디자인을 기획·실현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이영주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 과장은 “국립공원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탐방 예절, 자연보전 메시지, 국립공원 고유의 이야기들을 시각 언어로 풀어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도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하게 됐고 여기서 MZ세대 감성이 반영된 굿즈들을 만났다.

이 과장은 “박람회에서 불교 굿즈들을 보고 국립공원도 이 같은 감성적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문화적 상징성과 감성적 디자인이 함께 담긴 굿즈로서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출시된 굿즈는 소위 대박이 터졌다.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진에 2차 제작 분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불교 이미지가 주는 평온함과 위로의 정서가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굿즈의 성공은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공단의 정책 홍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후기가 공유되면서 국립공원 방문 경험, 자연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 ‘반달 스님’과 ‘반달 동자 스님’ 굿즈의 경우, 구매와 관심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함께 늘고 있다. 굿즈가 매개체가 돼 자연보전·문화유산 보호와 같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친근하게 접하게 만든 사례”라며 “이처럼 굿즈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공단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도구로서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오년에도 ‘붉은 말 반달이’ 굿즈를 기획 중에 있으며, 사찰 문화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담긴 다양한 문화·생태 자산을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콘셉트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립공원다운 디자인을 널리 보급하고, 국립공원 시설과 콘텐츠 전반에서 자연 보전의 의미를 담아 친근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디자인실 임직원들이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 굿즈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 조계종 혜원정사

회주 원허효명
주지 인호진일

혜원정사 사부대중 일동

재)고산장학회
영도구노인복지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재)혜원문화재단
부산영도시니어클럽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사회복지법인 혜원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제구연선서희어린이집

주소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 47(연산4동) 전화 051)866-7771~3, 010-2153-6236 팩스 051)866-7777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사용 최대한 줄이기
비닐 봉지 대신 방수망이나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발우 공양식으로
음식물 덜어 먹고 남기지 않기

미소원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장바구니** 꼭 들고 오세요.
드릴 것 없으면 **"행복"**을
듬뿍 담아 드릴께요^^

사)미소원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실천을 함께 합니다!

동래구불교연합회

회	장	자비암	자관	스님	
부 회	장	진불사	정현	스님	
부 회	장	몽불사	법관	스님	
감	사	금용암	보현	스님	
총무국	장	연화사	지운	스님	
재무국	장	용화사	성화	스님	

회원스님	도림사	정찬	스님	안정사	윤하법사
	명신사	문수	스님	영주암	지훈 스님
	무량사	법천	스님	용수달마사	해운 스님
	무량사	진명	스님	일심정사	지안 스님
	무량정사	법광법사		정각사	법일주교
	무학사	보승	스님	지장사	도현 스님
	관음사	청산	스님	해수관음사	보해 스님
	법륜사	각진	스님	보경사	선산 스님
	보문사	보문	스님	보원사	진법 스님
	보타암	법전	스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자비암
전화 051) 552-3320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문	월천 혜총 대종사	(감로사)
	백설 인수	(보명사)
회장	화산 정현	(가야사)
수석부회장	대우 시광	(보련사)
상임부회장	초해 일관	(보광사)
부회장	정목정사	(정정심인당)
	경록 보원	(불광사)
	무심 법지	(대원사)
	진여	(다보사)
사무총장	해운 도원	(보광사)
감사	태산	(약사정사)
	보원	(보원사)
의전	월화 법봉	(육조사)
회원	석만 도관	(화지사) 월륜 춘제(수궁사)
	안국	(부전선원) 승호 원종(자비사)
	보혜	(보각정사) 송현 대원(대원정사)
	지현	(백련암) 대화(관음사)
	삼해	(칠불암) 보각(보각정사)
	상보	(자비사)



연제구불교연합회

고문	원광(정수사)
	보당(보국사)
회장	법승(화엄사)
부회장	동선(영광사)
사무장	성원(연화사)
감사	혜안(선금사)
이사	법호(정토사)
	희공(봉화사)
	보원(보원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시 연제구 황령산로 524번길 16(화엄사)
☎051)853-1942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증명법사 **혜총대종사 능지스님**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심산스님**

이사장 **차정연**
부이사장 **이석래, 박혜숙, 윤기선, 손순이, 박숙자, 서경남, 윤유점, 이순선, 류경자, 명은애, 최선희, 권 철**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윤기선**
사무국장 **이소정**
사무차장 **임정서, 고순옥**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대 둔**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지 **향 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세계불교 여래종

광 덕 선 원

주지 **법 진**
총무 **금강심**

사부대중 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8803-5660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http://pf.kakao.com/_jUMxln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선 원

경산 **삼 성 사**

주지 **평 중 효 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금강경독송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목요일 다라니108독 용맹기도 오후 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청정기도도량(양정시장 꽃상가 5층)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범어사 방장)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 기도법회 –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18
양정상가5층 여여선원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전화 051)702-9944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덕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능원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법명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주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록경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고 문	홍파스님 (관음종 종정)
이 사 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 이 사 장	인구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향운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사 무 총 장	명안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감 사	자문스님 (보문종 총무부장)
	방 정 자 (여성부 운영위원)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부 회 장	박동희 조경순 남영희
총 무	김민성
재 무	김경수
운 영 위 원	방정자 옥영숙 우정해
	정지연 최진희 조원숙
감 사	김예영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장병주
상임고문	정종원
고 문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허인구 박순곤 박수관
	박영근 김수현 노종헌 최주덕
자문위원	정창교 최영호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안병호
재 무 총 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 목 이 사	박창근
홍보이사	박차수
기 획 이 사	김기호
섭외이사	안경수
대외협력이사	손정현
자문이사	이학우
재 무 이 사	이근욱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상훈 김선일 김성규 김종한
	박효근 배도정
회 원	강석진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이경칠
	이권주 이성원 이오식 이윤희 이정출 이헌호
	조보익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최대동 오세룡
	이동현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 장	여산정여 대종사
수석부회장	정오스님 용암스님
상임이사	원광스님
총무이사	석산스님
이 사	심산스님 고담스님 명현스님
	성문스님 법열스님 보혜스님
감 사	박용하 선근우(공인회계사)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마의 장애를 굴복시키는 위엄
모든 중생을 향한 빠른 자비
마두관음과 함께 자비로 시작하는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청심사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14-8
051)315-7282 / 010-9788-5077

에서 '밝은마음 TV'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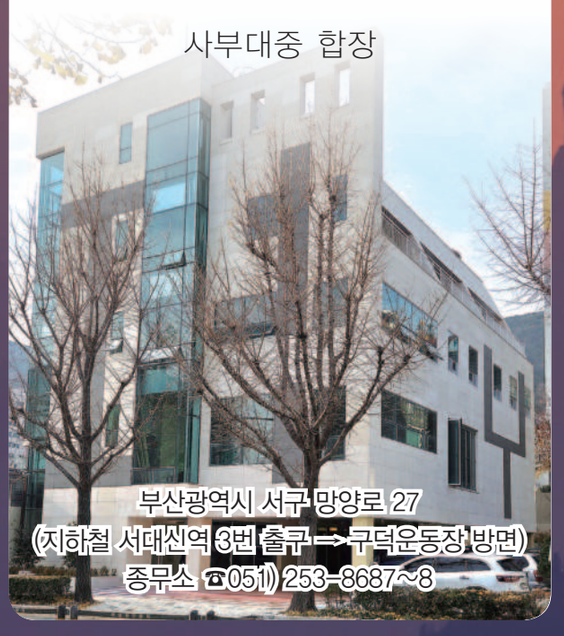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마음 편한 절 **미타선원**

행복선(禪)명상학교

선원장 **하 림**

사부대중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7
(지하철 서대신역 3번 출구→구덕운동장 방면)
종무소 ☎051) 253-8687~8

황 룡 사

주 지 寶慧 보혜
원 주 慈悟 자오
회 장 김종구
사무총장 정봉규

対馬市 上対馬町泉 1460-1
대마도시 카미쓰시마마치 이즈미 1460-1
H.P 010-3704-1681
E-mail ghgo5991@daum.net





백양산 선 광 사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무 이은영 사무국장 이미희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123 (덕포동)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부산 무형문화유산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이 사 장	성림스님
작법무보유자	경호스님
법 인 이 사	혜철스님, 단공스님,
	해진스님, 종민스님
	주원스님, 지오스님,
	혜명스님
감 사	수남스님, 도법스님

이수자 및 전수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0번나길 80-42
☎ 051)327-5095

달빛이 온치를 더하는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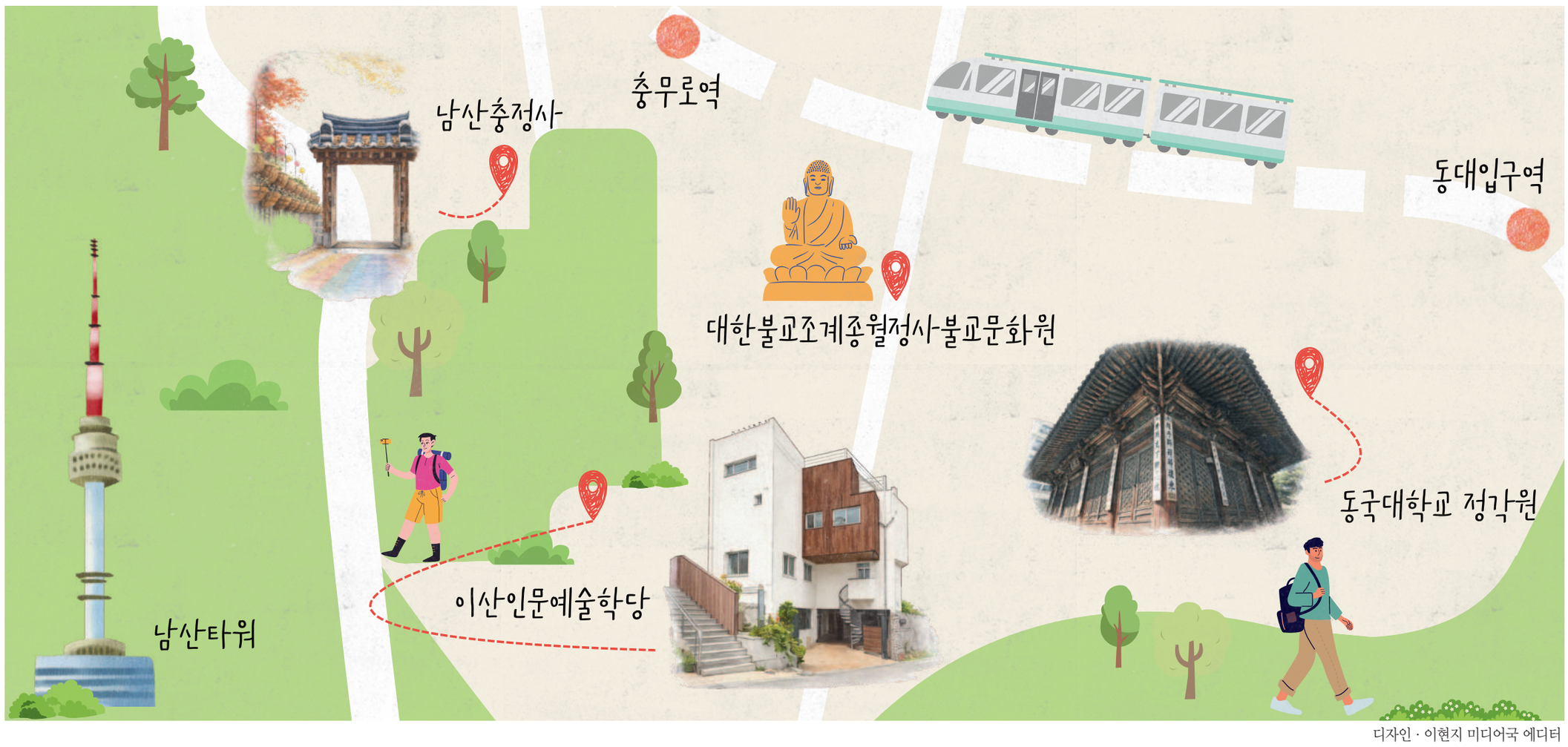
만월산 현 덕 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디자인 · 이현지 미디어국 에디터

빌딩 숲 사이, 가장 조용한 수행 지도가 펼쳐진다

〈地圖〉

B is Hip! B - Spot 서울 중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머릿속 불교는 늘 산에 있었다. 사찰은 깊은 숲에 있고, 수행은 일상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불교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출근길 동선 위에 있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으며, 강연장이자 문화 공간의 얼굴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

서울의 심장부, 중구(中區)는 그 변화가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다. 금융과 행정,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 도심 한가운데 뜻밖에도 포교당, 대학 법당, 작은 도심 사찰, 인문예술 공간들이 곳곳에 모여 있다. 중구 길을 걷다 보면 소음은 어느새 배경음악이 되고 마음의 소리가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역사의 굴곡이 빚어낸 '불교의 요람'

서울 중구에 불교 관련 기관이 밀집한 현상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극복의 서사가 녹아 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가 민족 교육을 위해 세운 동국대가 남산 자락인 필동에 자리 잡으며 학술적·문화적 구심점이 됐다. 근현대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서울의 중심으로 온 것이다. 조선 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도성 안팎을 연결하던 중구 일대는 근대 불교의 부활과 함께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됐다.

배움의 법당, 동국대 정각원

가장 먼저 발길이 닿는 곳은 남산 품에 안긴 동국대 정각원(正覺院)이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 부속 법당이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동국 가족의 신앙심 증장과 다양한 신행활동을 돕고, 펼치게 하는 불교 중흥과 전법 포교의 중심도량이다.

캠퍼스의 젊은 활기와 법당의 묵직한 공기가 섞여 묘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각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각원 앞 마당에서는 스님과 학생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시험 기간에는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잠시 들러 마음을 가라앉힌다. 법회가 없는 날에도 법당에는 늘 사람이 있다. 스마트폰을 끄고, 이어폰을 빼고, 잠시 멈춘다. 묵언으로 앉아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인근 주민들까지. 정각원은 종교 시설이면서 동시에 도심 속 공공 명상 공간으로 기능한다.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02-2260-3016

도심 속 분명한 존재감, 남산충정사

필동 골목으로 들어서면 규모는 작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지닌 남산충정사(忠正寺)를 만난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주택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충정사는 마치 시간을 붙들고 있는 듯하다. 충정사는 대형 사찰과는 다른 결을 지닌다. 눈에 띄는 탑도, 화려한 전각도 없다. 대신 이곳에는 익숙함이 있다.

신도 대부분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로, 사찰은 자연스럽게 동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낸 직장인들이 향 냄새를 맡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가는 은신처 같은 곳이기도 하다. 도심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생활 불교'의 현장이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충정사의 충(忠)은 중심 또는 충무로(忠武路)라는 의미가 있으며 호국충절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한다.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6. 02-2279-5538

사유 깊이 더하는 이산인문예술학당

불교는 종교이지만 거대한 철학이자 예술이기도 하다. 충무로 인근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이산인문예술학당은 전통적인 사찰이나 법당의 형식과는 다르다. 법문 대신 강연이 열리고, 시와 음악, 철학과 불교가 자연스럽게 섞인다.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인 인문학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으로, 불교는 이곳에서 종교라기보다 사유의 토대로 기능한다. 수행과 명상, 불교철학이 현대 인문 담론과 만나며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 이곳에서 열리는 강좌나 명상 프로그램은 종교적 장벽을 허문다.

참가자들은 스님뿐 아니라 학자, 예술가, 시민들이다. 학당을 찾는 이들의 얼굴엔 진지한 탐구심이 서려 있다. 텍스트로만 접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고독과 맞닿아 위로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산인문예술학당은 중구 불교 공간이 단순히 신행의 장을 넘어, 지적·문화적 교류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 중구 퇴계로36나길 18 한옥마을 뒤뜨레 1층. 02-2275-0108

오대산이 도심으로…월정사불교문화원

마지막 발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불교문화원으로 향한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전나무 숲길을 걸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월정사의 정신이 서울의 중심부로 옮겨 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심 포교 전진기지'. 소박한 법당에 출근 전 잠시 들러 합장하는 이들, 점심시간을 쪼개 명상에 참여하는 직장인들, 퇴근 후 법문을 듣는 중년 신도들이 모여든다.

수행 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통창 너머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자.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득해진다. '도심 속의 산사'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서울 중구 필동로 32 5층. 0507-1380-8701

중구의 불교 스폿을 잇는 이 길은 단순한 순례길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소음의 바다에서 나만의 '부표'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쁘게 뛰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숨 가쁘게 살아가는가? 중구의 낡은 골목과 불교 공간을 오가며 던지는 이 질문들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새해에는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중구를 걸어보면 어떨까? 정각원의 고목 아래서 바람 소리를 듣고, 문화원에서 차 향기에 취하며, 학당에서 지혜의 문장을 찾아 보자. 빽빽한 빌딩 숲 사이,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빈 공간이 그곳에 오롯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 장 우 봉

– 임원 · 회원 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전국사찰노래자랑, 산사음악회, 포교사업, 불자연예인 발굴을 위한 예체능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봉사활동(사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원), 어르신을 위한 잔치 등 불교대중화와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8호
☎ (02)725-0108 FAX (02)734-0779 / 010-3573-0108

수행 마당서 치유 정원으로…사찰 정원, 마음 가꾸다

B is Hip! B-Spot 전국 사찰 정원과 둘레길

명상과 공공성 품은 사찰 정원
'보여 주는 정원'서 '머무는 정원'
시민에 휴식 · 정서 회복 제공
자연 · 수행 · 지역 잇는 공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찰의 마당과 숲, 계곡은 오랫동안 수행의 일부였다. 불자들에게는 참선과 예불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스님들에게는 하루의 노동과 수행이 겹치는 생활 공간이었다.

최근 들어 사찰의 마당과 숲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명상과 치유, 생태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 공간이 지닌 잠재력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 풍경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심으로, 인공적 장식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사찰정원 어디있을까?

• 포항 원법사 명상정원 –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 명상정원은 160여 개 민간정원 가운데 최초로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되면서 일반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 명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비학산과 용연지 자연 환경 속에 20만여 그루의 수목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관을 만들어내며, 연못·석물 등 전통적 요소가 자연과 어우러진다. 무엇보다 도심과 떨어진 조용한 입지에 위치한 이 명상정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정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전통불교문화와 생태·경관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공간 모델로, 앞으로 다른 사찰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포항 원법사 명상정원.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이다.

• 청주 마야사 마야정원 – 사찰과 정원 함께하는 힐링 공간

2025년 6월 충북 민간정원 16호로 등록된 청주 마야사(주지 현진 스님) 마야정원은 단정하고 아늑한 사찰 공간과 잔디마당, 카페 정원이 어우러진 곳이다. 전통적인 사찰 공간뿐 아니라 정원과 휴식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방문객에게 여유와 성찰의 감각을 제공한다. 특히 사찰 옆에 조성된 카페와 정원은 지역 주민과 여행객의 발길을 끌며 정원 문화와 사찰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다. 마야사는 비교적 신흥 사찰이지만, 정원의 존재가 사찰을 더욱 친근하고 열린 공간으로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찰 정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늦여름에 피는 목수국(라임라이트)는 마야정원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 산청 수선사 –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사찰 정원

산청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수선사(주지 여경 스님)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기관협의회에서 선정한 언택트 관광 100선에도 포함될 정도로 공식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산청 수선사 정원. 관광 100선에 포함됐다.

계곡과 숲,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분위기와 더불어 연꽃·수국 등 계절 꽃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사찰 주변 풍경과 자연 지형을 살린 정원은 '정원과 수행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전통적 사찰 정원의 면모를 보여준다. 잔디 마당과 수목,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이곳은 사찰이 지역 공동체의 쉼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정원과 연못을 거닐며 자연을 느끼고 수행적 성찰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눈여겨볼 사찰 정원

- 담양 용흥사 – 걷는 수행 공간
- 순천 송광사 – 수행림으로서의 정원
- 강화 전등사 – 역사와 풍경이 어우러진 공간
- 고창 선운사 – 동백숲과 계곡의 결합

걷고, 쉬고, 사색해 볼까?

서울둘레길은 총연장 157km에 이르는 도시 순환형 도보길이다. 북한산 · 관악산 · 수락산 · 아차산 등 산줄기와 한강 · 중랑천 · 안양천을 따라 8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순례길이나 종교길은 아니지만 코스 특성상 곳곳에서 사찰과 마주한다. 시민들에게 쉼과 사색의 공간이 되고 있는 도심 속 사찰들을 만나보자. 〈편집자 주〉



디자인 · 이현지

수락 · 불암산서 시작되는 북부 구간

1코스 수락 · 불암산 코스(도봉산역~화랑대역)는 서울 북부 산악 지대를 통과한다. 이 구간에서는 수락산 자락의 학림사와 불암산의 불암사가 대표적인 사찰로 꼽힌다.

불암사는 코스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불암산 구간을 대표하는 전통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어지는 2코스 용마·아차산 코스(화랑대역~광나루역)에서는 영화사가 눈에 띈다. 아차산 자락에 자리한 영화사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로, 둘레길 인근 사찰 가운데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도심과 맞닿은 남부 구간

4코스 대모 · 우면산 코스(수서역~사당역)에서는 우면산 자락에 대성사가 위치해 있다. 대성사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비교적 고요한 산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5코스 관악산 코스(사당역~석수역)는 서울 남부에서 사찰 밀도가 높은 구간으로 꼽힌다. 관악산 정상 인근의 연주암을 비롯해 관음사, 자하암 등 여러 암자들은 관악산 구간을 상징하는 수행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천 구간 지나 다시 산사로

7코스 봉산 · 앵봉산 코스(당산역~구파발역) 중 북한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흥국사는 조선 왕실과의 인연으로도 알려진 사찰로, 둘레길 인근에서 접근이 가능해 많은 산악인들이 들르는 공간이다.

북한산 구간, 사찰 밀도 가장 높아

8코스 북한산 코스(구파발역~도봉산역)는 서울둘레길 가운데 사찰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꼽힌다. 화계사가 대표적인 사찰로, 외국인과 청년층 방문도 잦다.

또 호국참회 기도도량 도선사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북한산 코스는 사찰뿐 아니라 암자와 수행 공간이 밀집해 있다. 서울둘레길 전체에서 불교 문화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지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임은호 기자

전국 지역별 순례길

출처=조계종

구분	지역	관련 사찰	순례길명	소 개
서울	–	조계사 봉은사	허응당 보우의 길	조계사에서 봉은사까지, 세계인이 바라보는 도시 서울을 가로지르는 순례길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남양주 우리말 역경 큰 법당 가는 길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며, 저벅저벅 걸어보는 신비의 길.
강원	강릉	용연사	강릉 연화낭자의 길	바다, 숲, 바람이 전설이 된 곳. 순례자를 기다리는 감동의 옛길.
		보현사 인월사	강릉 해맞이길	신비로운 설화를 품은 천년 고찰들과 강릉의 명승지이자 장엄한 일출이 펼쳐지는 바닷길.
강원	원주	국형사 충렬사 구룡사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	산문(山門)을 넘는 순간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공기가 영혼을 깨우고, 치악산 둘레 따라 영원을 잇는 사유의 길.
충북	보은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법이 머무는 길	천년고찰의 향취를 따라 신록이 우거진 길.
충남	공주	마곡사	공주 바람의 길	태화산 솔바람 타고 떠나는 순례길.
	예산	수덕사	예산 경허 만공의 길	바람처럼 가볍게 대숲처럼 오롯이 한국불교 간화선의 정통을 지킨 두 큰 스님, 만공 · 경허 스님의 발자취 따라 걷는 푸른 길.
	서산	보원사 개심사	서산 백제미소의 길	숲이 사람을 품고 노을빛 미소가 어둠을 밝히는 땅. 서산마애삼존불의 미소 따라 백제불교를 찾아 떠나는 길.
전남	해남	대흥사	해남 대흥사 호국과 다도의 길	행복을 찾는 길, 나아가 나 자신을 구하는 길.
	장성	백양사	장성 참사람의 길	자연과 사람, 역사와 전설이 살아있는 선지식의 요람을 찾아서.
	구례	화엄사	화엄사 어머니의 길	가족 · 연인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길, 신심을 높이는 순례길.
		천은사	천은사 상생의 길	소나무와 참나무, 대나무 숲에서 느끼는 문화와 자연, 사람 간의 조화 그리고 상생.
부산	–	해월정사 해동용궁사 해광사	부산 해수관음의 길	바다와 관음보살이 지키는 순례자의 길, 아름다운 자연과 사찰과 만날 수 있는 해안 산책로.
경북	김천	직지사	황악산 직지사 사명대사 명상길	절개 있는 소나무가 어우러진 정갈하고 운치 있는 산책길.
	영천	은해사	영천 팔공산 은빛 둘레길	팔공산 자락에서 은빛 바다를 보며 걷는 길.
	경주	불국사	경주 천년미소길	고대 왕국에서부터 영겁의 시간을 거슬러 이어지는 길.
경남	양산	통도사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	바람이 춤추고 찬솔이 맞이하는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 소리길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해인사, 시름 떨치는 정겨운 소리길.
	창원	진불선원 불지사	창원 용지호수의 길	마음을 치유하는 용지문화공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심 속 힐링의 길.
제주	–	관음사 약천사 불탑사	제주 관음순례길	아름다운 자연, 푸른 섬 제주,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관음순례길.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삶을 회복하는 상담"

MDP
MIND DETOX PROGRAM
貪·瞋·痴
탐 진 치
기초 및 지도자 과정



수행과 상담이 만나는 마음치유연구교육단체

한국불교상담학회는 불교의 지혜와 현대 상담심리를 결합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마음 회복을 돕는 마음치유연구교육단체입니다.

마음해독 프로그램(MDP)은
탐 · 진 · 치(탐욕 · 분노 · 무지)를 자각하고
일상 속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불교 기반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오프라인 대면 과정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온라인 과정은 일반인 대상 명상·자기성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주관 : 한국불교상담학회 과정 : 마음해독 프로그램(MDP)·지도자과정
대상 : 스님·상담가·치유활동가·일반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bca0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bodhigold13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bca_08/
문 의 : 010-3465-7107 / kbca08@daum.net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도심 속 진리의 숲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주지 우현 광우

- 사부대중 일동 -



● 비로선원 불사 중

포교

대자유치원 운영
1927년 설립 후 7,395명이 졸업했으며
188명의 원아가 재원 중입니다.

보현의 집(무료급식소)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과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불교학생회, 경남경찰청 법우회, 지역군부대

교육

영축불교대학
불교공부를 돕는 재가신도 교육기관으로
입문,전공,경전반,어록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법어린이문수회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2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기법회마다 1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수선음어린이합창단
2023년 창단하여 매주 전문 지휘자와 함께
어울림의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행활동

정법사신도회,영축다도회,본다리카합창단,
정법 불교거사림,영축불교대학총동문회,연심회,
문수선음자모회 등의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보현부,여명회,초하루부,초삼일부,보름부,지장부, 관음부
등의 불사단체가 불사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www.jungbupsa.or.kr Tel. 055-246-8393

정법사 홈페이지 유튜브채널 정법사 TV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호국도량

울산 **신흥사**

주 지 **인경**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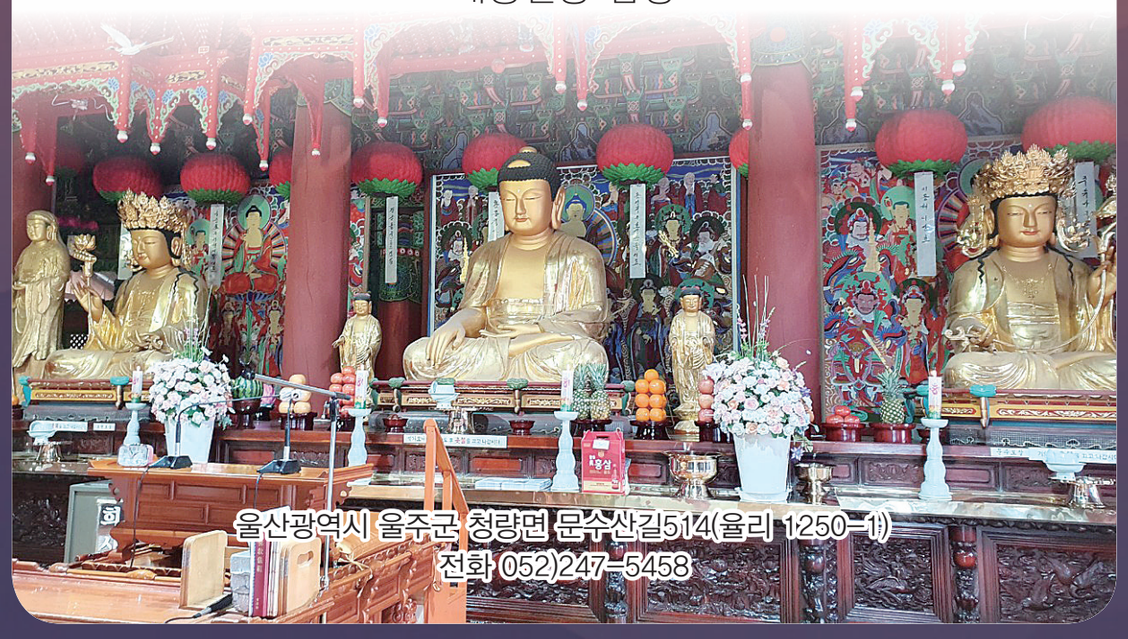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문수사**

대중일동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길514(율리 1250-1)
전화 052)247-5458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 지 **진각**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회 주 **눌암 지정**
주 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055)862-6500, 611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 남 사**

사부대중 일동

금강경 독송 정진기도
매월 첫째주 월, 화, 수요일
장소 : 보광당 19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스님

사부대중 합장

누구나 같은 차원으로 마음을 쓰는게 아니니 미워하지 말고
다둥글려서 자기 근본에 놓으면 상대도 밝아진다.
– 대행선사 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 남 사**

주 지 **천 조**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전화 052)264-8900 팩스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 야 사**

주 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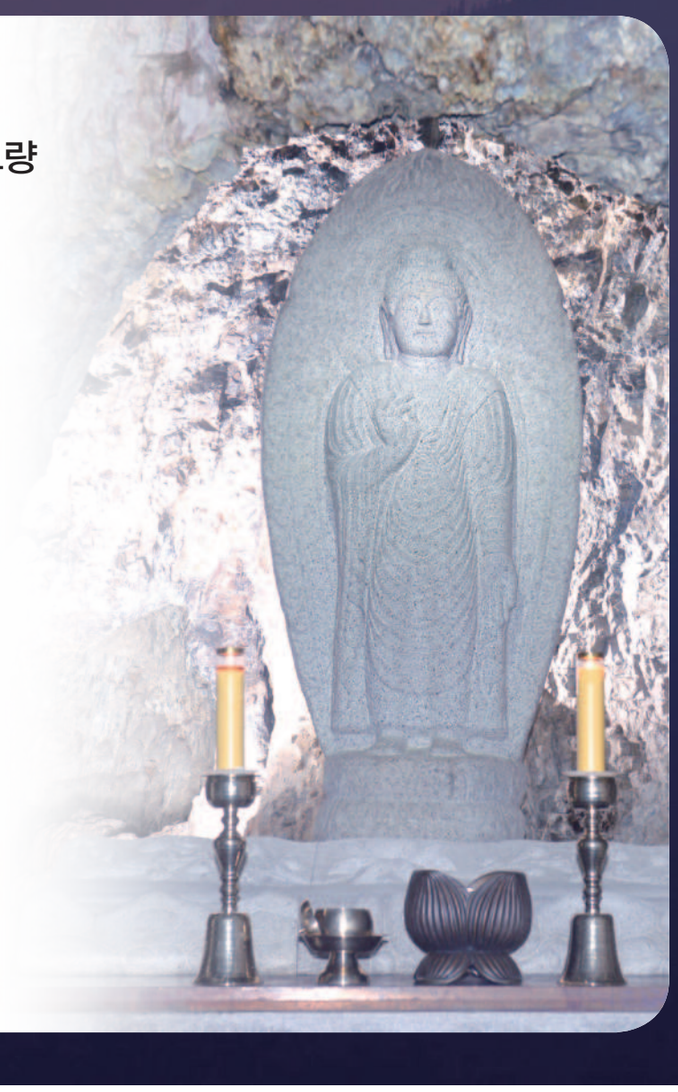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 타 암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B is Hip!

B - Spot
템플스테이



내소사 '1템 3사' 템플스테이 모습.
사진=내소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낙산사의 명물 '서핑 템플스테이' 기념촬영.
사진=낙산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서핑·컬링·삼사순례…템플스테이는 진화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제는 어엿한 스물 셋 청년이 된 템플스테이는 이웃종교 청년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약 62만명을 기록해 당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재 158개 사찰에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는 시대 트렌드에 맞게 변주를 주며 진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포츠·순례 등을 접목한 이색 템플스테이들이다.

여름엔 서핑, 겨울엔 컬링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의 경우 지역적 특색을 살려 2024년 여름 서핑 템플스테이를 시작해 화제가 됐다. 2025년 겨울부터는 동계스포츠인 컬링을 템플스테이에 접목했다. 이는 모두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22년 낙산사로 부임한 선일 스님은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을 맡아 동계캠프를 진행하며 컬링 체험을 했는데 컬링이 불교의 선(禪)과 맞닿아 있음을 알았다. 이듬해 여름에는 청소년·대학생 캠프에서 서핑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이 역시 호응이 높았다. 여기에 간화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파도명상'을 개발해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선일 스님은 "서핑과 컬링 모두 순간순간 집중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불교의 선과 맞닿아 있다"면서 "청소년·대학생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일반인 템플스테이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MZ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레포츠와 접목된 템플스테이와 파도명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낙산사는 서핑, 컬링에 이어 패들보트 템플스테이와 지역 연계 관광 템플스테이도 계획 중이다. 선일 스님은 "속초에는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이와 연계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여름에는 서핑 템플스테이를 확장해 노을을 보면서 패들보트에서 명상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템+3사' 갓성비 템플스테이

진화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곳 중 하나로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를 빼놓을 수 없다.

내소사는 2025년 10월부터 '1템3사'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2박 3일 동안 전북의 천년고찰인 내소사, 개암사, 선운사(+도솔암)을 순례하며 불교문화유산과 자연풍광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불교 전통 신행문화인 '삼사순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진각 스님은 "내소사에 와서 보니까 사찰 설명이 20분이 넘지 않았다. 내소사를 비롯해 주위 개암사, 선운사 안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겼는데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아쉬웠다"면서 "1템3사 템플스테이를 시작하며 새로운 자료집을 제작했다. 사찰 문화유산과 자연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호응도 좋다"고 설명했다.



낙산사의 바람에 이는 파도 '치유' 템플스테이.
사진=낙산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MZ세대 버킷리스트 꼽혀 '인기'
이색 콜라보로 시대 트렌드 접목
회원제 도입, 팬심 만들기 시도
신행 전통 '본질' 지키며 변화

내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템플스테이 회원제 '소래사:랑'을 도입했다. 템플스테이 회원제를 도입한 사찰은 내소사가 최초다. 회원은 △일반회원 △가피회원 △참선회원으로 나뉘며 회원들에게는 △내소사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프로그램 10~30% 할인 △회원 전용·우선·할인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진각 스님은 "내소사의 원래 사찰명이 '소래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제 명칭이 생겼다"면서 "부안 지역이 서울 등 도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접근성이 부족해 재방문율이 낮은편이다. 많은 분들이 다시 내소사와 부안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시기별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회원들에게 다채로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라며 "현재 회원제가 도입된 지 약 4~5개월 정도 지났는데 60명 정도 참여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300명 정도만 모집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특전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에 바탕한 '특색' 프로그램

소개한 낙산사와 내소사의 템플스테이는 '특색' 속에서도 '전통'에 바탕하고 있다. 내소사의 경우 '새벽예불'이 필수 참석이다. 이는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주지 재안 스님의 방침이다.

진각 스님은 "향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도 사람에 따라 108배, 300배, 500배, 1000배를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절 수행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산사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스마트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일정 간 모든 디지털 기기는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프로그램 중간도 스마트폰 확인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제대로 된 쉼을 제공하겠다는 게 선일 스님의 선명이다.

또한 낙산사는 설악 무산 대종사의 시조 작품명에 기인한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을 운영하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선명상을 비롯한 요가형 108배, 음식 명상, 마음연꽃등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선일 스님은 "대종사의 사상을 확장시켜 템플스테이에 녹여 내려 했다. 가장 기본은 2박 3일 일정의 '아득한 성자' 템플스테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자신을 멈추고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살펴보면 조금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담양 용흥사, 강릉 보현사, 영월 만경산사 등에서 지역연계형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주로 지역 명소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체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조금은 길게 사찰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다면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형 장기 치유 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구례 천은사, 완도 신흥사, 화순 쌍봉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형' 템플스테이도 만나볼 수 있다. 템플스테이 일정을 마치고 2시간가량 숙소 정리 및 청소, 세탁 등의 봉사부터 10일 이상 장기 자원봉사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봉사를 하는 만큼 템플스테이 참가비용은 대부분 무료다.



새해에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더 밝은 마음으로 희망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 지 보산 현도

대길상공덕회

고양 길상사 대중 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36번지 전화 031-966-9852



사찰음식, ‘트렌드’를 입다

B is Hip! B-Spot 사찰음식점

전국 곳곳에는 사찰의 깊은 맛과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사찰음식 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조계종에서 공식 인증한 곳부터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곳까지 대표적인 사찰음식 및 채식 전문점을 만나보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찰음식계의 ‘에르메스’

“조계종이 각 잡고 운영한다?!?”
격식과 맛, 비주얼까지 완벽하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며 사찰음식의 정석을 보여주는 곳이다. ‘선식’ ‘원식’ ‘마음식’ ‘희식’ 등 수행의 의미를 담아 계절별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 ‘철학이 담긴’ 코스 요리를 만나볼 수 있다.
사찰음식은 심심하다? 놉! “재료 본연의 맛이 이렇게 화려했어?”라며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미쉐린 가이드 선정 맛집으로 사찰의 전통 조리법을 현대적 공간에서 고급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02-733-2081



인사동 속 비밀 정원

“여기가 식당이야, 숲이야?” 문을 열자마자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비주얼!
인사동 터줏대감으로 숲속에 들어온 듯한 인테리어와 풍성한 나물 밥상이 매력적인 곳이다. 각종 산나물, 튀각, 찌개, 전, 연잎밥 등 20여 가지 찬으로 구성된 산촌 정식이 가장 인기 메뉴다.
세계 유명 매체 ‘뉴욕 타임스’에 소개될 만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면 “Oh, Amazing Korea!”를 연발하게 만드는 비주얼 깡패 플레이팅이 눈길을 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0-13. 02-735-0312



채식 요리의 무한 변신

완전 채식(Vegan)을 지향하는 이곳은 유제품이나 계란도 쓰지 않는 메뉴가 많아 전 세계 채식주의자들이 서울 오면 꼭 들르는 ‘글로벌 핫플’이다. 건강한 한끼를 원하는 이들에게 ‘채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있다.
메뉴판이 거의 백과사전 수준! 한식, 중식, 양식을 넘나드는 엄청난 종류의 채식 메뉴가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식당 한쪽에서는 채식 라면이나 간식 같은 식재료도 팔고 있어 쇼핑 재미도 쏠쏠하다. 매콤 구이(콩고기)덮밥, 불구이 쌈밥, 채식 짬뽕, 들깨 칼국수가 주력 메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12길 14-5. 02-735-7171



경주서 만나는 힐링 한 상

경주 여행의 완성은 연잎밥! 불국사 가기 전 무조건 들려야 할 코스다. 혜연 스님이 운영하는 향적원은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공양간’이라는 뜻처럼 정갈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향기 솔솔 ‘연잎밥’에서 초딩 입맛도 저격하는 ‘콩가스’까지. 파 마늘 등 오신채를 쓰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특히 아이들도 좋아하는 콩까스 메뉴가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다. 한옥 인테리어로 ‘인생샷’과 ‘인생 건강식’ 둘다 챙길 수 있다.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무슬림 친화음식인 ‘할랄 푸드’ 인증점이기도 하다.
경주시 불국로 131. 054-775-0014



가성비로 ‘뿌셨다’

단돈 8000원에 40가지 요리를?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위치해 등산객들이 찾아들면서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찰음식점이다. 뷔페식으로 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사찰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각종 쌈채소, 죽, 나물, 전, 잡채 등 30~40여 종의 반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따뜻한 전통차와 직접 구운 떡 등은 식사의 마무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연중무휴지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만 운영한다.
광주시 동구 동산길 7번길 3. 062-222-1145



고기 없는 중화요리?

“중국집인데 고기도, 오신채도 없다! 그런데 맛있다?!”
버섯과 콩단백으로 맛을 낸 사찰 짜장면은 한 입 먹으면 “아니, 왜 고기 맛이 나지?” 싶을 정도로 감칠맛이 폭발한다. 사찰 짬뽕은 양파와 파 없이 채수로만 맛을 내서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하다. 탕수육이 아닌, 탕수이는 버섯과 채소를 튀겨내 ‘겉바속촉’의 정석이다.
사장이 사찰음식 대가인 대안 스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레시피로 요리한다. 먹고 나서도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산뜻 그 자체! ”스님들도 마음 놓고 공양할 수 있는 ‘찐’ 사찰식 중화요리다.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3. 054-373-1569

외국인도 Z세대도 사찰음식에 빠지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았다. 상·하반기 합쳐 총 9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최다 인원이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이 공인한 유일한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나 사찰음식 특화사찰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는 서수연 조리기능장도 있다.
대전 영선사에서 법송 스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운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연주의 음식이 트렌드인데 학교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면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몸을 이롭게 하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한식의 맥을 이어간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2025년 12월 17일 일본 후쿠오카 방송국 ‘RKB’에서는 해인사 법기암 대훈 스님의 사찰음식을 소개했다.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 고로 역의 마츠시게 유타카 씨가 직접 리포터로 참여해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대훈 스님의 송이버섯밥, 깻잎만두, 물김치 등을 마주한 마츠시게 씨는 “눈으로도 영양이 들어오는 느낌”이라며 “이전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맛”이라고 극찬했다.

2025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91명 배출해…역대 최대 규모
지속가능한 식문화로 주목↑
착한 소비 지향 Z세대 ‘호응’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수행식을 넘어 국내 셰프, 전문조리사부터 일반 대중까지 선호하는 식문화가 됐다. 문화사업단이 지난해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는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사전등록자 기준 57%가 20~30대여서 사찰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가 뚜렷했다.
이는 ‘가치 소비’ ‘착한 소비’로 대표되는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불살생·절제·생명존중 등의 철학이 담긴 사찰음식이 잘 맞물린다는 증거다. 불살생·절제·생명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행의 식문화라는 ‘가치 서사’가 담긴 사찰음식은 ‘미닝아웃(신념 기반 소비)’과 맞물리며, 젊은 층에게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한 끼”로 해석되고 있다.
기후 위기 등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사찰음식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파올로 코르보(Paolo Corvo)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교수는 “지역에서 재배한 음식을 조리하는 사찰음식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본질이며 진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좋은 음식’을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사찰음식은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찰음식의 인기는 ‘채식’이나 ‘힐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2026년 사찰음식은 진정성을 검증받은 문화유산, 나와 사회를 함께 살피는 착한소비의 플랫폼이자 지속가능한 식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울산 백양사



사)태화문화복합공간 대표이사장
백양사 주지
묵암 지선 합장

사부대중 일동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현재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아아트 상영 중

홈페이지 http://www.bysa.or.kr
YouTube 울산 백양사 검색
Ch 카톡에서 울산 백양사 채널 추가하세요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함월산 백양사.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7 / 052-243-8712 / 245-8712
백양사 유투브 YOUTUBE 울산 백양사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봉명산 다솔사

1500년고찰

주 지 무관 스님

사부대중 일동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417
전화:055-853-0283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해인사말사

진주 호국사

주 지 학암 스님

신도회 일동

170년만에 호국사로 돌아오신 나반존자 천일 특별기도
입재 2026년 **1**월 **1**일 (음 11. 13) **회향** 2028년 **9**월 **27**일(음 8.25)
접수문의 : 호국사 종무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71(진주성내 호국사)
전화 055-741-4394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감 원 성 법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전화 055)932-7308



응공조계종

종 정 법운
총 무 원 장 명진

총 무 부 장 지암 교육원장 경담
재 무 부 장 민공 감찰부장 경봉
비구니원장 혜진 사서실장 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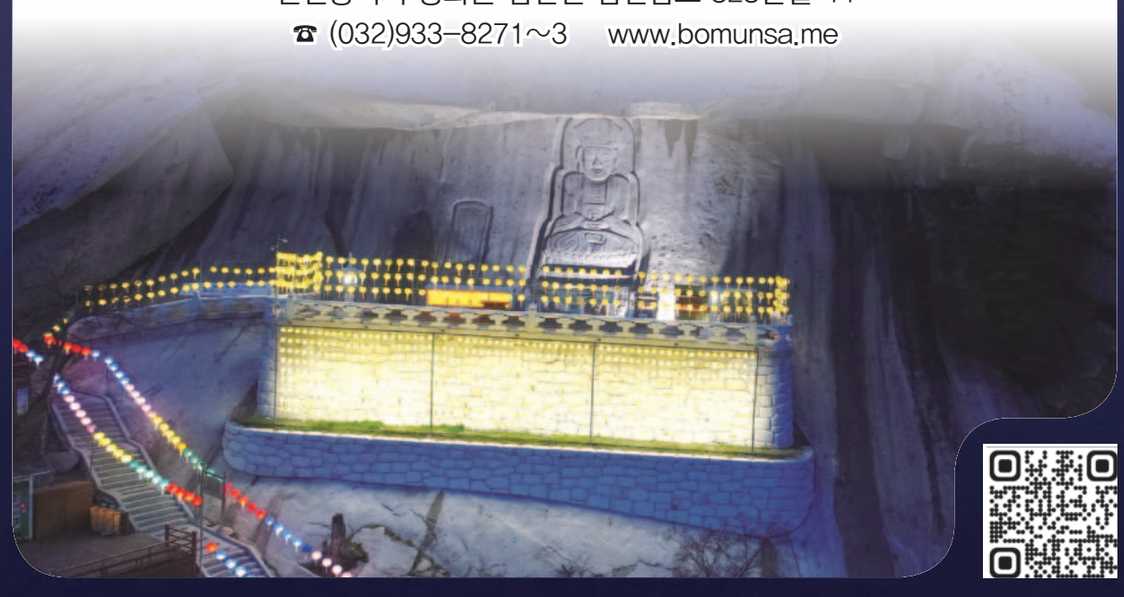
주소: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동명사
전화:054-974-2605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3 www.bomunsa.me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경천 법연지**

감 사 **대성 안도**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호 서호**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원로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사회부장 **용화 해월**
교육부장 **법타**
총무국장 **무화 무경**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웅 정관

총무원 : 경남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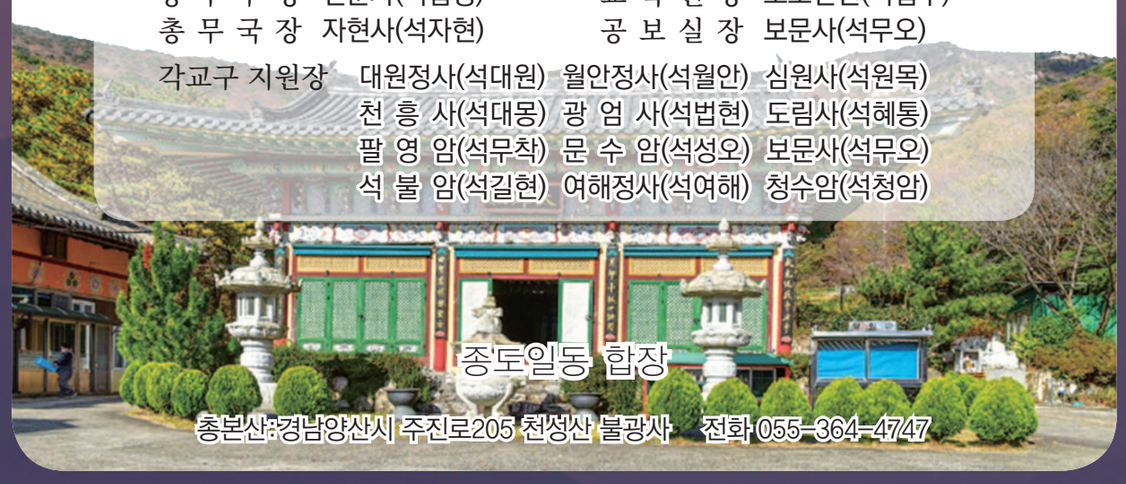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종정애경원장 홍반야행 사서실장 최희유)

최고고문 무량사(석홍섭)
원로회장 약사암(석수오)
원로의원 천흥사(석대몽)
총무원장 천운사(석법경)
총무부장 천운사(석법성)
총무국장 자현사(석자현)

승정원장 수불사(석원명)
기획원장 반야원(석지광)
호법원장 여래사(석원명)
감찰원장 무량사(석법진)
교육원장 소소선원(석법주)
공보실장 보문사(석무오)

각교구 지원장 대원정사(석대원) 월안정사(석월안) 심원사(석원목)
천 흥 사(석대몽) 광 엄 사(석법현) 도림사(석혜통)
팔 영 암(석무착) 문 수 암(석성오) 보문사(석무오)
석 불 암(석길현) 여해정사(석여해) 청수암(석청암)



종도일동 합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 불·법·승 ◈
문관부 제66호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월봉**
감찰원장 **진성**
포교원장 **법진**
종회의장 **지홍**
총무원장 **법장**
사무총장 **평산**
원로부원장 **정공. 정민**
교육원장 **덕일**
종회부의장 **법융**
각부원장 **용현. 종욱. 진각**

중앙종회의원 **월봉 지홍 법장 법융 진성 덕일 법성 평산 법륜 무공 종욱 법진 지일 도능 법정 용현 선묵 도관 도연 천보 도오 도율 무상 (法人이사)**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선묵	문화부장	도능
총무국장	상묵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기획국장	청붕
총무과장	만주	사서국장	도율	규정국장	대연	사 무 장	신연화성

학 인 모 집
불교경전 의식(선교학 · 범패 · 어산 · 바라 · 작법무)
대한불교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 · 염불원

■ **총 무 원**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팩스 070)7966-2830
■ **중앙종회** 부산시 금정구 반송로 440-9 전화 051)524-893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께 가는 길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동자비원원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산자비원원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감찰원장 **동암 원효**
문화원장 **덕일 금산**
고시원장 **도진 동영**
사회원장 **덕진 도광**
기획실장 **대비**
사서실장 **동판**
총무부장 **동봉 태공**
복지원장 **동법 혜조**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 회 **의장**
사무국장 **동석 우석**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 · P : 010-3595-6522, 010-8939-6522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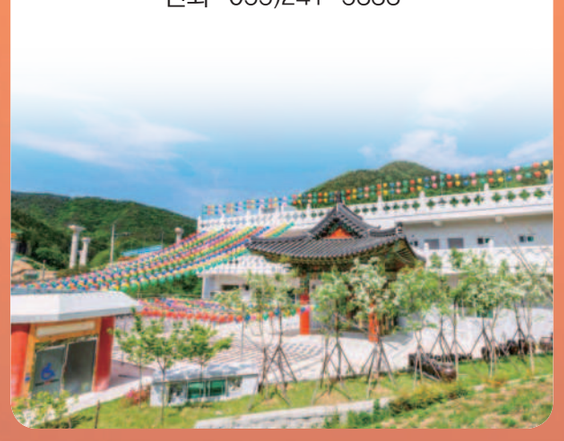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 원 사

주 지 **지태**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 인 사

주 지 **원행** 스님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 룡 사

주 지 **무성**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
(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보문 지암**

사 무 장 **공덕행** 정토회장 **자현선**
관음회장 **보광명** 관음총무 **대명지**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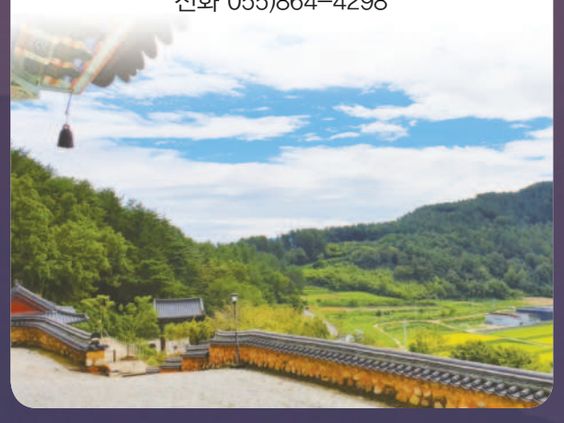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사 말사

남해 제석산 낙 가 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당넘로 82번길 14-16
전화 055)864-4298



사)대한불교승가종

복 천 암

주 지 **삼화 무착**

신도회 일동

경남 양산시 동면 영천2길 21-19
전화 055)372-3555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 원 사

주 지 **태여 덕원** 스님

신도회 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연 화 사

주 지 **혜진** 스님

신도회 일동

경남 김해시 구지로180번길23-1
(동상동874-5)
전화 055-336-3046



대한불교원효종

울산 삼 광 사

지 광 합장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569-20
전화 052-225-1815



(사)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원 일동

울산시 중구 백양로 62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지하1층)
전화:052-271-1310
팩스: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말사

천년고찰 전단산 우 곡 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459
전화 (055)291-3100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용 화 사

신도회 일동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4~1/3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언화	덕조	조계종출판사
2	명상 마음치유의 길	정운스님	참글세상
3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김명우	장경각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6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7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8	AWAKENING(깨달음 내눈 뜨기)	VEN. POMNYUN SUNIM	정토
9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사토시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궁금하세요 우리절집	고연희 엮음	운주사
2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6	설전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7	법구경	식카와띠 위뭘라나니	담마디빠
8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9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10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선·교·율로 비구니 승가의 길을 열다



묘엄평전
박원자 지음
묘엄평전간행위원회 감수
조계종출판사
3만8000원

묘엄 스님 발자취 담은 첫 평전
3년간 자료·증언 바탕으로 집필
수행자 귀착점 '마음수행' 강조
"부처님 뵙고 나 자신 찾으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이자 근현대 비구니 승가 위상을 재정립한 세주당 묘엄 스님(1932~2011)의 삶과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묘엄 평전〉은 스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치열했던 구도 여정과 근현대 비구니 승가를 일궈낸 원력을 6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으로 담아냈다.

묘엄 스님의 삶은 그 시작부터 한국불교의 거목들과 맞닿아 있다.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첫 비구니 제자로 가르침을 받았고, 운허 스님에게 경전을 배웠으며 자운 스님에게 전계를 받아 최초의 비구니 율사가 됐다. 또 청담·성철 스님이 이끈 봉암사 결사에도 비구니 중 가장 처음으로 동참했다.

이러한 불연(佛緣)은 엄혹한 시대에서 잉태됐다. 묘엄 스님은 집안의 대(代)를 잇기 위해 눈물로 애걸하는 어머니의 청을 끝내 거부하지 못한 청담 스님의 '하룻밤 인연'으로 태어났다. 어린 인순은 부모의 이혼으로 호적상 '사생아'로 기록됐고, 호적이 없는 여자아이는 위안부로 끌려간다는 소문에 청담 스님이 머물던 대승사로 보내졌다.

성철 스님은 '비천해 보이는 여자 중은 안 될 것'이라고 당차게 말하는 인순에게 '승중(당시 스님을 부르던 말)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큰 중이 되라'고 권하며 제자로 받아들였다. 1945년 음력 5월 5일, 열네 살 인순은 그렇게 묘엄 스님이 됐다.

이후 묘엄 스님은 열네 살에 시작한 화두 참구를 평생 이어갔고, 운허 스님에게 교학을 배워 당대 최고의 비구니 강백으로 거듭났으며, 지천명의 나이에 자운 스님으로 전계를 받아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가 됐다. 또 동학사와 운문사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쳤고, 봉녕사 강원·봉녕선원·금강율원을 설립해 비구니 승가의 선·교·율맥을 반석 위에 세웠다.

박원자 작가는 3년에 걸친 집필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모아 묘엄 스님의 삶을 복원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면서도 그 중심에 놓인 선·교·율이라는 수행의 축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 묘엄 스님을 비롯한 40여 대중이 1952년 봉암사 결사 정신을 이은 창원 성주사 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박원자 작가는 "한국전쟁 중에도 성주사는 봉암사 결사 방식 그대로 정진했고, 묘엄 스님은 온 마음을 다해 '이뭣고' 화두에 정진했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은 "성주사 결사는 출가 정신을 확고히 하고 수행 전통을 세우려 애쓴 선각자적 모습을 보여 준다"며 "비구니 승단이 출가 승단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결사"라고 평가했다.

아버지 청담 스님과 '출가자'로서의 만남도 기록했다. '출가'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최고·최대의 정신적 유산이라 여긴 묘엄 스님이지만, 아버지의 변변찮은 공양에 콧등이 시큰해지고 구겨진 광목 장삼에 눈물을 흘린 딸이기도 했다. 비구니계의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청담 스님. 묘엄 스님은 훗날 청담 스님과의 영원한 작별을 회고하며 "너무 슬펐다"고 말했다.



묘엄 스님(오른쪽)이 대학 시절 청담 스님, 언니와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묘엄 스님은 2017년 명사 법계를 품수했다.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묘엄평전간행위원회장 진상 스님(봉녕사 주지, 가운데)과 간사 도연 스님(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박원자 작가는 12월 18일 간담회를 열고 〈묘엄 평전〉 출간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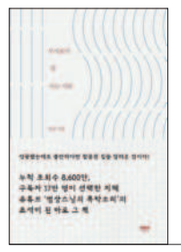
묘엄평전간행위원회장 진상 스님(봉녕사 주지)은 12월 18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귀착점이 '마음공부'이고, 선교율이 이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평생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다룬 이번 평전이 후학들의 수행과 교육에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

묘엄 스님이 임종 때 남긴 이 유훈은 누구나 부처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음을 철저히 믿고 생사발심해서 수행하라는 당부이자 스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에서 "비록 묘엄 스님은 적멸에 드셨으나 그 청정한 사상과 고결한 법향은 꺼짐 없이 빛나며 불교중흥의 길을 걷는 모든 수행자들의 영원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기렸다.

마음의 부(富)를 묻다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
법상 스님 지음
마음의숲
1만8500원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이 2006년 출간한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의 전면 개정판을 펴냈다.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은 스님이 20대 후반이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쓴 글을 다듬은 것으로, 청년 수행자의 풋풋함 감성은 유지하되 문장의 결을 다듬고 보완했다. 법상 스님은 "20대의 나와 중년의 내가 만들어내는 합동 연주"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책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며 충만하게 사는 길을 안내한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작은 실천,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는 방법을 전하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잘 사는 길'을 제시한다.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에 있다. 내 행복의 지수는 그대로 내 만족의 지수이지 소유의 지수가 아니다. 소유를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의 비결이다."

법상 스님은 마음공부를 통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쉽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스님의 글을 읽고 뜻을 모은 이들인 웹사이트 '목탁소리'를 만들었다. 실시간으로 열리는 부산 목탁소리 토요법회와 상주 대원정사 일요법회에는 매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 대원정사와 목탁소리 주지로,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17만여 구독자들의 마음공부를 이끌고 있다. 최근 서울에 '목탁소리休'라는 선명상센터를 개원했다.

유튜브 전법 활동으로 포교의 폭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1월 제22회 대원상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인내와 통찰 체득하는 '선명상'



아메리칸선명상: 통찰
영화 스님 지음
현안 스님 번역
위앙북스
1만8000원

"선명상의 목표는 자신을 훈련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선사의 한국인 제자들이 설립한 위앙북스가 펴낸 두 번째 책이다. 2024년 출간된 〈영화 스님의 선명상〉(운주사)의 후속편으로, 선명상의 실제 지침을 통해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고 인내와 통찰을 체득하는 길을 안내한다. 독자들이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답과 수행자들의 체험담도 확인할 수 있다.

명원 스님(광륜사 주지)은 추천사에서 "영화 선사의 가르침을 선과 염불을 함께 닦는 수행법으로, 청화 큰스님의 염불선과의 일맥상통한다"며 "이 책의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이 번뇌와 고통을 여의고, 선열과 법락을 함께 누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번역을 맡은 현안 스님은 "선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 일상에서 수행의 힘을 키우고 삶의 변화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佛母山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제일선원 **내원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륵암**

주지 **현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개양로170-90
전화 055-759-8243



대한불교조계종

한예산 **영묘사**

원, 밀, 선, 계, 정토종합수행도량

주지 **용수** 스님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구터길 2-12
전화 052-238-998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장 승원 **이원환**
수석부단장 원명 **안정임**
부단장 준제주 **김은경**
부단장 감로행 **강호연**

감사 **청안 조형식 법원 최성환**
교육직할팀장 **심정안 정선희**
중부총괄팀장 **진용 김영지**
서부총괄팀장 **청암 조용호**
동부총괄팀장 **월인 이선호**
북부총괄팀장 **수호 정수갑**

메일 : knpogyo1180@daum.net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6 하이페르상가14층
전화:055-262-1180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재홍**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052) 212-7000**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쾌적한 최신시설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 **정토사 불교대학/ 대학원** 1997년 개교 **☎(052) 274-3800**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경전반: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신행단체/ 문화교실 ☎(052) 258-9944**
초하루 보름,지장재일,관음재일, 다라니 기도, 금강경 독송, 법화경 전독기도
어린이회, 청년회, 신도회, 동문회,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야간합창단, 민화반, 마인드케어명상반, 오카리나반, 간화선 수행반, 심념처 명상반

◉ **장학 봉사 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052) 260-0707**

울산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

고문 **정수스님**(보현정사) **종일스님**(웅상 천불사)
청봉스님(웅상 불광사) **성남스님**(용주사)
반산스님(원각사) **문수스님**(하북 불광사)

감사 **수운스님**(화엄사) **지도스님**(내원사)

회장 **동진스님**(미타암) 교무 **성광스님**(보문사)
부회장 **현고스님**(용화사) 기획 **진무스님**(정각사)
총무 **호법스님**(신흥사) 홍보 **도훈스님**(양산포교당)
재무 **시주스님**(계원암) 서기 **대연스님**(웅장원)

회원 **지범스님**(원효암) **세봉스님**(호성사)
운암스님(조계암) **운성스님**(대일암)
정윤스님(법천사) **유정스님**(보각사)
진응스님(용담사) **세진스님**(대천사)
지수스님(자비원-노인전문요양원)
010 2790 1633
운견스님(금화사)

경남 양산시 장삼동길 13-1(북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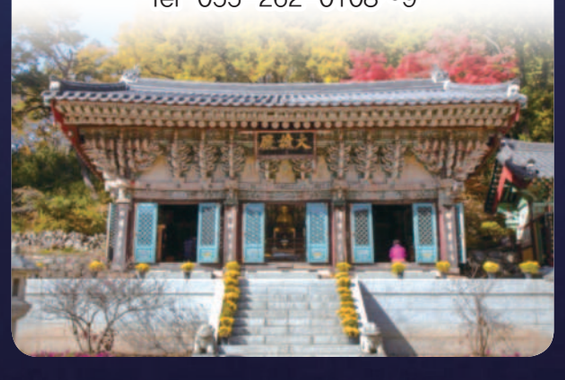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흥교**
주지 **법안스님**
신도회장 **경성 이상연**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9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광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보원사지 ·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국가유산청 지정 공고 잇달아

통일신라 양식 계승한 고려塔

전형 보여 주는 보원사지 석탑

조성목적, 시기 등 확인 되는

190자 새겨진 개심사지 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로 지정된 (사진 왼쪽부터)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고려 시대 조성된 두 석탑 모두 우리나라 석탑 조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편년 기준이 되는 문화유산이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석탑 2기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남아 있다. 또한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 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 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국보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에 건립된 고려 시대 석탑으로,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의 편년 기준이 된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에 새겨진 명문으로 건립 목적과 과정,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아래층 기단에서 1층 탑신까지 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 부조 방식으로 조각해 불교 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보로 승격·지정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후기 사찰 '누각'들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월 19일 예고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3건



보물로 지정예고된 순천 송광사 침계루.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조선 후기 조성된 사찰 누각 3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화성 용주사 천보루'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 시대 사찰 누각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해,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찰 가람배치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 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18세기에 걸쳐 건립 및 중창된 조선 후기 사찰누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는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대량·중량·종량 등)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결과에서도 1687년에 벌채된 목재임이 확인돼 역사적 가치가 크다.

'안동 봉정사 만세루'는 1680년 건립되어 '덕휘루(德輝樓)'라 불렸다. 〈봉정사동루기(1534년)〉 등 건립과 중수과정 등이 기록된 내부 편액을 통해 사찰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화성 용주사 천보루'는 대웅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건물로 유교적 건축요소가 혼재돼 나타나는 원찰(願刹)의 특징을 살필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㉔ 삼륜청정(三輪淸淨)

선순환의 조건

三 輪 淸 淨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며, 밤의 여행자들이다. 하룻밤 머물 자리를 내어 줄 배려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다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개봉한 영화 '파리, 밤의 여행자들'이 관객에게 건네는 메시지다.

이 영화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파리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다. 그녀는 심야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던 중,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소녀 탈룰라를 집으로 초대하며 인연을 맺는다. 낯선 이방인과 엘리자베트의 가족은 한 지붕 아래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만, 탈룰라는 어느 날 말없이 떠난다.

4년 뒤, 마약에 의존한 채 심신이 지친 모습으로 탈룰라는 돌아온다. 엘리자베트는 마약을 끊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조건으로 그녀를 받아들인다. 이 영화에는 극적인 사건이나 과장된 갈등이 없다.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담하게 이어질 뿐이다. 인물들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간다. 엘리자베트는 탈룰라에게 "원하는 만큼 머물라"라고 말할 뿐, 더 묻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가족과 동료들 역시 지금 나눌 수 있는 만큼을 조건 없이 내어놓는다.

자비를 수행의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는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는 흔히 '베푼다'고 번역되지만, 오늘날에는 '나눈다'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더 나아가 '섬김과 나눔'은 자본의 독주를 넘어 상생을 지향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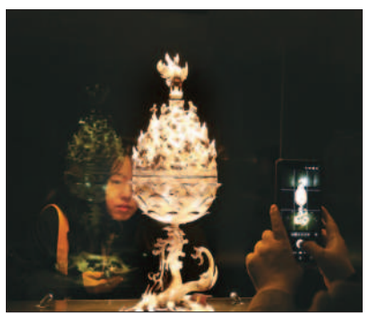
〈화엄경〉과 〈대지도론〉등에서는 보시의 올바른 조건을 '삼륜청정'으로 설명한다. 주는 이, 받는 이, 그리고 주고받는 그것이 모두 청정할 때 비로소 참된 보시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감사와 보은의 마음이 오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삼륜청정에서 '청정'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관념'이나 '애착'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공적한 상태를 청정이라고 한다.

찬드라키르티의 〈입중론〉에서는 분노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삼륜청정을 제시한다. 보살의 인욕(忍辱)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공성에 대한 통찰이라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행위와 시점 등 모든 요소가 자성과 실체를 지니지 않으며 환영(幻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욕은 완성된다.

연기법은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는 관계의 법칙을 드러낸다. 따라서 삼륜청정은 개인의 수행이자 동시에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다. 붓다의 시대를 떠올려 보자. 존중과 공경의 마음으로 밥을 내어놓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하심과 감사로 그 밥을 받으며 수행을 이어가는 이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삼륜청정이다. 영화 '파리, 밤의 여행자' 속 인물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주는 다정한 '마음의 공간'이야말로 행복을 선순환시키는 힘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 개관

12월 23일, 3층 규모 전용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신영호)이 국보 백제금동대향로의 예술성과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조명하는 전용 전시관 '백제대향로관'을 12월 23일 개관했다.〈사진〉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는 용과 봉황, 신선과 동물, 악기를 연주하는 다섯 연주자 등으로 이뤄진 독창적인 조형으로 백제인의 세계관과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향로의 예술적·사상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5년간의 준비 끝에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백제대향로관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됐으며, 건물의 층위와 공간 구성에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 구조가 반영됐다.

1층은 수중 세계를 모티프로 한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기존 상설전시실과 연결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과 3층 전시실을 잇는다. 3층은 향로 상부의 산악과 천상 세계를 형상화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체험 공간 '향·음'에서는 향 기둥 체험과 음향·촉각 체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휴게 공간 '향·유'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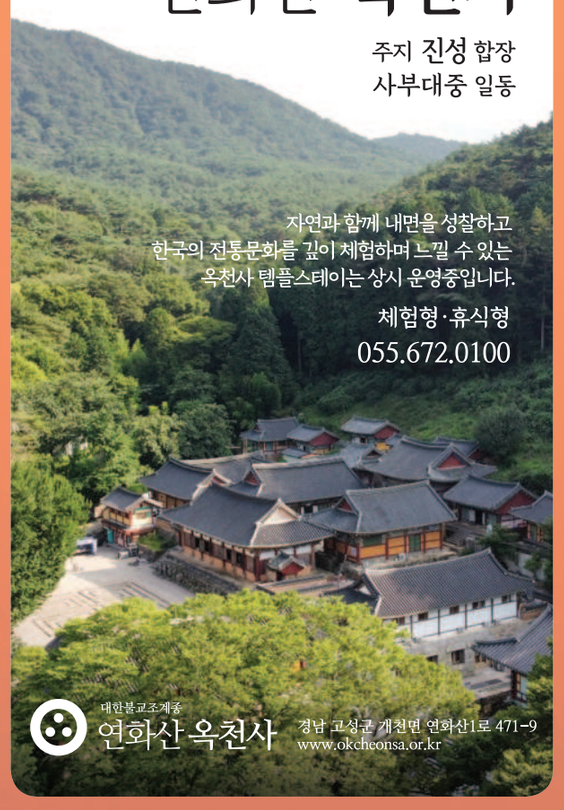
유재상 충청지사장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진성 합장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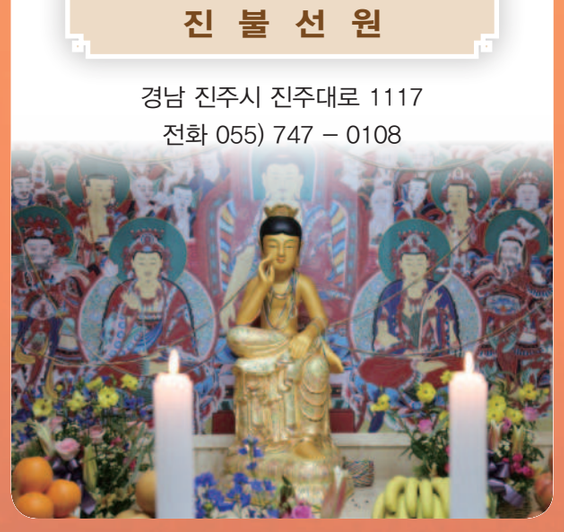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울산 보 은 사
주 지 **지륜** 스님
사부대중 일동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 봉 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 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 산 사
주 지 **동조**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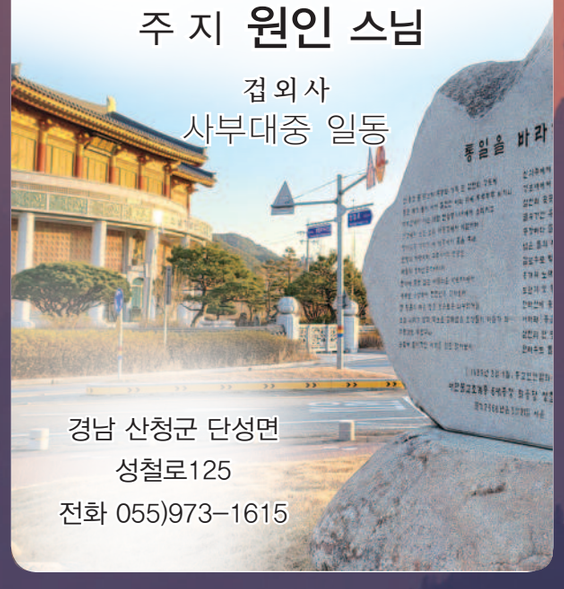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33관음성지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 외 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 주 **원택 스님**
주 지 **원인 스님**
겁외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지현**(해경사)	재경국장	**지혜**(도성사)
원로의원	**월봉**(석봉암)	문사국장	**지선**(능포선원)
자문위원	**서산**(보광사)	경남교구 종회의장	**자범**(옥골사)
자문위원	**세명**(관음정사)	경남교구 종회부의장	**보행**(법운사)
자문위원	**법안**(청량사)	중앙종회의원	**정광**(문수암)
자문위원	**법철**(세심사)	중앙종회의원	**혜우**(봉연암)
자문위원	**석봉**(백운사)	중앙종회의원	**자범**(옥골사)
자문위원	**법성**(백암사)	중앙종회의원	**광해**(자비사)
자문위원	**진일**(대성암)	중앙종회의원	**환명**(약수암)
선관위원장	**만우**(법성사)	중부분원장	**혜우**(봉연암)
교육위원장	**환명**(약수암)	서부분원장	**자운**(여여암)
포교위원장	**도각**(선암사)	남부분원장	**근해**(무상사)
감사위원장	**법진**(거림사)	밀양분원장	**지원**(부은사)
종무원장	**황봉**(관음사)	김해분원장	**법조**(보현사)
행정부원장	**성욱**(영진사)	중부분원총무	**자명**(석봉암)
재경부원장	**무진**(보현정사)	서부분원총무	**대경**(청정암)
종무국장	**법조**(보현사)	남부분원총무	**청현**(정각사)
교무국장	**법륜**(불정사)	밀양분원총무	**승현**(지혜사)
규정국장	**법성**(大장엄사)	김해분원총무	**무진**(보현정사)
		태고경남비구니회장	**수혜**(대승암)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93
전화 055-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사천 선 암 사
주 지 **도각**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사천시 홀곡1길74
전화 055-835-8533



한·중·일의 고대사를
바로잡을 게임체인저!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 명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 림 선 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 · 동림불교문화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 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2천년 고도 가야 불교의 성지

(사)가야불교 문화원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만제 혜수**
이 사 **정광 각명 우진 태설**
사무국장 **범해**

나눔급식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2 1666 9015 6
(예금주 : 가야불교문화원)

경남 김해시 흥동로 179
전화 055)322-0088





사찰을 귀히 여기는 절…

길상사 삼계선원

간화선 참선 근본도량

민생회복 만사여의 3년결사기도 상시접수

기도시간 : 새벽 5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6시

부설

· 불교대학 · 성현덕회 ·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삼계선원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 대명빌딩 201호(삼계동) 전화 055)333-8202 팩스 055)333-8203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연합회장(㈜경한코리아회장)
수석부회장 조보현 경남예총 회장
감 사 권정근 세경씨엔디 회장 이장균 창원시청공무원불자회장
부 회 장 김정기 심산서울병원 이사장
류병현 법무부범죄예방창원협의회장(동구기업 대표)
김환태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장(경남모터스㈜ 대표)
박재근 ㈔이노비즈협회장(㈜ 유창산공 대표)
최규식 두동도시개발 대표 김태종 대신엔지니어링 대표
박금숙 경남도립미술관장 김일태 통영국제음악제 대표
김 철 경상남도경찰청 불자회장 진정혜 금강자비회 이사장
김종석 성주사 신도회 부회장(청보건축사 대표)
진효규 관음사 신도회장(유창기계 대표)
김명희 정인사 신도회장 강성희 우곡사 신도회장
우순기 정암사 신도회장(진해문화원장) 김금비 길상사 신도회장
김연화 진불선원 신도회장 이동희 대광사 신도회장
이명은 불곡사 관음회장 김명련 반야사 관음회장



대한불교조계종

통영 연 화 사

주 지 **도 법**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5길 36
전화 055-645-6683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수국(守國)사찰

남해 용문사

주 지 승 원

신 도 회 장 송 행 열
거사림회 회장 박 영 남
지장회 회장 조명각선

신 도 일 동



주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 호구산 용문사
전화 055)862-4425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성주사)		
수석부회장	광우(정법사)		
상임고문	지태(봉원사)	원행(정인사)	
	도홍(불곡사)	정인(불지사)	
	원정(성흥사)	상운(정암사)	
	황봉(관음사/용마산)	춘광(삼학사)	
	화산(원흥사)		
고 문	운남(봉림사)	월봉(석봉암)	
	호정(세심사)	석봉(백운사)	
	성일(수선정사)	구하(관음정사)	
부 회 장	지암(송림사)	석산(우곡사)	
	성욱(영진사)	원문(금룡사)	
	월서(길상사)	무성(구룡사	
	청호(관음사/천주산)		
감 사	무아(진불선원)	해암(용천사)	
	혜명(반야사)		
사무총장	성욱(영진사)	포교부장 선묵(관음사/장복산)	
총무부장	자경(대광사)	문화부장 해륜(광산사)	
재무부장	선해(미타사)	복지부장 성우(천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14층
H.P 010-5246-2112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내 원 암

주 지 **도 성**

사부대중 일동

50418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422(구천리2)
전화 055-352-1155



대한불교 원효종

벽 선 암

주 지 **홍법혜진**

벽산암 신도회

사단법인 야단법석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 불 사

회 주 **만 상**
주 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普光石材 X 아두망 à deux mains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 이래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문화를 계승하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이다.
본 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우리 돌 문화공간, 아두망은 이색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석공예와 전통 돌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프랑스어로 "두 손으로"라는 뜻의 카페 아두망(à deux mains)은 최고의 맛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맛을 손수 제공하고자 한 모토를 담은 동시에, 두 손에 쥔 수공구만으로 단단하고 무거운 돌을 우직하게 다듬어 낸 우리 전통석공예의 영혼을 함의하고 있다.





(주)보광석재 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화 | 054-955-8888
카페 아두망 주소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9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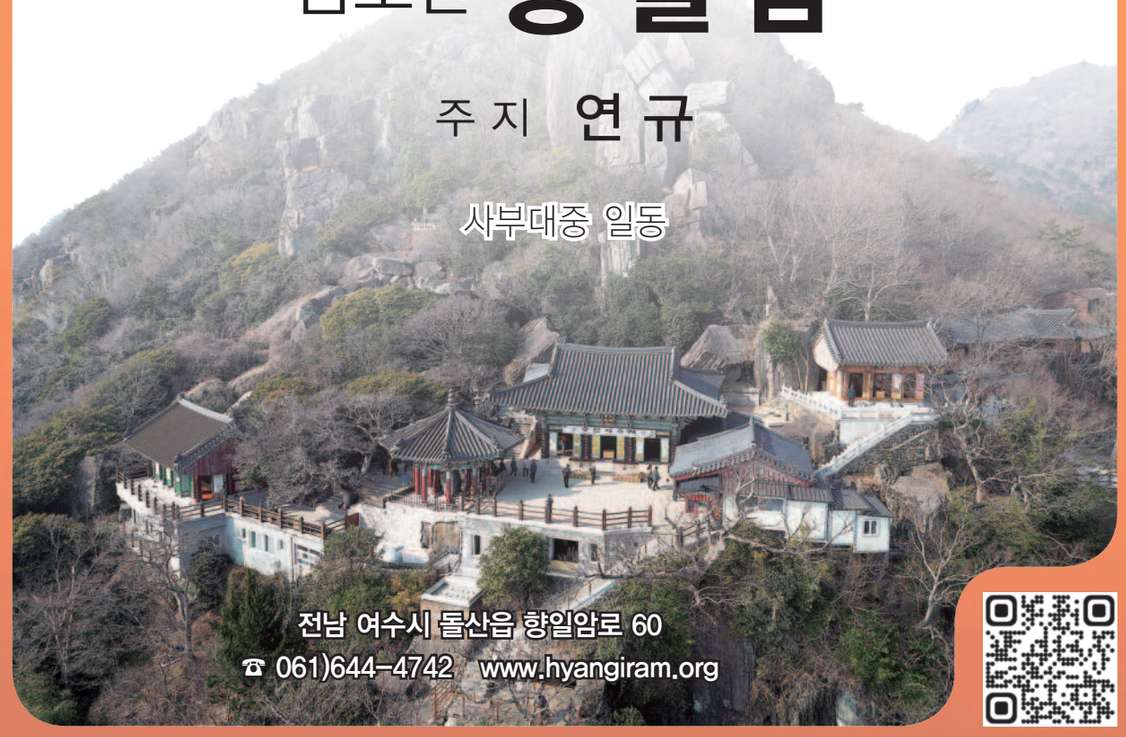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 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주지 법오

사부대중 일동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061-4232-4974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 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원
승정 금용
승정 지암
승정 남파

중앙원로회의
의원 금명
의원 설봉

중앙종회의원
의원 원일
의원 연봉
의원 법진

지방원로회의
원로회 의장 금명
원로회부의장 금용
원로의원 도수
원로의원 설봉
원로의원 남파
원로의원 도월

종무원
종무원장 지공
부 원 장 도우
총무국장 도진
재무국장 선주
교무국장 선묘
규정국장 정호
문사국장 국진
사 무 장 자비심

지방종회
의장 연봉(성도암)
수석부의장 법진(운천사)
차석부의장 보현(수정사)
위원 승휘전법사(옥련암)
위원 대응(불두사)
위원 도안(천운사)
의원 여허(용문사)
위원 원일(향림사)
위원 법용(대원사)
위원 도허(금곡사)
위원 도봉(극락정사)
위원 덕산(보성사)
위원 법성(지장정사)
위원 혜양(영운사)
위원 영휴(법륜사)
위원 법정(보현사)
위원 혜가(주룡사)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자비원력으로 세운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그대는 자비보살
보명 스님 경주 보광사 주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인도 보드가야 불가촉천민 지역.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이었다. 첫 우물을 파고 물을 퍼 올리기 직전, 보명 스님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들도 스님의 염불 소리에 맞춰 관세음보살을 외쳤고, 곧 맑은 물이 쏟아졌다. 희망의 물이 솟는 자리에 학교 건립의 희망도 피어났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가촉천민이란 굴레와 차별의 삶에서 벗어날 터전이다. 초등학교로 시작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이어 건립됐고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한 무상 교육이 시작됐다. 이제는 파담파니 관세음 간호대학 불사도 추진 중이다.

삶의 의문 끝에서 만난 〈금강경〉

53년 전, 보명 스님은 삶에 대한 의문과 진리를 향한 뜻을 품고 출가했다. 이후 손에서 놓지 않고 독송한 경전은 〈금강경〉. 동학사 강원 시절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보며 새롭게 발심했고, 보리암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며 독송한 〈금강경〉은 수행과 포교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

"〈금강경〉은 수지독송만 해도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읽고 공부하지 않는지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라서구나'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고된 삶과 가족을 향한 애착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러다 출가 후 〈금강경〉에서 삶의 방향과 진리를 찾았다. "오직 부처님 말씀!"이라는 원력이 마음을 채웠다. 경전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서원으로 동국대에서 한문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과정도 진학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왔다. '오직 부처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포교 원력, 새 전법 방향을 제시하다

1987년 전법을 위해 부산 동래구에 관음포교원을 개원했다. 당시만 해도 포교원이 드물 때였다. 적극적인 포교 방법도 도입했다. 먼저 어린이 한자 교실을 열었다. 한자 교실에 온 아이들로 법회를 시작했고, 점차 청소년 법회와 청년회 그리고 가족법회까지 확장됐다. 범음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공연을 했고, '해조음'이라는 어머니 크로마하프단을 구성해 KBS홀 무대에 서며 문화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다 보니 금세 100평이 넘는 도심 포교당 건물로 자리도 옮겼다.

정확히 10년. 보명 스님은 고요한 산사가 그리워졌다. 우연히 찾은 경주 깊은 산속에서 지금의 보광사 터를 찾았다. 30여 년 전이다.

"도심 포교를 10여 년 하고 나니 이제 자연과 함께 조용히 수행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자리를 옮기게 됐지요."

스님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행터는 도심에서 산속으로 옮겼지만 전법은 계속됐다. 동의대 철학과 교수로 강의했고 신도들과도 인연을 이어 갔다. 보광사 대웅전과 요사채로 이어지는 넓은 도량에는 계절마다 은방울꽃과 원추리, 앵초, 할미꽃이 피어났다.

인도 성지에서 싹튼 교육 원력

2013년에는 신도들과 인도 성지 순례를 떠났다. 이전에도 도반들과 순례를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성지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맨발로 따라다녔다.

〈금강경〉 수행, 교육 전법으로 이어지다
인도 불가촉천민 아이들 위한 무상 교육
보시 인연 더해져 초·중·고 연이어 설립
델리대 합격으로 돌아온 교육 전법 결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돼 2월에 아는 교수님과 다시 인도로 갔어요."

두 달 전 가이드를 했던 인도인 신뚜에게 연락해 아이들 몇 명만이라도 모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제안에, 그 역시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교실 한 칸을 세우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했다. 교사 월급과 교재비 등의 운영비도 매달 100만원 지급해야 했다. 스님의 원력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면서 교실 한 칸 한 칸이 더해졌다. 한 도반은 은사스님의 팔순을 기념하며 교실 한 칸을 보시하기도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스님도 외쳤다.

"나도 교실 한 칸!"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희망의 터전

2014년 봄, 학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원력의 씨앗이 희망으로 피어났다.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보여 주길래 '그래, 여기에 짓자'고 결정하고 물 펌프를 설치했어요. 물이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물이 나오고 공사 자재가 있으니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신뚜에게 아이들한테 스님을 따라 관세음보살을 불러 보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신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학교명이 떠올랐다. '관세음학교'.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인도말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 대신 연화수보살을 뜻하는 '파드마파니(Padmapāṇi)'를 줄인 '파담파니'로 학교 이름을 지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는 아이들이 청결하게 지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깨끗한 화장실을 짓고 펌프 우물을 곳곳에 설치해 세면장과 샤워실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급식실을 만들고, 멀리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 100대도 선물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재봉을 배울 공간도 마련했다. 교실 2층에는 법당을 만들어 관세음보살을 모셨고, 운동장에는 백옥으로 관세음보살 입상을 세웠다.

그해 11월 30일, 학교 준공식과 입학식, 그리고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교실명은 정진반, 지혜반, 보현반, 문수반. 깨끗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교실을 채웠다. 아이들은 수계를 통해 법명을 받고 삼귀의를 올렸다. 지금도 매일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명상 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는 포교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수행과 배움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많은 인연이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구역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검은 봉투에 불사금을 넣어 준 보살님, 학교 담장을 쌓아 준 마하회 스님들,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동아기업, 우물 108개를 보시한 그룹 대원플러스 등등. 셀 수 없는 인연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아이들을 키워 냈습니다."

준공식 후 10년 뒤, 스님은 델리 공항에서 삼배를 받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는데 인도인 학생이 다가와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졸업해 올해 델리대학에 입학했다"며 인사한 것.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거리에서 부모 삶을 그대로 이어 갔을 거예요. 교육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명 스님은 지난해 성지 순례를 계기로 동참한 기형 스님과 전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인도는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부처님 당시 목련 존자, 부르나 존자도 목숨 걸고 전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포교와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 땅에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함께 전법합시다."



보명 스님이 경주 보광사 관세음보살 입상 앞에 섰다. 이 관세음보살상은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백옥 관세음보살 입상의 원형이다. 보명 스님은 1974년 울진 불영사에서 출가해 동학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198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으며, 부산 관음포교원 개원과 교정 법회, 불국사 교육 자원봉사 활동, 동의대 철학과 강의 등을 이어 왔다. 1997년 경주 산내에 보광암을 창건했으며, 2014년 인도 보드가야에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설립해 초 · 중 · 고 교육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현재 경주 보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아 스님들과 교직원, 학생, 후원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교실에서 웃음 짓는 보명 스님과 아이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 지 정 응
사부대중 일동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전화 061-864-2055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중 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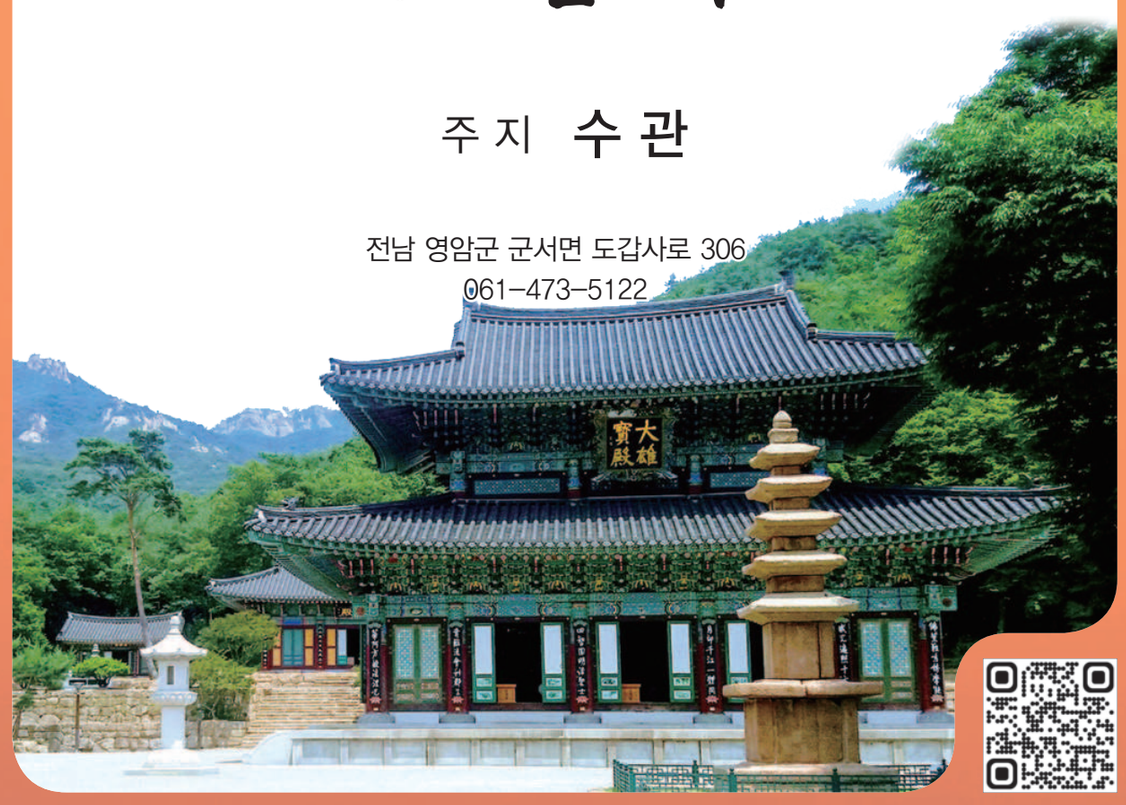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도갑사

주 지 수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이재동 진성 스님　　문화 황현종 정진 스님
주지 이계향 정원 스님　　교리 임순빈 정유 스님
원주 김명옥 연심 전법사　　운영 이웅휘 정운 스님
재무 유보인 연정 전법사　　복지 박마고 마정 스님
포교 박청원 정념 스님　　탬플 정석운 정륜 스님

· 신도회장 | 윤금상 청리
· 부회장 | 박선자 보리행
· 총무 | 김경은 금강행
· 사)붓다 총괄이사 | 엄영애 현진 스님
　봉사단장 | 이재현 수암
　관리 | 허영자 정아 전법사
　홍보 | 손채림 정이 전법사
　기획 | 정만 이항녕 전법사
　기록 | 최형임 혜수안 전법사
　복지관장 | 정해자 혜안행
　해외 봉사단장 | 황동현 청야
　해외복지 부장 | 정철 장윤성
· 교정 봉사단장 | 박교상 청준
· 소년원 어머니회장 | 김도은 청운
· 군부대 봉사단장 | 변상경 청진
· 붓다복지관 관리단장 | 김동우 청화
· 갑룡장학회 후원회장 | 동상진 도경

· 사) 한지문화법인 장엄
· 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사) 진안군관광협의회
· 사) 전북자원봉사센터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붓다복지센터
공유폰 010-4335-7807 / 전화 063-433-0012 팩스 050-4775-7807
홈페이지 http://www.maisantapsa.com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실상사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길 265
전화 063)636-3031 | www.silsangsa.or.k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연 수	종회의장	법 전
부 원 장	현 진	부 의 장	청 명
총무국장	법 정	종회의원	혜 정, 진 수
교무국장	지 오		송 월, 정 수
재무국장	명 각		현 담, 혜 성
사회국장	신 원		혜 일, 보 경
종무위원	혜 윤		도 흥, 원 만
			혜 월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 산(작법보유자)	조교수	법 정	감 사	법 원, 원 경
부 회 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사무처장	법 진		
교육원장	도 정	재 무	지 오		

전북 영산작법보존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 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 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만덕공덕회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22
전화 062)363-6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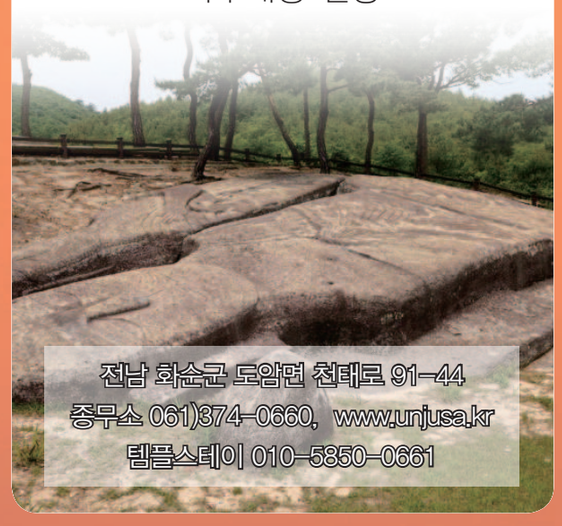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 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 주 **경 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덕 상**

사부대중 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주**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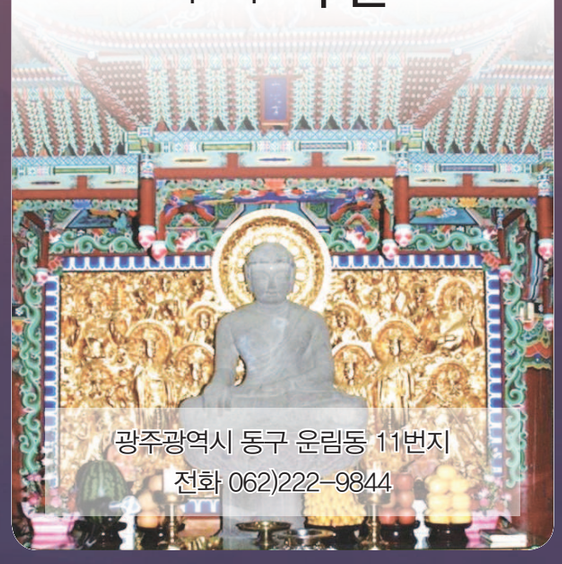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 주 **범 종**

주 지 **적 문**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 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조 실 **학봉 지선**

주 지 **법 공**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1) 362-4433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전화 062)227-7295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신흥중1길 39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지 운**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
전화 062) 655-7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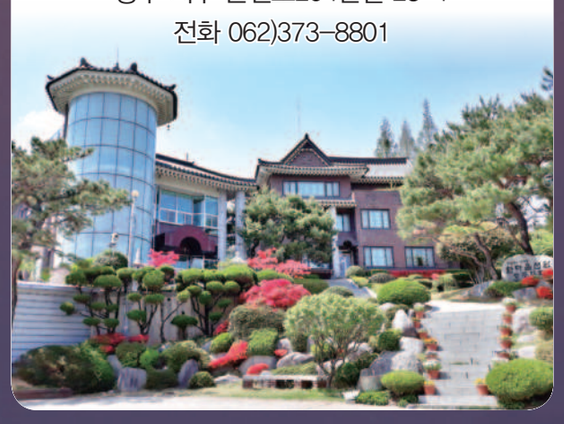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일동

광주 서구 운천로204번길 23-1
전화 062)373-8801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 주 **영 조**
주 지 **증 현**

사부대중 일동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산의로 459
전화 061)372-3765~66

행복이 충전하는 우리집

녹 야 선 원

주 지 **아 도**

신도일동

아도스님의 찾아가는 와플가게
녹야선원 지심회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68, 2층
전화 062)365-0108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 주 **지 각**
주 지 **지 장**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도 림 사

주 지 **우 범**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전화 061) 362-2727

대한불교조계종

능 가 사

회 주 **중 현 일 귀**
주 지 **진 허**

사부대중 일동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www.neunggasa.org
061-832-8090

참회이자 기도·수행인 반야 참회

〈般若懺悔〉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① 반야 참회의 특징과 차이점



참회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 주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기존의 참회법을 보완한 반야 참회는 기존 입문자들도 쉽게 숙달할 수 있고 참회 수준도 점차 깊어지게 되는 수행법이다.

불기 2570년 새해를 맞아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반야 참회'를 소개하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근래 우리 사회는 '명상'이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정신수련과 관련해서만 이해되던 '명상'이, 이제는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미술 등 예술계와 의료 분야, 심지어는 음식이나 놀이 분야에까지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발전에 대중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심해져서, 그 탈출구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연히 불교 수행이며, 그중에서도 입문자나 재가불자들에게는 '참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회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 주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참회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불교 신행의 기본인 참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불교 신앙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참회법에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참회의 효능을 실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부딪치는 현실은 갈수록 복잡하고 미묘하여 불자들이 겪는 내면의 혼란과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참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자들이 참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수행 중에 직접 체험하고 터득한 사실을 근거로 기존 참회법을 보완해 새 참회법인 반야 참회(般若懺悔)를 창안했으며, 이를 〈반야 참회〉(2012년, 불광출판부)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이 글에서는 이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보충할 예정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야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반야 참회는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참회 기도의 형식을 취한 수행법이다. 즉 반야 참회는 참회이자, 기도이며, 또 수행인 것이다. 물론 명상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야 참회는 전통적인 기존 참회법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과 관련된 점을 중심으로 반야 참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겠다.

반야 참회의 첫 번째 특징은 참회 대상과 참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참회는 대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든지, 또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이켜 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참회를 하고, 잘못이 생각나지 않으면 참회를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참회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참회가 제대로 되면 당면한 고통이나 불안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지혜가 발휘되며 수행의 진전도 빨라진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참회법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무엇을(참회 대상)', '어떻게(참회 방법)' 참회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참회는 이 점이 부족한 것이다.

기존 참회의 이런 문제점이 인식되자, 최근에는 108가지 참회할 항목을 읽으면서 각 항목에 따라 절을 한 번씩 하는 참회법이 소개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입문자에게 참회를 처음 적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참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며, 108가지나 되는 참회 항목이 경중(輕重)의 구분 없이 한 번의 참회에 다 들어 있어서 참회가 깊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반야 참회는 어떤 행위가 악업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경중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고 있고(참회 대상), 실제로 참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과 순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참회 방법). 그래서 입문자들이 참회를 쉽게 숙달할 수 있고, 또 참회 수준도 점차 깊어지게 된다.

먼저 참회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참회 대상이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참회를 진실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반야 참회의 참회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하나는 이른바 탐진치로 알려진 의업(意業)이다. 의업 참회는 참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런데 의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이 참회를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참회가 깊어지지 않는다. 반야 참회에서는 의업을 여러 종류와 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참회를 익히면 자기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위가 의업에서 비롯됨을 자각해, 나쁜 습관도 쉽게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업 참회가 깊어지지 않으면 참회가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참회에서는 참회는 참회일 뿐이고 수행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반야 참회의 의업 참회는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수행의 진전으로 이어진다.

반야 참회의 참회 대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항목은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이다. 불자들이 참회를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실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대립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참회를 하면 '착하기는 하지만 나약한' 사람이 되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 이 참회에서는 '양보', '희생', '인내' 등의 듣기 좋은 명분 때문에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악업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대립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래서 참회를 하면서도 현실을 더욱 힘차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는 참회 방법이다. 참회 대상이 되는 악업을 분명히 안다고 해도 그 악업을 참회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역시 제대로 된 참회가 되기 어렵다. 반야 참회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참회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으로는 절을 하되, 마음으로는 행위 당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마음속에 떠올리고, 입으로는 "부처님, 참회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참회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참회를 숙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그 외에도 반야 참회에는 참회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내용은 참회의 효능을 빨리 체험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지금까지가 반야 참회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언급이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실천 사항 매일 108배를 권유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매일 108배를 하면 반야 참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 반야 참회는 참회 기도 형식의 수행
> 참회 대상과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 '의업 참회'로 과거 악습 고칠 수 있어
> '자신 지키지 못함 참회' 적극 삶 인도
> 절하고 마음 되뇌며 참회 말 반복해야
> 집중 높이고 효율적으로 숙달 이끌어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한국불교태고종
용 화 사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주 지 도월 수진
▌전통불복장 전수교육 ▌
▶지원자격 :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
▶교육기간 : 1년과정
▶접 수 : 수시모집
▶교육장소 :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교 과 서 : 별도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과정을 통해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전화 061-381-2683

대한불교조계종
다 보 사
주 지 만 민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83
061-334-4201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단장 법전 정환근
포교사 일동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450번길1, 1층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운영"
쉽고 바른 불교교육을 실천하는 승가
법 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45-11
전화 02)732-1206

불기 2570년 새해 온누리에 자비와 희망이

사람이 한칠산는데
웃고살고
지혜롭게
포용할수
있다면 그것이
대장부로다

대행선사법어 상유 유청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신현준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gmail.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4107CHN,
Tucumá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08-2894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Rd, Bangkok10110,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61-413-70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현대불교신문 ×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언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것이
선명상입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고요히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고락(是非苦樂)의 분별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행동이 청정해집니다. 분별이 없으니 업이 사라집니다. 그 자체로 평안입니다. 대하는 모든 일에 보살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행입니다.

–진우 스님 '선명상 법문'에서 발췌

현대불교신문은 조계종 미래본부와 함께 2026년 신년특집 공동기획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제안에서부터 불교계를 넘어 국민 마음 평안 수행법으로 확장되어 온 지난 3년의 과정을 살피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명상지도자들이 5분 선명상을 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선명상’, 시대의 마음에 응답하다

제안부터 대중화까지

프로그램 개발·지도자 양성 박차
국제선명상대회로 대국민 제안
명상 교육으로 ‘마음 평안’ 확산

“불교는 지금,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줄곧 던져온 질문이다. 이 질문은 곧 종단 운영의 방향이 되었고, 그 답으로 제시된 핵심 종책이 바로 ‘선명상’이다. 불안과 우울, 고립과 경쟁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다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우 스님은 수행 전통의 현대적 전환을 추진했다.

‘사회적 소통 강화’서 출발

2023년 1월,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사회적 소통 강화’를 첫 번째 화두로 꺼냈다. 스님은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불교 수행과 문화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단 내 전문가 연구를 거쳐 한국불교 수행 전통에 기반한 명상 체계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찰과 명상센터,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단계에 맞는 수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불교를 종교 영역에 가두지 않고 사회 속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2023년 선명상, 이름을 얻다

그해 봉축법요식에서 진우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스님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를 넘어 “앞으로는 5차 정신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불교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정신혁명의 핵심으로 ‘선명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진우 스님은 “간화선 수행 전통에 기반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과 세계인에게 보급하겠다”며 “K-명상을 수출해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명상’이라는 용어에는 선(禪)의 전통을 분명히 계승하되, 명상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대중과 만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려는 선택이었다.

2024년 ‘선명상 보급 원년’ 선언

202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갑진년을 ‘선명상 보급 원년’으로 천명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실 속에서 선명상을 본격적인 대사회 실천 과제로 삼겠다는 뜻에서다.

이 해 조계종은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을 비롯해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추진, 단계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진우 스님은 “각박한 일상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열어주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우울할 때 마음을 챙기는 선명상’, ‘화를 가라앉히는 선명상’, ‘시험을 앞두고 정신을 맑히는 선명상’ 등 상황별 명상 프로그램은 선명상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임을 보여줬다.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계획도 발표됐다.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형 명상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종단이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공개됐고, 진우 스님은 직접 무대에 올라 선명상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5분 선명상을 실천했다. 또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을 제안했다.

2025년 ‘국민 운동’으로 확대

2025년은 선명상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해였다. 지난 3년간 조계종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축적했고, 명상 지도 경험이 풍부한 스님과 재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선명상위원회를 출범시켜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에 나섰다.

그 결과 선명상은 5분 실천형 명상부터 1시간 과정, 1박 2일·2박 3일 체험형 과정, 4주 과정 등으로 다양화됐다. 템플스테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됐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법사와 지도사 양성도 병행됐다. 이를 통해 선명상은 특정 사찰이나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마음 평안’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안암동에 건립될 중앙선명상센터는 선명상 보급의 중추로, 지도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능 등을 통해 선명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으로 확산 모색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선명상을 공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교사의 번아웃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명상 교육이 인간의 내면과 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은 이미 교사 연수와 학생 맞춤형 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명상 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종교·가치 중립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선명상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선명상센터 조성과 프로그램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사진으로 보는 선명상

2023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사회에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수행이 산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야 하며, 불교는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선언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쉼 없이 이어진 현장 속에서 실현됐다. 선명상으로 마음 평안을 이룬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편집자 주〉

① 2023년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선언했다.

② 2024년 진우 스님은 ‘선명상 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선명상의 이론과 방식, 나아가야 할 길을 설파했다.

③ 2024년 국회 정각회가 봉행한 신춘법회에서 진우 스님이 선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④ 2024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은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을 제안했다.

⑤ 조계종은 선명상 대중화를 견인할 지도법사를 양성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12월 열린 위촉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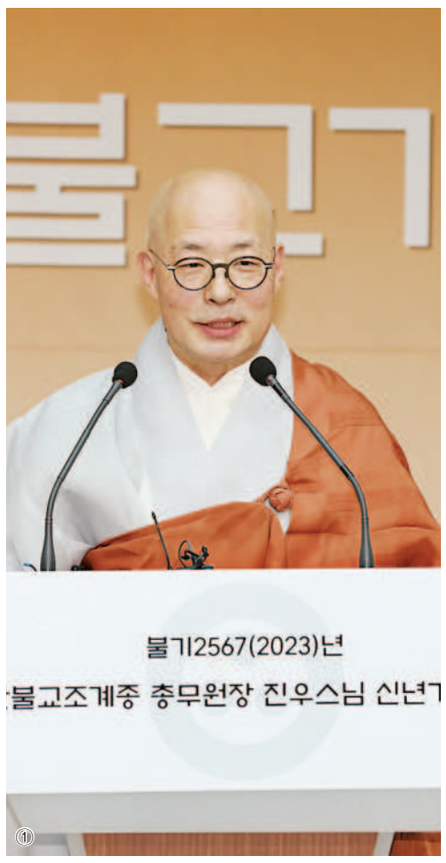
⑥ ‘2025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1일 서울 봉은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다.

⑦ ‘2025년 선명상 지역 축제’는 경주와 인천, 부산, 충청, 전남, 전북, 경기권역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7월 세종 광제사에서 열린 선명상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선명상을 하는 모습.

⑧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를 개최했다.

⑨ 선명상을 조명한 KBS1TV 2부작 다큐멘터리 ‘명상인류’에 진우 스님이 출연해 선명상의 원리와 깊이, 실천법을 안내했다.

⑩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출범식 부대 행사로 12월 20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2025 문화 선명상 프로그램 ‘겨울에—이 뭣고’를 진행했다.



①


②


③



④



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 org
TEL 02)3218–4800 FAX 02)544–2141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5년 12월, UN ‘세계 명상의 날(12월 21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명상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한국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⑥


⑦


⑧



⑨


⑩

책으로 만나는 선명상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선명상’은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내며 대중적 공감을 넓혀가고 있다. 선명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들도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끈다. 여수령 기자



왜 선명상인가?

〈선명상 길라잡이〉(조계종 미래본부 엮음, 조계종출판사)는 선명상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2024년 개설된 선명상 아카데미에 직접 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책은 “선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불교 수행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씩 풀어낸다.

1장에서는 선명상의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는 수행으로써 선명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살피고, 이를 억누르거나 제거하려 하기보다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선명상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3장은 실천에 초점을 뒀다. ‘우선 멈춤 5초 명상’, ‘무시로 명상’, ‘쉘패스 명상’, ‘그림자 명상’, ‘놓음 명상’, ‘삼수야 가라 명상’ 등 짧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된다. 불교 교리나 종교색을 최소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강설로 만나는 선명상

〈선명상 마음의 평화〉(진우 스님 등 지음, 조계종출판사)는 2024년 출가열반재일 특별 정진 주간에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법회를 바탕으로, 선명상의 이론과 실천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책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 온 진우 스님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장 명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의 법문이 차례로 담겨 있다. 일곱 스님들은 선명상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다. 자칫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는 선(禪)을 구체적 사례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를 자연스럽게 수행의 세계로 안내한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모든 방법 그 자체가 선명상”이라고 말한다.



행복을 위한 108 법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좋다거나 싫다는 고락의 감정과 옳다거나 그르다는 시비의 판단을 자제할 것, 어떤 선택이든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하되 선택한 다음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말 것, 그래도 힘에 부칠 때는 보시를 하면서 꾸준히 기도와 참선에 정진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속하더라도 머지않아 차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

〈개미의 발소리〉(진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는 108가지 선명상 법문으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끈다. 진우 스님이 담양 용흥사 주지 소임을 보던 2008년, 매일 새벽 명상에 대한 짧은 단상을 적은 글을 묶었다. 스님이 신도들과 나눴던 고민과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이 가득하다. 하루 한 편씩 읽다 보면 ‘현상과 대상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라’고 강조하는 진우 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새겨진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 지 진 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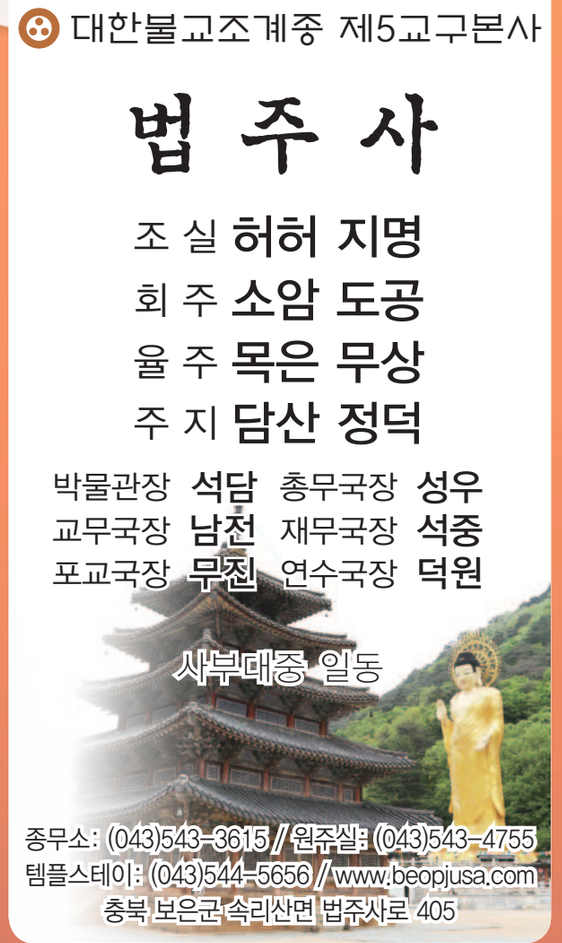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 주 사

조 실 **허허 지명**
회 주 **소암 도공**
율 주 **목은 무상**
주 지 **담산 정덕**

박물관장 **석담** 총무국장 **성우**
교무국장 **남전** 재무국장 **석중**
포교국장 **무진** 연수국장 **덕원**

사부대중 일동



종무소: (043)543-3615 / 원주실: (043)543-4755
템플스테이: (043)544-5656 / www.beopjusa.com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천년고찰 경허대선사 수행도량

구절산 구절암 **구 룡 사**

주 지 **진 명**

사부대중 일동

매년10월 구절초축제

구절초진액, 구절초 조청 판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봉입동로 846-40
전화 : 041)841-8838 www.rury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보 명 사

주 지 **활 암**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보명사길 121
041)522-3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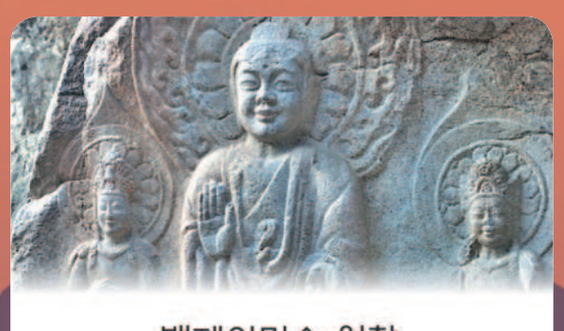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각원사불교대학

조 실 **경해 법인**
주 지 **지산 대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안서동 171-3)
전화 041)561-3545 팩스 556-1425





백제의미소 윈찰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 **보 원 사**

1. 미소불 만일기도 봉행(4차 천일기도 중)
2. 내포불교대학(산혜암·용봉사·세심사·보원사·간월암·보령대천사연합) 운영
3. 내포불교원형복원(내포, 홍주골, 해미읍성연등회/수륙재)

내포가야산 성역화추진위원장 **정 범**
대한불교조계종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 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192-25
☎ (041)662-7717, 010-7262-7717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성취 약사기도 도량

영 탑 사

회주 **수 암**
주지 **원 정**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139-33
041)356-3204 / 010-8546-8768



영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황룡사 **종림 스님**
총무 반야사 **명원 스님**
감사 영국사 **현우 스님**

연합회원사찰 일동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로 1325 황룡사
전화 043)745-0678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천안 **극 락 정 사**

주 지 **일양 스님**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70-24
전화 041)622-0311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신 원 사**

주 지 **성 관**

사부대중 일동

소원성취 영험도량

충남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동길1
전화 (041)852-4230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영 랑 사

주 지 **상 준**

사부대중 일동
영랑사불교대학 일동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로 142-52
전화 041)353-8053 www.younglangsa.com



대한불교조계종
다라니수행정진도량
쌀바위전설

천 태 산 나한도량 **동 혈 사**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동혈사길77
전화 041)854-2855



대한불교
천안 동면

광 덕 사

주 지 **혜광 스님**

사부대중 일동

미술치료명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광덕길 159-32
전화 041)556-6448, 010-5588-6448



2026 선지식 탐방 | 도심 스님 (연등사 주지)

자비연등을 밝히며 우리사회 공동체를 잇다



도심 스님이 12월 23일 열린 '제14회 파워브랜드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과 국회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도심 스님은 연등사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자비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 공동체 연대를 통한 불교의 공공성 확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비를 바탕으로 나눔에 앞장서는 수행자

안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에서 수행은 고요 속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행은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 귀결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는 실천이어야 한다.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의 행보는 이러한 불교의 본령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도심 스님은 오랜 시간 '수행자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삶으로 풀어온 인물이다. 법당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서고, 설법에 앞서 손을 내밀며, 개인의 수행을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해 왔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순하다. 자비, 그리고 실천이다.

연등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수행

도심 스님이 주지로 있는 안성 연등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찰로 자리해 왔다. 스님은 수행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를 경우, 불교는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등사는 늘 열려 있었다. 어르신과 장애인, 소외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 왔다.

스님의 수행은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도심 스님에게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 태도는 이후 스님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풍총동문회를 이끌며 확장한 사회적 실천

도심 스님의 활동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도 자비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님은 201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생활풍수 총동문회(동풍 총동문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4대에 걸쳐 동문회를 이끌고 있다.

동풍 총동문회는 단순한 동문 친목 조직이 아니다. 풍수지리라는 전통 학문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사회적 지혜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 스님은 취임 직후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동문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후 전국 사찰과 명당을 중심으로 한 간산(看山) 답사, 풍수 현장 학습, 토론회와 세미나를 꾸준히 이어왔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술 활동이 늘 사회공헌과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다.

학문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리더십

도심 스님의 리더십은 '성과'보다 '방향'을 중시한다.

2023년 열린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에서는

안성 연등사 중심 나눔 활발

동국대 기부, 장애인돕기 등

자비 실천 앞장서는 수행자

동국대 풍수지리 동문 조직

동풍총동문회장으로 사회공헌

공익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창종



2023년 9월 1일 동국대 발전기금 기부 모습. 장학 등 후학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 장학금 2000만원, 방송통신대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뜻을 보탰다. 학문적 성취가 사회로 환원돼야 한다는 스님의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러한 행보는 동문들의 깊은 신뢰로 이어졌다. 2025년 3월 30일, 도심 스님은 동풍 총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연임됐다. 이는 단순한 연임이 아니라, 스님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였다.

수행의 귀결, 거리에서 이어진 자비

도심 스님의 수행은 다시 거리로 향한다. 2025년 4월 9일, 스님은 동풍 총동문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에 나섰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 나눔은 형식 없는 수행의 현장이었다. 이어 4월 17일에는 생필품과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연임 이후 첫 공식 봉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수행의 결과는 결국 이웃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그의 행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다.

사회적 평가로 이어진 꾸준한 실천

도심 스님의 실천은 사회적 신뢰로도 이어졌다. 2023년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공로상을 수상했고, 동풍 총동문회 활동으로 2023년 12월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표창과 2024년 12월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문화부문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202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수행자의 사회적 실천이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교정중연등종 창종, 실천의 틀을 만들다

도심 스님의 이러한 삶과 실천은 불기 2569년 비영리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창종으로 하나의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법인은 2월 설립 허가, 4월 공식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며, 스님의 오랜 실천을 종단 차원의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리했다.

'정중연등'은 고요한 수행(정중)과 세상을 밝히는 실천(연등)의 결합을 뜻한다. 법인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도심 스님이 걸어온 길의 연장선에 있다.

도심 스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꾸준하고 단단하다. 수행은 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늘 타인을 향해 열려 있다. 학문 공동체에서도, 거리의 밥상에서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작은 인연 속에서도 스님은 같은 태도로 임한다. 도심 스님은 오늘도 고요한 중심에서 세상을 밝히는 연등 하나를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2023년 4월 16일 방송통신대학에서 열린 동풍 총동문회 제1회 세미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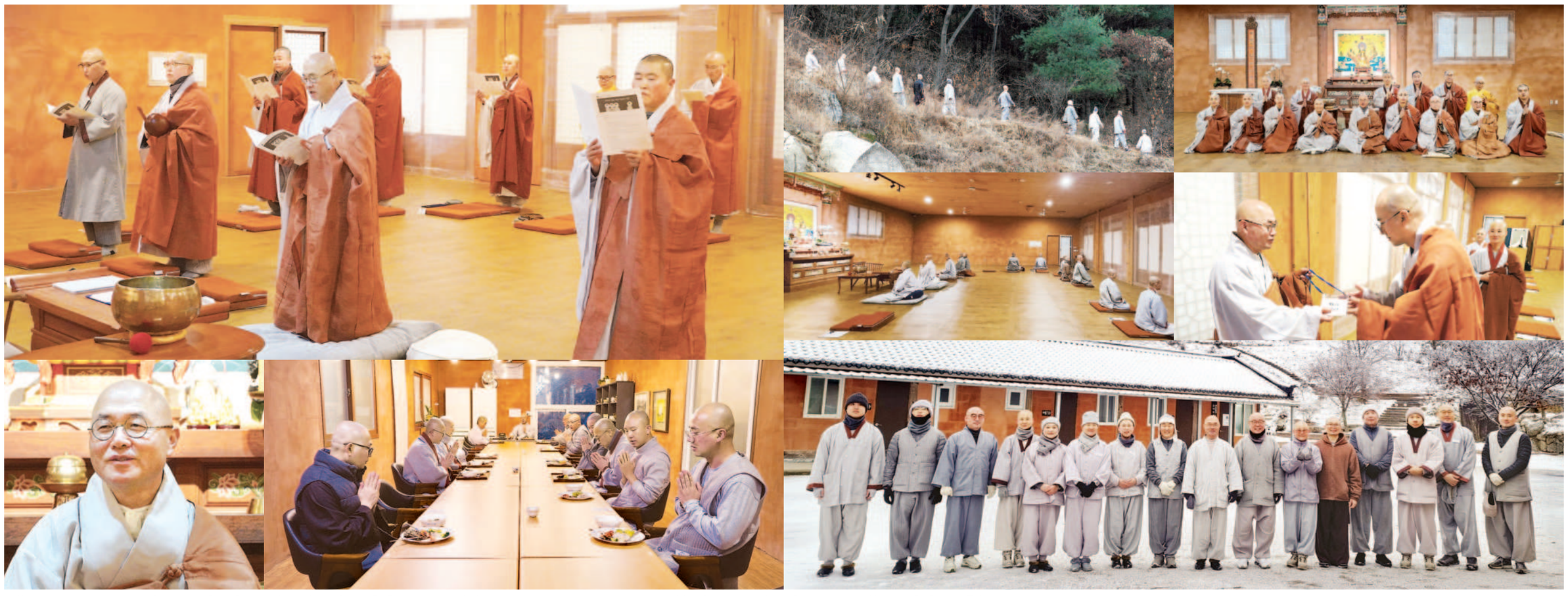
2025년 7월 13일 안성 연등사서 진행된 4대 회장 취임 및 임원위촉식.


2025년 12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풍 총동문회 송년의 밤.


2025년 4월 23일 안성 4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5년 4월 9일 탑골공원에서 원각사서 무료배식봉사 모습.


자비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중앙승가대 선명상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 15명은 7박 8일 동안 안성 참선마을에서 좌선, 걷기 수행, 다도, 화두 참선 등을 통해 '선명상'을 익히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전법 나설 학인 스님, 선명상으로 '마음'부터

안성 참선마을 '참사랑의 향기' 현장

7박 8일간 선명상 집중 수행
중승대 학인 스님 15명 동참
매일 좌선 · 울력 · 다도 등 체험
"나 돌아본 소중한 경험" 호평

안성=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선명상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때, 화를 다스릴 수 있고 그만큼 나 자신과 이웃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선명상을 실제 경험해 봐야 포교 현장에서도 재가불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관현 스님)

"선명상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은 AI시대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며, 불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일월 스님)

중앙승가대 선명상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 15명이 안성 참선마을이 운영하는 '제152회 참사랑의 향기' 선명상 프로그램 참여를 앞두고 수행자로서의 다짐과 기대를 전했다. 이들은 졸업 후 포교 일선에 나서기 전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선명상을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통해 수행과 전법의 기초를 다진다는 각오다.

'참사랑의 향기'는 참선마을 선원장 금강 스님(조계종 선명상위원장)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으로, 7박 8일간 외부와 접촉을 단절하고 '마음 청정', '마음 집중', '직관 수행' 등을 통해 선명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과정은 중앙승가대에서 금강 스님의 강의를 듣는 3·4학년 학인 스님들이 방학을 맞아 그동안 배운 이론을 실참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12월 12일, 스님들은 겨울 찬바람을 가르며 참선마을에 도착했다. 방학식을 마치고 곧바로 참선마을을 찾은 스님들은 짐을 풀자마자 첫 일정으로 습의에 들어갔다. 습의를 지도한 참선마을 천지 스님은 "이 기간만큼은 최대한 묵언하고 청규를 철저히 따르며 생각을 비워내야 한다"며 "비움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님들은 선원 뒤편에 조성된 산길을 포행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자연으로 스며들었다. 앞선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음걸음에 집중하며,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선명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이후 끊임없는 정진과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스님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서원'을 통해 "모든 중생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전심전력으로 수행해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다고 발원했다.

금강 스님은 법문에서 일주일간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당부를 전했다. △회향까지 자리를 지킬 것 △묵언을 통해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릴 것 △오후불식할 것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킬 것 △다른 수행 경험과 비교하지 말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등이다.

금강 스님은 "수행하는 동안 마음은 수없이 변한다.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면서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수술하는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반조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거짓말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본격적인 수행에 돌입했다.

수행은 매일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 수행의 바탕을 다졌고, 셋째 날부터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번뇌를 알아차리며 내면에 집중하는 힘을 길렀다. 마음과 호흡이 자연스레 하나로 모인 이후에는 화두 참구로 번뇌를 걷어내고, 지혜를 찾아 나섰다.

스님들은 일주일 동안 채식 위주의 공양을 하며 생명존중의 마음을 되새겼고,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예불과 좌선, 행선, 울력, 다도, 걷기 수행과 108배, 화두 참선, 수행 문답 등을 반복하며 마음껏 선명상에 몰입했다. 금강 스님은 선명상이 "욕망을 극복하고 '내'가 삶의 주인공임을 깨달아 지혜와 자비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이라며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마음을 본심으로 되돌릴 수 있다. 나를 이끄는 '주인공'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진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만큼이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와 마주하게 된 스님들은 알찬 프로그램 구성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정을 회향하며 쓴 '소감문'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감정과 생각들이 재확인됐다.

"7박 8일간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세상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짜 수행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사중생활을 이어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요한 울림을 일상에서도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스님은 어디에서든 잘 적응해야 한다'는 금강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7박 8일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앞으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거나 포교 현장에서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 털어내야 할 군더더기가 많지만,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싶습니다.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수행에 빠졌다'는 말처럼, 언젠가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발원합니다."

"출가 후 한시도 마음을 쉬지 못한 채 바쁘게 달려왔다는 걸 참선마을에 와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쌓인 거친 마음과 번뇌를 조금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학인 스님들은 12월 19일 일주일간의 선명상 집중 수행을 회향하고 전법의 길을 향한 원력을 담아 일상으로 돌아갔다.

'참사랑의 향기' 는 근대 선지식 서옹 스님이 이끌었던 '참사람 운동'을 바탕으로 개발한 참선집중수행 프로그램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법을 체계화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백양사에서 진행된 '참사랑 수행 결사'를 모태로, 이를 확대·발전시켜 지금의 7박 8일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금강 스님은 해남 미황사와 안성 참선마을, 제주 원명선원 등에서 약 23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1300년 역사가 흐르는
강화도 마니산 정 수 사
주 지 성 원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258번길 142
☎ 032-937-7601, 010-5750-3612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묘 장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3길 56
(회기동 109-1)
☎ (02)962-6186

대한불교조계종
금 륜 사
회 주 본 각
주 지 효 욱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6-10
전화 02)357-9031
홈페이지 kumryunsa.kr

(사)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도암
사부대중 일동
천호월서희망재단 후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길 51-12
043-286-0108

“충분·충만·온전” 선명상으로 키우는 마음 근육

현대불교신문 ×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혜주 스님 ‘선명상과 통합된 토요명상’ 현장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운영
공통 변화로 ‘마음 평안’ 확인
“수행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
선명상으로 희망찬 새해 꿈꿔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2025년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배낭을 둘러멘 주부, 가벼운 옷차림의 직장인, 나란히 걸음을 옮기는 모녀까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바쁘게 살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 귀한 주말 시간을 낸 이들이다.

이날은 조계종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이 운영하는 ‘선명상과 통합된 토요명상’ 3개월 과정의 마지막 날로, 기초·심화반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그간의 변화를 돌아보고 수료증을 받는 자리였다.

혜주 스님은 9월부터 매주 토요일, 각 15명 정원의 기초반 ‘명상에 들다’와 심화반 ‘명상에 거닐다’를 진행해 왔다. 기초반은 명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익히는 입문 과정이다. 심화반은 선명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참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이론 수업을 마치고 9주차 과정에서 1박 2일로 선명상 집중 수행 리트릿(Retreat,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면을 수련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집중 수행을 통해 화두명상과 호흡명상, 차명상 등 다양한 선명상을 경험했다.




차담 시간에 준비된 돼지감자차와 다과.

‘체크인 선명상’으로 몸 · 마음 확인

마지막 수업을 함께한 참가자들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첫 순서는 ‘체크인 선명상’. 평일 동안 외부를 향해 분주하게 흩어졌던 감각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혜주 스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다. 작은 소리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거슬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선명상이며, 그렇게 평안함을 경험하면 마음속 장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지도에 따라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흐트러졌던 자세를 가다듬었다. 싱잉볼에서 울려 퍼지는 깊고 묵직한 파동이 공간을 채웠고, 그 울림 속에서 각자의 호흡에 집중했다. 잠깐의 명상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평안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됐어요.” “공사 소리에 마음이 자꾸 끌려가 제가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반응은 각양각색. 그래도 ‘평안함’만큼은 분명히 느낀 시간이다.

선명상, 일상 속 내면 살피는 길잡이

혜주 스님은 이러한 마음의 안정이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해·충만해·온전해 선명상’을 소개했다. 삶이 버겁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자신을 살피는 길잡이로 활용해 보라는 뜻에서다.


‘선명상과 통합된 토요명상’ 참가자들이 혜주 스님의 지도 아래 흩어졌던 감각을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오는 ‘체크인 선명상’을 하고 있다.


수료식이 끝난 후 기념사진 촬영.


선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나눈 차담.


수료증을 수여하는 혜주 스님.

‘충분해 선명상’은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혜주 스님은 “평안하기만 한 태도가 욕심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한 발 한 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욕심은 한 걸음을 가야 할 때 두 걸음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며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충만해 선명상’은 분노와 탐욕에서 비롯된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기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온전해 선명상’은 탐심(貪心)과 치심(痴心)과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혜주 스님은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듯 마음도 마찬가지다. 집중할 땐 집중하고, 알아차림으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심탄회’ 질의응답으로 마음 나누기

이날 실참을 마친 기초반 7명과 심화반 5명에게는 수료증과 책갈피, 소형 싱잉볼이 주어졌다. 출석을 모두 채우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선물이 수여됐다. 수료 여부를 떠나 각자의 속도로 선명상 실천을 이어가길 바라는 응원의 뜻이었다.

이어 불교와 선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차담이 진행됐다. 스님과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느낀 변화와 수행 중 마주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누워서 명상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혜주 스님은 “명상은 접촉된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행이다. 누운 자세 역시 몸 전체의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누워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몸 전체를 활용해 회복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분노 조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혜주 스님은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친다”라면서도 “생존을 위한 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짚었다. 스님은 “동물의 화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만 나타난다”며 “감정적으로 오해해 분노를 쌓아두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화를 다루는 방식 역시 그 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는 관계 속에서의 균형을 지적했다. 혜주 스님은 “자기중심적 사고는 쾌락만을 좇는 이기심”이라며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에서의 일정한 긴장과 절제, 마음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늘 유튜브를 보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누워서 몸을 스캔하는 이완 명상으로 잠든다”, “싱잉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의 감정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출퇴근 시간 틈틈이 명상하다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낀다” 등 선명상을 통해 달라진 일상도 공유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혜주 스님은 “달팽이는 느리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 개미의 발소리처럼,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쌓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99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것은 안 되는 방법 99가지를 알아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안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역설했다.

새해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 찾아오는 모든 감각을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환대해 보세요. 그렇게 자비와 지혜를 익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선명상으로 나와 남에게 이익되는 새로운 경험을 해 보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지금’에 집중할래요”

3개월간의 선명상으로 참가자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한 희망찬 발원으로 이어졌다. 조용현(71, 법명 도현) 불자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마주하며 선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거스를 수 없는 노화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선명상을 통해 조금씩 배우고 있다”며 “명상을 하다 보니 생각의 전환이 이전보다 한결 빨라진 것 같다. 앞으로도 더 깊이 배우며 꾸준히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함께 참여하게 된 장서연(24) 씨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며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감정 조절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는데, 선명상을 알고 난 뒤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새해에는 ‘지금’에 집중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영평동)
전화 (064)727-3100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

천안 도광사

주지 탄문 스님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
사찰순례단
마이트리봉사단
신도일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6길11
(041)555-8548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승천사

주지 원공

탄산수가 흐르는 사찰
전통 사찰 장류의 맥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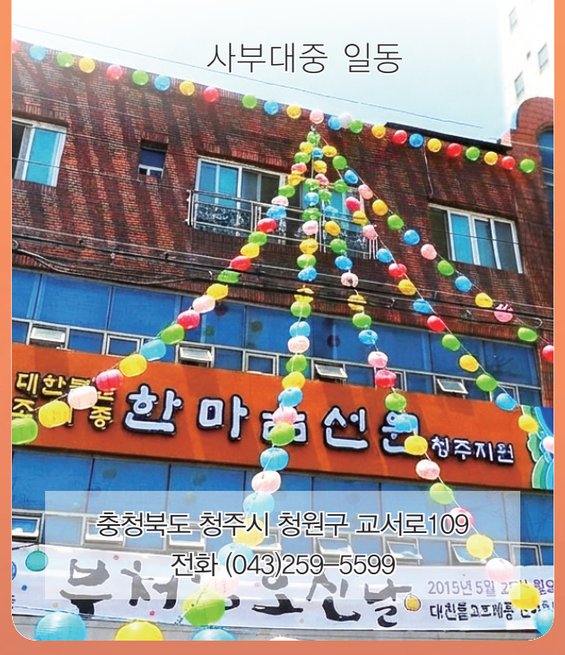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46
전화 041)554-459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109
전화 (043)259-5599

군산불교 사암연합회

성흥사 송월 흥천사 법운
동국사 현적 보천사 의종
은적사 법자 삼보사 법송
관음사 도천 수도암 무진
광법사 명각 도안사 명현
지장암 원휴 대명사 덕인
운심사 진우

회장상주사 도연 재무 염불사 혜윤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전화 063)453-7800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산 내장사

주 지 대원

사부대중일동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53
전화 063)538-8741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수좌 철산
주지 재안

총무 진법 재무 석우
연수 진각 포교 현각
도감 진만 부전 본유
신도회장 문용순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www.naesosa.kr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지장참회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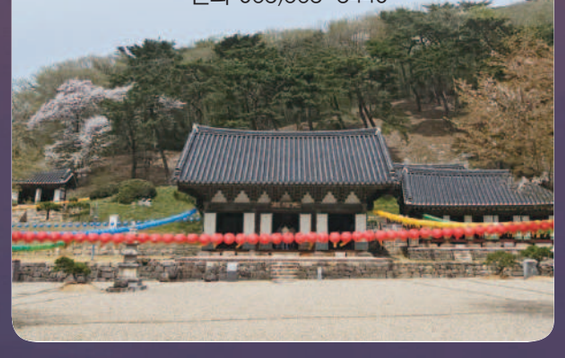
도솔산 참당암

선원장 법만

참당선원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전북불교회관

회주 불일 평상
교구장 지문 화평
주지 제환

-부 설-
· 화엄불교대학
· 룸비니어린이집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화 063)277-3497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섬김봉사단
사부대중 일동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37-1
063)432-0880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흥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월
주지 보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암

포근하고 넉넉한도량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산 문수사

주 지 태효

사부대중일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전화 063) 562-0502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대각사

사부대중 일동

운영지원기관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 행복한이주민센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광진노인보호센터 / 효지어린이집
화송어린이집 /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28번길 68 ☎ (031)334-5702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

사부대중 일동



문화와 힐링이 있는 사찰

용인 연화사

清翁 本自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832-38
☎ 031-323-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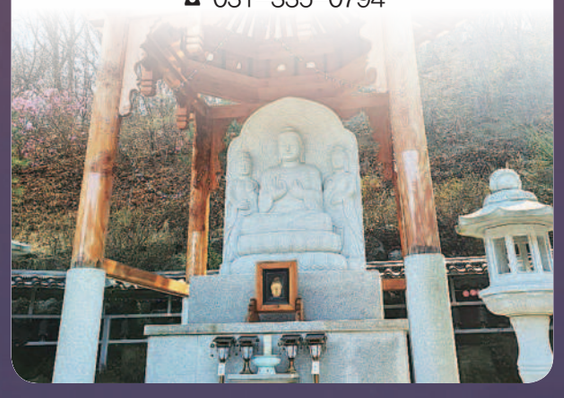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좋은절

주지 법경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77-11
☎ 031-335-0794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전통사찰 제95호

용인 갈마산 동도사

주지 도원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진로 842
☎ 031)333 7747



대한불교천태종

백인사

주지 월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로 77-11
☎ 031-335-0794



대한불교조계종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백련사

주지 법공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애버랜드로 456번길 290
☎031)338-6639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석성산 백령사

주지 돈각

사부대중 일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204
☎ 031)322-3302



대한불교조계종

운학산 普德관음사

주지 혜오

사부대중 일동

불교대학
선명상템플스테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로 187
☎ 031)332-1133
홈페이지:보덕관음사.kr



호국불교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주지 정행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82
☎ 031)331-1630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시공간 허문 수행으로 일상을 깨우다



김영애 문사수법회 법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금강경〉 사경 선명상 모임 참가자들이 12월 14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발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간 사경한 노트를 들어 보였다.

줌으로 만난 '온라인 선명상'

송정인 수습기자 hbpress@hyunbul.com

마음의 안정과 고요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 '선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프라인 수행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부담이 되기 쉽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온라인 선명상'이 새로운 수행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영애 문사수법회 법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금강경〉 사경 선명상 모임이 대표적이다. 문사수법회는 그동안 〈금강경〉을 중심으로 수행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자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행 모임을 본격화했다. 이때 시작한 온라인 선명상은 안정적으로 정착해 현재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모임은 매일 새벽 6시에 줌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약 30분간 각자 〈금강경〉 사경을 한 뒤, 30분에서 1시간가량 공부를 함께한다. 이 시간에는 〈금강경〉 법문집을 낭독하고, 각자의 일상을 법문에 비춰 보는 시간을 갖는다. 매일 평균 3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이들도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

사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한 자 한 자 경전을 써 내려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긴다. 사경이 끝난 뒤에는 단체 채팅방에 사경한 사진을 공유하며 하루의 수행을 회향한다. 현재 약 130명이 채팅방에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하루를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김영애 법사는 12월 14일 저녁 8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발원을 나누는 특별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약 10분간 사경에 참여하며 온라인으로 선명상을 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에 집중했다.

화면 속 참가자들의 표정은 차분했고, 사경을 써 내려가는 분위기는 엄숙했다. 김영애 법사는 "사경은 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온몸으로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수행"이라 강조했다.

사경 시간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각자 사경한 노트를 화면에 들어 보였다. 한글과 한자로 빼곡히 채워진 노트에는 지난 1년간 수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참가자들은 "처음보다 속도도 빨라지고 글씨도 안정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득 씨는 "처음에는 사경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00일 이상 이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선명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기에 서울·경기권뿐 아니라 담양, 부산, 창원, 남해 등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김희정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인을 통해 이 모임을 알게 돼 시차가 있음에도 참여했다"며 "온라인 수행 덕분에 해외에서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온라인 선명상이 한국불교의 글로벌 전법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 다른 장점은 '라디오처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면을 켜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근 준비나 여행 등으로 여의치 않을 때 화면을 끄고 소리만으로도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비대면 수행이 처음인 참가자들이 화면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이미희 씨는 "처음에 줌 화면을 켜는 것이 부담돼 얼굴을 비추지 않고 듣기만 했지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충분했다"며 "이후 용기를 내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켜고 말도 하게 됐다"고 경험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영애 법사, '온라인 사경 선명상'
서울뿐 아니라 전국·해외까지
비대면이어도 '연결감'은 확실
이웃·사회 위한 '발원'으로 확대

온라인 선명상은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수행하면서도 도반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외롭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절이나 법회에 모이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최가영 씨는 "온라인 선명상에 참여한 뒤 늘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지영 씨 역시 "도반과 함께 사경하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다"고 전했다.

온라인 선명상은 포교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불자가 아니었던 이들이 수행에 참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받아 수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씨는 "온라인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한국에 돌아와 문사수법회에서 오프라인으로 계를 받았다"며 "계를 받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선명상을 향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직접 만나 수행하는 것에 비해 친밀감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영애 법사는 "온라인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법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강경〉 완독 후 회향은 함께 모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수행은 강제성이 없어 우려된다는 질문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 오히려 수행의 지속성이 있다"며 "만약 한 번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선명상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수행을 통해 발원의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소원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이웃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위한 발원으로 확장됐다. 부처님의 법을 혼자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는 바람도 커졌다. 이미정 씨는 "기도의 방향이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사회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영애 법사는 온라인 선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긴 시간을 하려 하기보다 1분, 5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수행이 더 하기 싫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법사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수행이 습관이 된다"며 "사경이든, 108배든, 사람마다 맞는 수행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좋은 도반과 함께 부담 없이 즐겁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청정 염불수행도량 현지사

병오년 새해에는 탑돌이 영험도량 현지사에서

탑돌이하고 소원성취 하시옵소서!



종조 광명 만덕 큰스님
회주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 교정원장 일도
감찰원장 범행 /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 제주제2본사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 일본분원 주지 성도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kr
• 춘천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B2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죠마치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일상서 선명상 실천하면 화엄세상이 열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인터뷰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금강 스님은…17세에 대흥사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중앙승가대학,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공부했다.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해남 미황사 주지를 맡아 참선수행–참사랑 향기,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행 ·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를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불안과 우울, 고립과 경쟁이 일상이 된 오늘날 ‘마음의 평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 제37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선명상’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실천하겠다는 발원이다.

지난 3년간 조계종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을 현대 사회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찰과 템플스테이, 학교와 직장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선명상은 대중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 평안을 이루는 가장 쉽고 명확한 수행’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제37대 집행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는 선명상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만나 선명상 도입 과정부터 지난 3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Q. 이 시대 선명상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후 ‘한국불교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장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살률은 높고 정신질환과 불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간화선을 중심으로 마음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수행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모습은 달라졌지만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불교가 마음의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Q. 왜 ‘선명상’인가?

간화선 수행에는 이미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간화선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명상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입니다.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명상은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수행인 동시에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선명상이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수행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상업화하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종단 차원에서 선명상의 의미와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최근 선원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도 선명상을 포교 방편으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다양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제고됐다.

Q. 선명상 대중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2002년 템플스테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행 중심의 공간인 사찰을 대중에게 어디까지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어떤 수준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선명상 역시 ‘5분 선명상’처럼 짧고 간단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어, 자칫 불교 수행이 얕은 수준으로 인식되거나 일회적인 체험·소비로 흐르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Q. 우려는 어떻게 해소했나?

선명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명상은 정보와 경쟁 속에서 분별심이 커진 현대인의 삶에 ‘잠시 멈춤’을 제안하는 수행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점에 많은 스님이 공감해 주셨고 “쉬워져서 좋다”, “대중에게 설명하기 수월해졌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명상이 불자들만의 수행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심어졌습니다.

선명상, ‘마음 평안’ 수행으로 정착
상업화 우려 딛고 포교 방편 공감
프로그램 개발 · 지도자 양성 박차
센터 건립 등 중장기 방향 구상도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난 3년간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고 명상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명상 보급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명상을 지도해 온 스님과 재가 지도자들로 구성된 선명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본격화됐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됐고 5분 선명상, 1시간 과정, 1박 2일·2박 3일 체험형 과정, 4주 과정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됐다. 또 전국 사찰과 선원 등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명상 지도사 양성과 교육과정 설계도 추진해 현재까지 100여 명의 스님 지도자를 배출했다.

미래본부에서는 선명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프로그램 안내,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했다.

Q. 지난 3년간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를 꼽는다면?

새로운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안착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명상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명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에게 친숙해졌을 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수행’, ‘한국형 명상 모델 구축’, ‘불교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보완할 과제는?

선명상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와 함께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는 연구소가 설립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상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한 수행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령대와 직업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고, 앱이나 AI 기반 프로그램이 대중화된다면 선명상의 접근성과 실천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조계종은 유엔(UN) ‘세계 명상의 날(12월 21일)’ 제정 1주년을 맞아 한국위원회를 결성해 명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한국위원회는 명상을 확산하기 위해 범종교계와 국내 명상 단체들이 뜻을 모아 구성한 연대 조직이다. 조계종은 한국위원회 출범을 통해 명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선명상 대중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 선명상센터 건립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구상하고 있다.

Q. 선명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남을 돕고 배려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화엄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별심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와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몸을 씻듯 마음도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만이라도 ‘마음 샤워’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회 주 상 진
원 로 도 암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원 주 일 겸
대 중 효 성, 일 준, 일 월
수 호, 수 근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효 능
류기석
최종남
허대형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현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실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사무주임 신다은(소명)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성**

주지 **두현**

신도회 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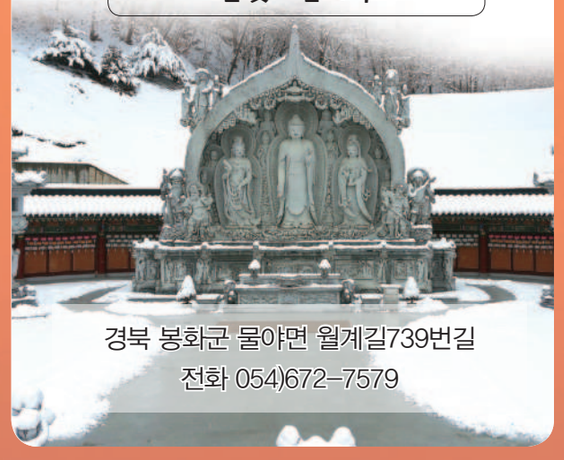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 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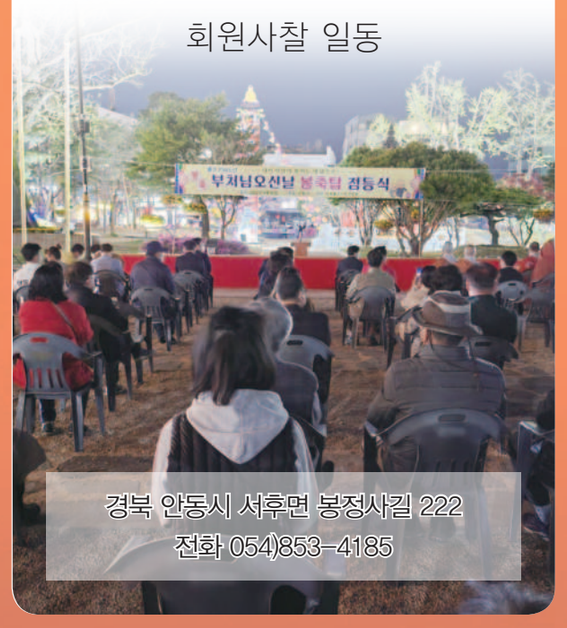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법준**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다 결부시킨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처할 수 있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10
전화 054-555-887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선덕정사**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부처님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지 **능도**

사부대중일동

용연사 불교대학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토요 경전반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토요 선명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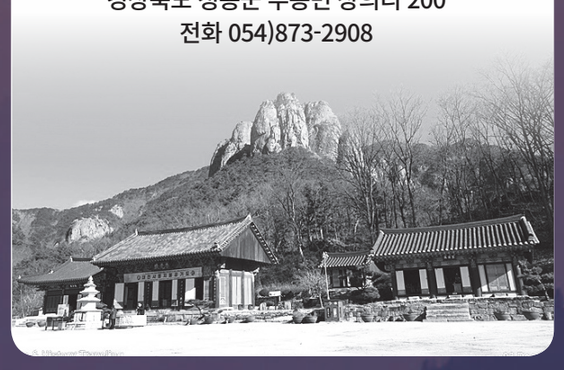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260
☎ 053)616-8846 팩스053)616-0408
용연사 불교대학 053)616-9825

대한불교조계종

대전사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전화 054)873-2908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주지 **여여**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46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관운사

회주 **지산**

주지 **징암**

사부대중 일동

관운사 다음카페 : cafe.daum.net/guanunsa
YouTube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TV"

관운사 가야 복지센터 Tel (054)933-0808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장 **조신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우학스님 유튜브불교대학

우학스님 K-Buddha Village(부처님마을)

55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포교가 곧 수행 , 수행이 곧 포교"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지도법사 **해공 스님**
단 장 **박종안**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송재린**
감 사 **김영신, 윤영준**
부 단 장 **조봉례, 최우성, 이수임, 주태돈**
총괄팀장 **이명숙 지윤식, 김홍태, 하창균, 이천봉, 김진희, 송주희**
사무국장 **노현승**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501호
☎(051)633-3011,3015 Fax 051)633-3012
www.pogyosadan.org
https//cafe.daum.net/bgpogyosadan/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 지 **무 아**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 원 각 사

주 지 **안 도**
신 도 회 장 **정 재 원**
수석부회장 **이 복 덕**
다 도 **김 미 규**
불 무 도 **박 성 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 주 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 포 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조기자 신이순**
고 문 **김일호**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법당꽃보살 **주원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43-6589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해암, 성문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대각,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법경, 배종권**

外 운영이사 일동

주요사업 :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헌혈증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 (수정동, 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동 국 한 의 원

"일체가 화합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발원합니다"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사)부산파라미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정 오**
부 총 재 **법 귀 도 림**
사무총장 **해 공**
협 회 장 **백 명 숙**
사무처장 **정 경 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o/p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 지 **자 인**
신도회장 **용담 최금식**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FAX 051)973-3076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부산경찰청불자회

회 장 강용창
부 회 장 김현길
오주연
총무국장 김정화
포교국장 강미아
대외협력국장 신용필

부산경찰청불교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1층 법당
전화 051)852-1419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회 주 선묵 고담 대종사
주 지 법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총 무 수진법사
원 주 정정자

신도회회장 이상봉
신도회부회장 백현일
장문정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고담·나누미총무 홍현주
청년회법향회장 이정민
청년회법향총무 이영주

사부대중 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천불정사 |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 전화 051)516-2333 팩스 051)517-2333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순이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특별임원 임춘지
감 사 강행순 강지원
재 무 윤정희
총 무 송순애
팀 장 최말순 김금옥 박선자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위드아시아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
못골다함께돌봄센터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복지센터
북구장애인복지관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덕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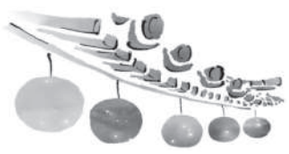
주 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락서암



주 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대한불교조계종

황련사

주 지 정 산

황련사 신도일동

청년회 모집
지도법사 **태전**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 나길 25
전화 051)756-5794

부산 제1호 녹색사찰

대한불교조계종

도림사

"온 생명의 벗,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갑시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18번길 64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 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 대학원
포교사반(1년), 입문자반(3개월)
대학원(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발원사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세요"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국민은행 611-24-0278-714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3544-7500 (회장 권성열 교수)

진정한 위험은 '멈추지 못하는 마음'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① AI 기술 질주 앞에서 묻는 윤리적 질문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인간의 욕망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위험해질까.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문장은 감탄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이 실행되는 대사다. 파우스트는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성취와 함께 영혼의 자유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내어 주기로 약속한다.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괴테는 이 한 문장에 압축해 두었다.

작품 속 파우스트는 무지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까지 모두 섭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더 알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으며 인간의 조건 자체를 넘어서는 힘을 갈망한다. 중요한 점은 그의 욕망이 결핍에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결국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의 본질은 지식의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윤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이다. 파우스트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집요하지만, 그 가능함이 낳을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는다.

이 장면은 오늘날 "먼저 만들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AI 개발의 가속주의 논리와 정확히 겹쳐진다. 기술은 손에 쥐는 순간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자유의 비용은 늘 뒤늦게 드러난다. 파우스트가 얻은 능력은 놀랍다. 그는 젊음을 되찾고 사랑을 얻으며 자연을 개간하고 문명을 확장한다. 그러나 그의 성취가 쌓이는 곳마다 누군가의 삶은 무너진다. 그가 사랑했으나 끝내 파멸로 몰아넣은 연인, 그레첸의 비극은 파우스트의 악의가 아니라, 자기 성취에 도취된 나머지 책임을 유예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AI 역시 악의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모델, 더 빠른 연산,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 내는 성취의 순간마다, 우리는 묻지 않은 질문들을 남겨 둔다. 이 기술은 누구를 배제하는가, 어떤 고통을 가속하는가, 어떤 생태적 비용을 남기는가. AI 개발 경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성능의 도약 앞에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말은 기술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 멈추는 법을 잊었을 때, 가장 찬란한 성취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AI시대의 윤리란,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감탄의 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AI 개발 경쟁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AI 패권을 쥐기 위한 기술과 자본의 결집이 곧 국가 경쟁력과 기업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판단 구조와 권력의 흐름,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재편하는 핵심 행위자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가 던지는 윤리적 질문은 지나치게 늦고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오늘날 AI 개발은 명백히 경쟁의 논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먼저 만들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공포, 먼저 점유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는 불안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집요하게 반복되지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늘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이 연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술의 성능이나 전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예돼 온 윤리적 질문들이다.

경쟁 논리로 선점 중요한 AI시대
알고리즘이 결정 책임 회피 야기
행위 결과, 의도와 선택으로 귀결
윤리적 질문 멈추지 않는 용기 要
불교 윤리가 성찰 사유의 틀 제공

AI시대의 윤리적 쟁점은 과거의 기술 문명과 질적으로 다르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는 책임의 주체를 잃어가고 있다. 알고리즘의 결정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데이터에 내재된 차별이 자동화될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언어와 감정 표현은 우리의 판단을 어디까지 흔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술적 해결로는 결코 봉합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윤리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다.

더 나아가 AI는 생태 위기라는 중대한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연산을 위한 전력 소모, 희귀 자원의 채굴, 빠른 기술 교체가 남기는 폐기물은 기후 위기와 직결된다. 기술은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생태적 비용이 존재한다. 인간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구축된 지능이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면,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다.



불교 윤리는 AI시대를 성찰하는 유용한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불교는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를 먼저 물어 왔다. AI 윤리를 불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기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인간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요청이다. **출처=구글 나노 바나나 생성 이미지**

이 모든 사안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위험이 흐른다. 인간이 판단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가 돼 가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의도와 선택으로 귀결된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붓다는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의도이다. 의도함으로써,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업을 짓는다"라고 설한다. 나의 결정을 타인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 윤리는 AI시대를 성찰하는 강력한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불교는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를 먼저 물어 왔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AI 역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두려움, 경쟁 논리가 얽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연재는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AI를 둘러싼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윤리적으로 묻는 작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앞으로 AI 의식 논쟁, 책임과 자율성, 차별과 감시, 생태 위기, 노동과 존엄, 통제 불가능성의 위험까지, AI시대가 던지는 윤리적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 볼 것이다. AI 윤리를 불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기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인간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요청이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이는 너다."

초기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 제86경에서는 '멈춤'이라는 윤리적 전환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 주는 일화가 전해진다. 바로 연쇄 살인범 앙굴리말라가 붓다에게 "멈춰라!"라고 외쳤던 사건이다. 앙굴리말라는 당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니던 악명 높은 살인자였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미 999명을 살해하고 단 한 명만을 남겨 천 명을 채우려 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 희생자로 붓다를 지목하고 칼을 들고 뒤쫓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붓다는 평상시처럼 천천히 걸을 뿐인데, 아무리 전력을 다해 달려도 앙굴리말라는 그와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지쳐 버린 앙굴리말라가 결국 소리친다. "사문이여,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때 붓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답한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이 말은 물리적 움직임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붓다가 말한 '멈춤'은 탐욕과 분노, 무명에 의해 몰아가는 삶의 방향을 멈추는 것이었다. 반대로 앙굴리말라는 온몸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폭력의 충동을 한 번도 멈춰 세운 적이 없었다. 이 한마디는 앙굴리말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붓다의 제자가 된다.

진정한 위험은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다. 붓다는 폭력을 제압하지 않았고, 더 빠른 힘으로 맞서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누가 멈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는 오늘날 AI 기술과 경쟁의 속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가장 오래된 윤리적 물음이기도 하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단고문 석 암 도

승 정 원
대승정 석벽봉

원 로 원
원로원장 석법령 위원 석일우 위원 석도명 위원 석청산 위원 석체법 위원 석일두 위원
석혜천 위원 석일현 위원 석진공 위원 석보각 위원 석해공 위원 석보현 위원

총 무 원

총무원장	석 도선	교육부원장	석 원융	비구니회장	석 보현
중희의장	석 일두	호법원장	석 종허	기획원장	석 담허
어 산 장	석 도암	감찰원장	석 원허	의전원장	석 법도
부 원 장	석 대공	총무부장	석 성덕	감찰부장	석 성보
조사부장	석 성도	수행부장	석 성현	사회부장	석 자광
사서부장	석 성우	조직부장	석 성각	종무부장	석 성안
문화부장	석 성타	포교부장	석 천지	연수부장	석 원희
총무국장	석 성민	지원국장	석 해인	봉사국장	석 성광
포교국장	석 혜진	포교국장	석 법정	포교국장	석 성원
의전국장	석 균중	수행국장	석 성조	종무국장	석 성진
문화국장	석 원종	의식국장	석 성탁	사서국장	석 성오

비구니회
회 장 석 보현 부회장 석 지현 부 장 석 성안 국 장 석 해인
위 원 석 원조 석 천지 석 성원 석 호준 석 반야 석 혜현 석 현덕 석 현도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 천 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 의 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 명 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 성 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 홍 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 혜 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 원 해	대전중앙종무원장	석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 체 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 문 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 태 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 도 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 성 원	천안중앙종무원장	석 함 월	창원중앙종무원장	석 청 암	경남중앙종무원장	석 일 지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동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진허

종립미래로봉사회

희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 임원

울산원장 법 광	전남부장 혜 명	포교국장 청 운
종무원장 성 종	대구부장 혜 련	통영국장 덕 인
홍보원장 원 명	충북부장 상 학	화순국장 보 정
구미부장 혜 진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경
부산부장 혜 성	종무국장 도 연	칠곡국장 보 혜
경기부장 자 운	서울국장 명 덕	창원국장 혜 운

법인단체임원
대표이사 석 도선
등기이사 체법 성만 보현 무산
운영이사 성덕 청암 학산 성원
감 사 성민 성각

총본산 · 총무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신도회장 **임원식**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고 문 **김경희**(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장안중 · 장안제일고 이사장)
배한욱(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회 장 **손은주**(건국중 교감)
수석부회장 **이성희**(전 엄궁중 교장)
부 회 장 **최은영**(전 당평초 수석교사)
사 무 총 장 **박향림**(장안중 교감)
간 사 **박민수**
자림회 회장 **허은정** 수교회 회장 **오윤표**
청림회 회장 **박종숙** 푸루나 회장 **최준철**
아리호 회장 **박명희** 부토이 회장 **김재경**
반야회 회장 **송외순** 정법회 회장 **정소혜**
마불회 회장 **김복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2길 43
전화 010-2839-4094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수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체험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 1:1)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동행 With Us"
후 원 : 부산은행 101-2075-9587-04
예금주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15
Tel.051)790-6100 Fax.051)868-3518
www.rehabcenter.or.kr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 무 총 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 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항조 동주
오심 만초 동진 수진행
감 사 : **영산 도광록 회계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불 인 사

주 지 **송산 스님**

미소도량불인사
미소명상센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 못안길18
전화 055)338-1638

대한불교총화종

고성 청 수 암

주 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고성군 삼산면 대독1길 85
전화 055)672-6972

한국불교태고종

석 봉 암

회 주 **월봉 스님**
주 지 **자명 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77-42
전화 055)223-680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6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종성/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남 정**
총 무 **지 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 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정진!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장 경 사

주 지 수 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76
☎ (031)743-6547, 010-2023-6547 Fax 744-9197
www.jangkyu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 주 성 일
주 지 선 관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회 주 벽산 원행
주 지 응묵

사부대중 일동

법회안내 초하루법회 • 보름(인등)법회 : 오전10시
불교대학 • 불교입문교육 • 경전반 운영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구의2동 9)
전화 02)444-4321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 성 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www.samsungam.org

조계종 고문변호사로서
20년의 노하우!

창건주 승계, 유언 소송, 토지분쟁 등
사찰분쟁의 해박한 지식과
소송 경험을 겸비한

불교계 대표 변호사
김봉석!!!

정률 법무법인 02)2183-5500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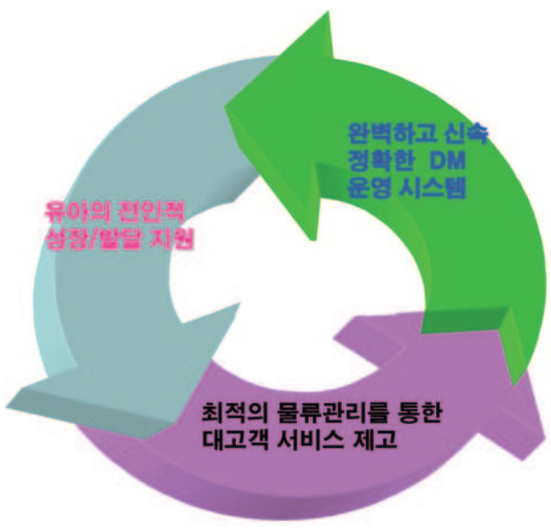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daum.net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2026년 1월 1일 목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1호 | C18 | 전면광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 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10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11억

주차 가, 매수 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2천만원

010-3466-999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주택 / 약30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 임대(매매전까지 평생거주)
- 보증금 : 3,000,000원
- 월 세 : 300,000원
- 가 액 : 75,000,000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2억 7000만원(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010-4474-841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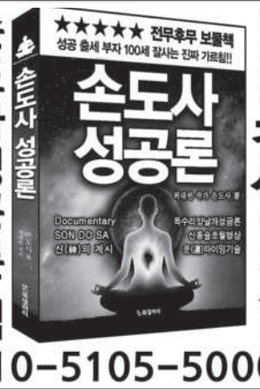
수강생 모집

명리. 육효
영가 찾는 법

- 내 용 : 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 수강료 : 1개월 무료, 월 15만
- 장 소 : 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손도사성공론 책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생 이상향으로 인도, 수행 이끄는 상징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① 불교미술 속 말[馬] 이야기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애마인 적토마(赤兎馬)가 생각나지 않는가? 말은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해 왔기에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존재다. 말의 강인한 체력과 속도는 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요긴한 육로 이동 수단이었고, 고대 전쟁에서 기병(騎兵)은 승리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불국토의 안내자, 불교미술에 장엄된 말

그래서일까?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말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늘을 나는 천마(天馬)와 페가수스부터, 바다를 가르는 용마(龍馬)와 히포캄푸스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서 표현된 이런 모습은, 오랜 동반자인 말에게 이상적인 요소를 심어 주고픈 우리의 애정 어린 관심일지도 모르겠다.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상적 세계관에서도 말은 인간을 태워 유토피아, 즉 극락(極樂)으로 바래다준다. 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수많은 불교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벽화부터 수미단에 이르기까지, 말은 중생을 이상향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표현된다.

싯다르타 태자의 애마, 칸타카

과거에는 말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는 예로부터 말을 소유하거나 타는 행위를 경계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이전인 싯다르타 태자 시절, 승마의 달인으로 아끼던 애마가 있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八相圖) 가운데 네 번째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싯다르타 태자가 성 밖을 나와 출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고통받는 인간의 근본적인 해방을 위해 출가를 결심한 태자는 마부 찬타카와 마구간으로 향했다.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칸타카가 몸부림을 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태자가 성을 떠나려는 걸 직감한 듯했다.

태자는 칸타카에게 "나고 죽음에 윤회하던 것을 이제야 끊으련다. 칸타카야, 나를 도와다오. 내가 도를 얻으면 결코 너를 잊지 않으마"라고 달랬다. 태자의 말을 들은 칸타카는 차분해지더니 말굽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길을 나섰다.


태자출성상(인도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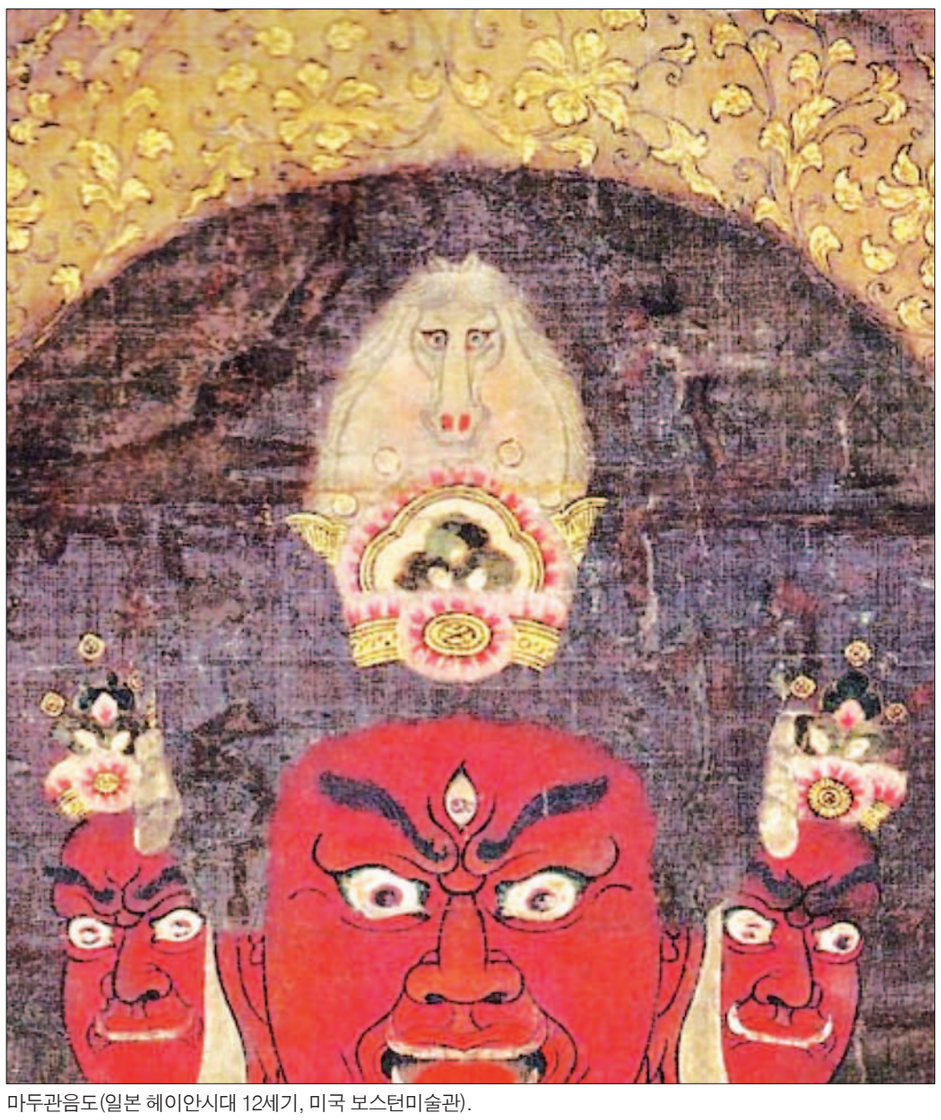

팔상도 유성출가상의 태자와 말(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의 천마(조선 후기).

이윽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태자와 마부 찬타카, 그리고 애마 칸타카는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는 밤새 달려 수행처에 이르렀고 영원한 이별을 했다. 주인을 떠나보낸 칸타카는 성에 돌아가지 않고 태자가 출가한 동쪽 문 앞을 서성이다가 눈을 감았다고 한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칸타카는 사후 브라만 계급의 인간으로 환생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태자와 칸타카가 헤어지는 장면은 인도 간다라 미술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소재로, 세상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고행길에 나서는 태자와 사랑하는 주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말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두관음도(일본 헤이안시대 12세기, 미국 보스턴미술관).

> **팔상도 유성출가상, 싯다르타 태자의 애마 이야기 담겨**
> **반인반수 마두관음, 대자비심 발현 위한 굳은 각오 표현**
> **〈법구경〉·〈보적경〉서 참된 수행의 길 매진 권면 뜻 담겨**
> **말의 해 맞아 스스로 살피며 지혜·자비 삶으로 끌어 주길**

중생 구제의 원력 '마두관음'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존재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습을 취하는데, 열한 개의 얼굴을 지닌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부터 천 개의 팔을 지닌 천수관음(千手觀音) 등 그 형상이 어떤 보살보다 다양하다. 이러한 관세음보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사례는 바로 마두관음(馬頭觀音)이다.

마두관음은 힌두교의 하야그리바(Hayagrīva)라는 신에서 유래됐으며, 인도 신화 속 유지의 신 비슈누(Visnu)의 아바타로 알려져 있다. '말 머리'라는 뜻을 지닌 하야그리바는 이름 그대로 말 머리에 인간의 몸을 지닌 반인반수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 같은 도상이 불교로 전해져 마두관음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관음은 다면다비(多面多臂)에 보관 또는 정수리 위에 말머리가 솟은 도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은 마두관음이 화가 난 표정의 분노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미술 속 분노상은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시왕(十王) 등 죄를 지은 중생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대부분이다. 관세음보살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화신임에도 험상궂은 분노상으로 표현된다니, 이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마두관음은 화내는 것이 아니다. 그 표정은 분노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을 더욱 발현하기 위해 미세한 번뇌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나타낸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자연스레 인상을 찡그리는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마두관음에 표현된 말 머리가 인간은 물론 축생(畜生)까지도 구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마두관음의 대원(大願)과 자비는 그 어떤 보살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에는 마두관음이 표현된 예가 드물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와 밀교가 유행한 일본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마두관음은 토착 신앙인 신도(神道)에 등장하는 신 우쓰노미야(宇都宮神)의 화신이기도 하다. 이는 신도와 불교가 합쳐진 신불습합(神佛習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신앙 체계에 영향을 미친 밀교의 영향력이 보이는 사례이기도 하다.

밀교에서 마두관음은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 혹은 '신질금강(迅疾金剛)'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대력지'란 큰 힘을 지녔다는 뜻이고, '신질'은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뜻이다. 강한 힘과 빠른 속도를 지닌 말의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름으로, 강하고 빠른 능력으로 중생 구원에 앞장서는 마두관음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수행 매진하라는 가르침 전해

이외에도 불교에서는 곧잘 사람의 행동을 말에 비유하곤 한다. 〈법구경(法句經)〉 '도장품(刀杖品)'에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권유할 만한 사람이니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하듯, 또한 훌륭한 말에 채찍질하듯, 도에 나아가되 멀리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보적경(寶積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느니라. 채찍을 휘두르는 그림자만 보아도 내달리는 말이 있고, 채찍이 털끝을 스칠 때 달리는 말이 있고, 몸에 채찍질을 당해 아픔을 느낄 때 달리는 말이 있고,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때려야 달리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다. 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채찍이 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참된 수행의 길에 매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불교미술과 경전에 등장하는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의 상징이다. 말의 해를 맞아 게으름과 타성을 내려놓고, 작은 경책에도 스스로를 살피며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된다. 말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듯, 올 한 해 우리 삶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힘차게 끌어 주길 발원해 본다.



김용덕 작가

2026 병오년

신발의 최소주의와 자연주의를 추구한다!

'발의 본래 감각'을 되찾는 리센스(Re-sense)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New

~~120,000원~~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홍재화 대표

모바일 구매 QR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뒤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제조원 필맥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 King Great Assembly

2026 세계법왕대법회

20여개국 승왕 초청 대법석

세계 평화와 자비의 길에 함께하는 세계 불교지도자의 법석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법회가
2026년 한국 대구에서 열립니다.

주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일시·장소: 추후 공지

세계가 하나되는 불교의 길, 평화와 자비로 이어갑니다

지구촌 평화와 조화, 인류의 상생을 위한 큰 법석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


세계불교 15개국 승왕들과 함께 연 세계불교법왕청 행사 장면


베트남 불교원로의장


미얀마 승왕(연방승가회회장) 접견


목탁 스님이 세운 코리아기술대학교


라오스 승왕과 함께 진행한 행사 모습


중국 헤능대사 육조사 방장 접견




베트남 불교회장과의 한 · 베 불교교류 모습


몽골 승왕과 한 · 몽골 불교교류 논의 모습


캄보디아 승왕


목탁 스님과 캄보디아 승왕, 라오스 승왕, 일본불교회장과의 만남




국회에서 진행된 각국 승왕 초청 행사 모습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大韓民國나라사랑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총 재 목탁 대승정 **사 서 원 장** 대연 청명 명사 **운영위원장** 대향 정인 명사, 대도명사 **의 전 원 장** 김재은, 이정희
봉행위원장 대행 자운 대종사 **조직운영장** 대각 월암대종사, 현담대종사 대공종사 **부 위 원 장** 대화 우진 정사 **봉사단회장 및 합창** 단장 최연호

03158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도메인 : 세계불교법왕청 .kr E-mail : moktak1@naver.com

